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8호 8월 1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8

근로자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8호 (153)

1958년 8월 15일

내 용

해주—하성간 광궤 철도 개통식에서 한 축하 연설

김 일 성

동무들!

제 1차 5개년 계획의 수행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해주—하성간 광궤 철도 부설 공사는 성과적으로 완성되였습니다. 8. 15 해방 13주년을 앞두고 이 철도의 개통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 특별히 기쁜 일입니다.

나는 오늘 해주—하성간 광궤 철도의 개통식에 제하여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본 철도 부설 공사에 동원되여 애국적 헌신성과 로력적 위훈을 발휘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공사를 성과적으로 완수한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우렁찬 박수**).

조선 로동당 제 1차 대표자회는 철도 운수의 기술 장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해주—하성간 광궤 철도를 부설할 것을 교통 운수 부문의 중요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였습니다.

당과 정부의 결정에 고무된 교통 운수 부문내 청년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건설 공사에 참가할 것을 열렬히 지망하여 나섰으며 황해남도 내 청년들이 이에 호응 궐기하여 도합 수천명의 청년들이 공사장에 달려 왔습니다.

연장 80 여 키로메터에 달하는 해주—하성간 광궤 철도를 부설함에 있어서는 88만 립방메터의 토량이 처리되였으며 5천 600 여 평방메터의 옹벽, 38개의 교량, 9개의 역사, 9개의 선로반, 하나의 기관구 그리고 200 여 세대의 주택 건설 공사들이 진행되였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공사는 보통으로는 3—4년이 걸려야 완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민 경제 발전의 절실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공화국 내각은 이 철도의 부설 공사를 1년 간에 수행함으로써 명년 5. 1절까지 개통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이 방대한 공사를 한 명의 국가 로력도 추가적으로 받지 않고 불과 7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8월 1일에는 쎄멘트를 만재한 첫 렬차가 당신들의 열정과 헌신적 로력에 의하여 건설된 새로운 광궤 철도를 통하여 해주로부터 민주 수도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낡은 기술 기준이나 작업 기준으로써 이러한 건설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당신들은 모든 낡은 기준량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기록들을 창조하였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발휘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공사에 동원된 청년 건설자들은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설정된 작업 기준을 4—5배로 초과 실행하였으며 선진 로동자들과 브리가다들에서는 9배 이상 초과 실행하는 등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집단적 혁신 운동의 새로운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구장 건설 사업소의 젊은 건설자들은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전체 공사 중에서 최대의 토

량을 가진 칠만산의 절토 작업에서 30 여 톤의 화약을 장약한 대발파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철도 부설 공사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함에 있어서 커다란 공로를 세웠습니다.

리 수복 영웅 돌격대원의 한 사람인 기관사석 철식 동무는 수중 굴착과 수중 콩크리트 타입 작업을 담당하고 각종 혁신 운동을 발기하여 40일을 예견한 공사 계획을 단 5일 간에 완수케 하였으며 특히 7월 1일의 홍수 전야에는 깊은 물 속에서 29시간 동안 련속 작업을 하면서 근 70키로그람의 흙가마니를 580개나 쌓아 올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영웅적 위훈을 세웠습니다(우렁찬 박수).

산승 농업 협동 조합 박 인형 동무는 한 작업 중대 책임자의 직책을 지니고 성토 작업 계획을 근 9배로 완수하여 공사 기간을 81일간이나 단축하였으며 100명의 기능공을 양성하고 1,000 여 명의 로력을 절약하는 커다란 공훈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실례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건설 공사에 참가한 매개 청년들이 다 혁신자였으며 한 사람이 앞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곧 그를 따라 앞섰으며 한 브리가다가 기록을 내면 다른 브리가다가 곧 그 기록을 돌파하였습니다.

5백 삽 뜨고 허리 쉬기 운동, 천 삽 뜨고 허리 쉬기 운동 등 사람을 경탄케 하는 로력적 앙양이 전체 건설 집단을 휩쓸었습니다.

해주—하성간 광궤 철도 부설 공사는 방대한 기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 준 황해 제철소, 길주 침목 방부 공장을 비롯한 관계 부문들의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황해남도의 전체 농민, 학생들 및 당, 정권 기관 일'군들의 공동 로력과 전 인민적 로력 투쟁의 열매입니다.

나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광궤 철도의 부설 공사를 직접 간접으로 방조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우렁찬 박수).

소요 기자재를 제때에 보장하며 도내의 애국적 로력을 조직 동원하여 건설자들의 투쟁을 고무 추동함에 있어서 황해남도 도 당 위원회와 도 당 단체들은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해주—하성간 광궤 철도는 우리 나라 경제의 금후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 철도는 년산 60—70만 톤에 달하게 될 해주 세멘트 공장의 세멘트를 각지 건설장들에 더욱 신속히 수송함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게 될 것이며 생활 필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보장함과 아울러 평양—해주간 직통 려객 렬차의 운영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큰 편의를 주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자기의 영웅적 로력으로써 주권을 장악하고 새 생활의 창건에 일떠선 인민 대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세운 위훈과 당신들이 떨친 명성은 지금 전국을 뒤끓게 하고 있는 전례 없는 로력적 앙양에 새로운 거대한 고무와 충격을 주었으며 전체 우리 인민에게 어떠한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신심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모든 근로자들과 모든 청년들의 가슴 속에 우리 인민의 지혜와 재능과 용감성에 대한 무한한 궁지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 위대한 전투 대렬에 참가하고 있는 그들의 기쁨을 한층 더 크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박수).

동무들!

오늘 조선 인민은 우리 나라의 력사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제 1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개년 계획 기간에 이미 확립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의거하여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장기간의 봉건 통치와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물려 받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사회주의의 물질 생산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할 것이며 우리 인민의 생활 수준을 현저히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속 공업, 전력 공업, 석탄 공업, 기계 제작 공업, 화학 공업, 건재 공업 등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이 기초 우에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의 수행에서 철도 운수 부문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인민 경제의 동맥과도 같습니다. 만일 철도가 인민 경제 발전에 필요한 화물 수송을 제때에 보장하지 못한다면 공업과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광범한 건설 사업도 진행할 수 없으며 인민 생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의 철도 운수 부문 앞에는 긴장된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61년에는 1956년에 비하여 철도 화물 수송량을 175%로, 철도 화물 순환은 171.6%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증대되는 수송 과제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교통 운수 부문에서 기술 장비를 더욱 강화하며 통과 능력과 수송 능력을 현저히 제고하여야 합니다. 5개년 계획 기간에 평원선, 원라 본선을 비롯한 중요 선들의 수송 능력을 현저히 높이며 수성—고무산, 창령—금패간에 복선을 부설하며 고원—신성천간 철도의 전기화를 완성하고 명천—단천간 철도도 전기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만포—운봉간의 철도와 금강산선을 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5개년 계획 기간에 청진 및 함흥 조차장을 신설하며 많은 역사들을 문화적으로 개조하여야 하겠습니다.

려객 수송에 있어서는 려객들에 대한 봉사성과 문화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철도 부문들에서 륜전 기자재의 리용률을 더욱 높이며 화차의 회귀 일수를 부단히 단축시켜야 하겠습니다.

전력 자원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서 철도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며 수송 능력을 제고하고 수송 원가를 저하시키기 위하여서는 철도를 전기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철도 운수의 장래 발전은 철도를 전기화하는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긴급한 철도선들을 전기화하는 동시에 장차 우리 나라 철도를 전반적으로 전기화하기 위한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철도 운수 부문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당이 제기한 이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넘쳐 수행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우렁찬 박수).

동무들!

우리는 현재 5개년 계획의 어려운 고비를 승리적으로 돌파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공업, 농촌 경리, 철도 운수, 기본 건설 등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에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1957년 계획과 1958년 상반년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당의 부름에 열렬히 호응한 전체 근로자들은 5개년 계획의 수행에서 전례 없는 창발성과 재능과 애국적 열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일대 고조에 들어 섰습니다.

도시와 농촌, 공장과 광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천리마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의 전체 면모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공업 발전에서는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들이 련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은 흥남 질안 공장의 건설을 계획보다 1년이나 앞당겨 완수하였으며 황해 제철소에 웅장한 용광로와 해탄로를 건설하여 놓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 이 철도의 개통식과 함께 불과 60 여일 간에 복구된 해주 세멘트 공장 제 3호 소성로의 준공을 축하하게 됩니다(박수).

공업 생산은 계속 급속히 발전하여 금년 상반년에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34%나 더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전국 건설장들에서는 모든 건설이 놀라운 속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7,000 세대분의 자재와 로력으로써 2만 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것을 결의하여 나선 평양시 건설자들의 애국적 발기는 전국 건설장들에서 일대 혁신 운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양시에서는 벌써 금년 상반년에 1만 8천 여 세대의 주택이 착공되였고 8천 여 세대의 주택이 준공되였습니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금년에도 역시 심한 자연 재해가 있었으나 농민들의 불굴의 로력 투쟁으로 말미암아 대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는 결코 우연하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민은 수세기에 걸치는 봉건 통치와 근 반세기에 걸친 일제 식민지 통치 밑에서 암흑과 고난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해방후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 밑에 반동파의 가렬한 투쟁 속에서 주권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였으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그 주권을 사수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당 정책에 고무된 전체 근로자들은 전후에 그와 같이 참혹하게 파괴되였던 경제를 복구하였고 매우 어렵던 자기 생활을 현저히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미 모든 착취 제도는 기본적으로 청산되였으며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는 결정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서 항상 승리하였으며 자기의 사활적인 투쟁을 통하여 당 정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 인민은 오늘 당의 부름에 따라 수백 배의 용기와 신심을 가지고 새로운 더욱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일떠섰습니다(박수).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거대한 혁명적 고조는 당 주위에 굳게 집결된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가로 막을 힘은 없으며 그들이 결심만 하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는 방대한 5개년 계획의 과제를 넘쳐 수행하리라는 것을 확신성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어떻게 하면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달리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 5개년 계획을 기한 전에 더 빨리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됩니다.

고도로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 기세를 계속 견지하며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부단한 앙양을 가져 온다면 우리는 능히 5개년 계획을 훨씬 기간 단축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3—4년이 걸려야 할 수 있던 공사를 75일간에 완수하는 그 기세라면 우리가 무엇을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오직 고조된 대중의 혁명적 기세를 보려고 하지 않는 소극 분자들과 보수주의자들만이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위력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극성과 보수주의는 도처에서 우리 인민의 힘찬 전진에 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력사적인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 후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주로 적극과 소극, 진보와 보수와의 투쟁이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체 전선에 걸쳐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극복하여 나아감으로써 전환을 일으킬 수 있었고 오늘의 혁명적 고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1957년에 공업 생산을 전년에 비하여 22% 장성시킬 계획을 제출하였을 때 소극 분자들은 절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동년에 공업 생산은 22%만 장성한 것이 아니라 44%라는 기록적인 장성을 가져 왔습니다(박수).

보수주의자들은 송풍기를 수입하지 않고는 황해 제철소의 용광로를 5. 1절까지는 고사하고 8. 15까지도 복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의 부름에 호응한 우리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우리의 자재와 우리의 기술로써 금년 5. 1절 전야까지 훌륭한 용광로를 건설하여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건설 부문에 뿌리 박고 있던 종파 분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을 극복하고 대중의 창조적 열성을 불러 일으킴으로써만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건설장들에서 오늘과 같은 전환을 가져 올 수 있었습니다.

농촌 경리에서 온갖 보수성과 소극성을 반대하고 랭상모를 비롯한 선진 영농 방법을 도입하며 가물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농민 대중을 동원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작년같은 해에 320만 톤의 기록적인 알곡 수확을 달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흔히 보수주의자들은 공칭 능력을 따지며 과거의 실적과 낡은 기술 기준을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책 제철소에서, 강선 제강소에서, 남포 제련소에서,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공칭 능력과 기준량들은 수 배 또는 수십 배로 초과되고 있으며 전례 없는 기록들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여 줍니까? 그것은 우리의 전진 운동을 장애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는 전체 근로자들의 거대한 로력적 앙양에 의하여 타파되고 있으며 그것을 극복함으로써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박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수성은 아직도 남아 있으며 그와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업은 보수성의 온갖 표현을 극복함으로써 오늘의 혁명적 고조를 견지하며 더욱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 속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은 아직 뒤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직접 적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정세는 우리에게 사소한 안일성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속 긴장하며 부단한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 달려야 하며 더욱 빨리 달려야 합니다(우렁찬 박수).

나는 동무들이 금번 공사에서 발휘한 기세를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오늘 조선 인민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류례없는 일대 혁명적 고조기에 자기의 전통적인 민족적 명절 8. 15 해방 13주년을 맞이한다.

지금 전국은 비상히 앙양된 근로자들의 창조적, 혁명적 열의로 들끓고 있다.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재능, 창발성과 열성은 화산과 같이 폭발되여 매일 매 시각 새로운 기록, 새로운 지표, 새로운 기적들을 창조하고 있다. 과거에 어느 누구도 생각치도 못하였고 할 수도 없었던 거대하고 방대한 일들이 이미 우리 근로자들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종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지금에 와서는 가능한 것으로 되였다. 종전에는 오래 걸리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는 가장 짧은 기간내에 실현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면모는 시시각각으로 전변되고 있다.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은 자기의 전통적인 혁명적 기개를 발휘하여 불과 1년 동안에 흔적조차 볼 수 없던 황해 제철소 용광로를 완전히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 자체의 자재로써 건설하였으며, 가장 복잡한 기술 공정을 요하는 흥남 질안 공장 건설을 1년 간이나 앞당겨 완수하였다. 7,000 세대분의 자재와 로력으로써 2만 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것을 결의하여 나선 평양시 건설자들은 금년 상반년간에만 하여도 이미 8,000 세대의 주택을 건설하였으며, 우리의 젊은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얼마 전에 일제 시기라면 4—5년이 걸린다던 해주—하성간 200 여 리의 광궤 철도 부설 공사를 불과 75일 간에 완공하는 참으로 기적적인 일을 하여 놓았다. 이러한 급속한 건설 속도는 우리들 자신까지도 놀라게 하며 흥분과 열정을 북돋아 준다.

우리 나라의 농민들도 랭상모, 면화 영양단지 가식법 등 새로운 영농 방법들을 광범히 도입하여 다수확을 거두고 있으며 우리의 선조들이 생각치도 못하였고 할 수도 없었던 밭관수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적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운전군 신시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밭 관수를 도입하여 밀 정당 평균 4톤씩 수확하고 그 중 1정보에서는 최고 7톤 650키로그람이라는 전례 없는 다수확을 거두었다. 밭 관수 체계의 확립은 농촌 기술 혁명에서의 획기적인 사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농촌을 흉풍을 모르는 지대로 전변시키는 일대 변혁을 이루어 놓고 있다.

인민들의 앙양된 창조적 로력에 의하여 우리 인민 경제는 비약적 템포로 발전하고 있다. 공업 생산은 금년 상반년 간에만 하여도 작년 동 기에 비하여 34%나 더 장성하였다. 알곡 생산도 작년에 이미 수십년래의 혹심한 가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력사에서 볼 수 없었던 320만 톤의 다수확을 거두었다. 인민 경제의 발전 템포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의 유일적 체계가 확립되였다.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는 공업에서 98.7%, 농업에서 98.6%를 차지하며 개인 상공업도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였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하여 문화 혁명과 기술 혁명도 거대한 심도와 높은 템포로 전개되고 있다.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낡고 진부한 것들이 청산되여 가고 있으며 새롭고 선진적인 것, 새로운 사회주의적 기풍과 사회주의적 생활 태도가 날과 더불어 개화 발전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혁명적 전환기에 우리는 해방 13주년을 기념한다. 김 일성 동지는 약동하는 우리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특징 지었다: 《전체 근로자들은 당의 부름에 따라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를 향하여 달리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일대 고조에 들어 섰다》.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 이것은 평범한 사변이 아니다. 근 반 세기에 걸쳐 헐벗고 굶주린 노예 생활을 하였으며 경제적으로나 과학 기술적으로나 심히 락후하였던 그러한 나라에서, 특히는 5년 전만하여도 벽돌 한 장도 없었고 도시와 농촌이 문자 그대로 페허로 되였던 바로 그러한 나라에서 그렇게 급속한 시일내에 세인을 경탄케 한 방대하고 거대한 위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이루어 놓은 사실을 어떻게 평범한 사실로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기적이며 우리의 자랑이다.

이 위대한 기적 앞에서 오늘 우리의 형제적 인민들은 물론 전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은 또다시 영웅 조선 인민의 기개를 보며 경탄하고 있으며 우리의 원쑤들은 더욱더 전률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는 결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합법칙적 발전의 필연적 산물이다.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제도는 생산력의 발전을 부단히 촉진시킨다. 그것은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광범한 인민들,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인민 대중을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에 광범히 인입시키며 그들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의 발양을 위한 무한한 공간을 열어 놓음으로써 사회의 발전을 급속한 템포로 촉진시킬 수 있게 한다.

레닌은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착취 계급에 의하여 인민 대중의 창조적 재능이 질식 당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력사는 몹시 천천히 기여간다》. 이와 반대로 인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력사 발전이 급속히 촉진된다. 특히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있어서의 혁명 발전의 나날은 《평온한》 시기의 1—2년에 해당하는 급속한 속도로 발전한다. 이 레닌적 명제는 오늘 우리 현실에서 다시금 확증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바로 그렇게 급속한 템포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제도에 비한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은 혁명적 고조를 야기시키는 유리한 객관적 지반, 가능성을 조성하여 줄 뿐이다. 이 유리한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발전에서의 주관적 요인의 능동적, 의식적 활동이 결정적 역할을 논다.

사회주의 건설——이것은 자연 생장적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맑스—레닌주의 당의 지도하에 로동 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의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창조적 열성에 의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는 결국 당의 의식적이며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조성되는 물질적 및 정신적 전제 조건이 있음으로써만 또한 광범한 근로자들의 비상히 앙양된 창조적 열성이 있는 조건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는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지도, 당에 의하여 교양되였고 각성된 인민들의 비상히 앙양된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것은 해방후 10 여년 간 국내외의 계급적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경제의 세기적 락후성과 인민 대중의 문화적 락후성, 낡은 사상과 낡은 인습들을 극복하는 투쟁 속에서 준비되였고 이루어졌다.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지도는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야기시킨 결정적 요인이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력사적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벌써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을 조성하면서 부단히 혁명적 고조를 준비하여 왔다.

전쟁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당은 전후 사회주의 건설의 물질적 토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장들을 건설하였으며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기본 토대로서의 국영 농목장들을 계속 확대 발전시키며 협동 경리의 새 싹들을 꾸준히 육성하였다. 이와 함께 당은 이러한 원대하고 정확한 정책의 정당성을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시키지 못하는 경향을 《반맑스주의적 사상적 오유》라고 비판하면서 그 정책을 계속 추진시켜 왔다.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위한 투쟁은 전후 시기에 들어 와서 더욱더 정력적으로 전개되였다. 이에 있어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 발전의 총로선은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로선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 력사적 조건에 맑스—레닌주의적 재생산 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우리 인민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며 인민 생활을 짧은 시일내에 급격히 향상시키며 우리 인민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이다. 인민의 원쑤들, 반당 종파 분자들의 온갖 파괴적 책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이 로선을 철저히 고수하고 관철시킴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인민 경제의 새로운 앙양, 중공업, 경공업 및 농촌 경리, 식료품 공업의 장성, 전체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여 놓았다. 그리하여 전후 3개년 간에 벌써 우리 나라는 연료—동력 기지를 비롯하여 강력한 중공업 기지와 또한 경공업 기지를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자체의 손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는 결정적으로 승리하였으며 계급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천하게 되였다. 로농 동맹은 새로운 기초 우에서 강화 발전하게 되였으며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도 더욱더 공고화되였다.

전후 경제 발전의 총로선은 이와 같이 급속한 시일내에 자기의 거대한 생활력을 과시하였다. 만일 우리 당의 이러한 현명한 정책과 정확한 령도가 없었더라면, 그를 관철하는 과정에서의 이러저러한 부정적 편향들과의 비타협적 투쟁이 없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는 고사하고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의 복구도 못 하였을 것이며 령락된 인민 생활을 급속한 시일내에 개선 향상시키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당의 총로선은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음으로 하여 국내외의 계급적 원쑤들의 그 어떠한 책동과 요언에도 동요될 수 없었으며 거대한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될 수 있었다. 당의 부단한 지도하에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 사회주의적 의식도 제고되게 되였다. 특히 오래 동안 우리 대렬내에 잠입하여 우리 혁명 발전에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친 최 창익, 박 창옥을 비롯한 반당, 반혁명 도당의 적발 폭로는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 사회주의적 의식을 급격히 제고시켰으며 우리 당에 대한 그들의 지지와 신뢰를 가일층 강화하였다. 인민들은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였으며 자기의 위대한 힘을 더욱더 자각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인민들은 당의 지도하에 자기의 혁신적 창조적 력량을 가장 성과적으로 발휘하게 되였으며 수 많은 로력적 위훈을 나타냈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기적을 창조할 수 있게 하는 정신적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맑스주의 철학은 사회 생활에서 질적 비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량적 축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1956년까지에 이르는 시기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위한 물질적, 정신적 축적은 드디여 일대 비약을 일으켜 1957년 이래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생활에서는 거대한 앙양이 일어났으며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혁명적 고조기에 들어 서게 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위한 물질적, 정신적 준비에 기초하여 일대 비약을 실현하며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는 그 력사적 계기로, 발단으로 되였다.

12월 전원 회의는 우리 인민 경제가 3개년 계획을 완수한 기초 우에서 제 3차 당 대회가 제시한 방향에 립각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의 수행에 들어 섬에 따라 제기된 새로운 일련의 경제적 문제, 주로 우리 자체의 내부 원천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 예비를 조성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방도를 제시하였다. 《증산하며 절약하자》——이것은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열의와 지혜에 의거하여 3개년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우리 인민 경제의 토대를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인민 경제의 전진 속도를 높이며 우리 자체의 축적된 원천과 로력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확한 방침이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방침은 거대한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되였으며 대중 속에 잠재하는 무궁무진한 력량을 발동시켰다.

특히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들과 각급 지도 간부들의 현지 지도는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일층 강화하였으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발성을 비상히 제고시켰으며 인민 경제의 새로운 앙양과 기술적 혁신을 불러 일으켰다.

《위대한 목적은 위대한 정력을 낳는다》(레닌). 12월 전원 회의 이후 우리 나라의 생활은 바로 그러하였다. 제 1차 5개년 계획의 광활한 전망은 근로자들의 새로운 무진장한 정력을 불러 일으켰으며 1957년 이래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는 새로운 일대 혁신, 기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근로자들의 증산 경쟁 운동은 1957년 이후 더욱 급격히 장성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인 대중적 혁신 운동으로 전환되였다. 근로자들의 창조적 지혜와 열성의 집중적 표현의 하나인 각종 합리화, 발명, 창의 고안은 급격히 장성하였다.

12월 전원 회의 이후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 기적적인 성과는 그 변혁의 규모와 깊이에 있어서 일찌기 볼 수 없는 거대한 것이다.

12월 전원 회의 이후 기적적인 성과도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외의 계급적 원쑤들과의 첨예한 투쟁 속에서, 우리의 전진 운동을 저해하는 온갖 불건전한 요소와의 투쟁 속에서 이루어졌다.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에 따라 일층 강화된 계급적 원쑤들의 준동을 미연에 적발 폭로하는 투쟁을 전당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그들의 반혁명적 책동을 제때에 분쇄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발전을 보장하였다.

보수주의와 소극성과의 투쟁은 12월 전원 회의 이후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졌다. 일부 보수주의자, 소극 분자들은 인민 대중의 힘을 믿으려 하지 않고 12월 전원 회의에서 1957년 공업 생산을 전년에 비하여 22% 장성시킬 계획을 제기했을 때 그것은 절대로 실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1957년도의 공업 생산은 44%라는 기적적인 장성을 가져 왔다.

대중의 실천은 온갖 보수주의, 소극성을 분쇄하였으며 현실과는 유리된 교조주의, 형식주의 등등을 분쇄하여 버렸다. 이러한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전진 운동을 저해하는 반당적인 것, 온갖 낡은 것, 보수적인 것들이 극복됨에 따라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 그의 정책이 대중 속에 더 깊이 침투되게 되였으며 대중 속에서 거대한 창조적 적극성이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는 이상과 같이 해방후 10 여년 간 우리 당의 지도하에서 이룩된 거대한 물질 및 정신적 준비에 기초하여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 속에서 당과 인민 대중의 지혜 및 력량이 하나로 결합된 기초 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고조의 기본 내용은 사회주의적 생산력의 비상한 발전,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유일적 지배와 그의 공고 발전, 인민 대중의 물질 문화적 복리의 급속한 증진, 사회주의적 사상 문화의 전면적 개화 등이다. 따라서 이 고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현 시기의 모든 사태 발전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오늘 인민들은 선진적인 것을 배우며 그것을 따라잡으며 앞서기 위하여 더욱더 자각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국제적 범위에서 선진적 지표를 찾으며 경쟁할 대상을 찾고 있

다. 그들은 현상 유지를 달가와하지 않고 일체 낡은 것, 보수적인 것, 소극적인 것을 멸시하면서 새로운 기적들을 창조하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앙양된 대중의 총명과 재질을 계속 발양시키며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인민 경제의 전진 속도를 가일층 촉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견지하며 그를 보다 높은 단계로 앙양시킬 것을 전 당적, 전 인민적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 락후했던 우리 나라를 하루속히 문명하고 강력한 자립적인 공업—농업국으로 전변시키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취하여진 가장 정당한 조치이다.

이를 위하여 당은 문화 혁명과 기술 혁명을 가일층 정력적으로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전진 운동을 저해하는 모든 낡고 썩어빠진 관념들을 제거하며 인민 대중의 혁명적 적극성을 속박하는 온갖 그릇된 사상을 철저히 타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 대중의 혁명적 기세는 날과 더불어 앙양되여 새로운 발기, 새로운 지표들을 창조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일부 보수주의자, 소극 분자, 겁쟁이들은 《선진 국가에서도 아직 이런 것이 안 나왔는데》, 《선진 국가의 지표보다도 높은데》 하는 등등으로 우리 인민들이 창조하는 새로운 지표, 새로운 창안들을 홀시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선진적인 것은 마치도 기술을 소유한 《특수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수행되며 일반 근로자들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기술을 《신비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혁명적 정신과는 량립될 수 없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다른 선진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지표, 새로운 창안, 발명들을 내놓고 있다. 근로자들은 자기의 실천으로써 기술에 대한 《신비성》을 분쇄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더욱더 새로운 기술로 무장하면서 새로운 기적들을 창조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실천 과정에서 새로운 원리, 새로운 지표로써 낡은 원리, 낡은 지표들을 대체하고 있으며 어떠한 서적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기술적 발기들을 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새로운 발기들을 현실을 떠나 그 어떤 다른 나라에서, 그 어떤 서적들에서만 근거를 찾으려는 것처럼 황당한 일은 없다. 우리 인민들은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위대하고 거대한 기적들을 창조할 것이며 계속 천리마로 달릴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전진 운동을 저해하고 있는 잔존하는 보수주의, 소극성과의 투쟁을 강화하며 지도 일'군들의 령도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인민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계속 앙양시키는 데 있다.

객관적 정세는 특히 지도 일'군들에게 지도를 대중에게 접근시키며 대중의 선두에서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 기세를 더욱 발양시킬 것을 요구한다.

지도 간부들은 더욱더 인민적 사업 작풍을 수립하고 근로자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들의 심정을 알아보며 잘못된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지도 간부들은 쓸데 없는 문서 놀음에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사무실을 떠나 더욱더 현지에 나가 구체적인 실정을 료해하여 지도를 군중 속에 침투시켜야 한다.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과 같이 만일 지도 일'군들 자체가 직접 근로자들의 생산 실천을 보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지도를 할 수 없다. 지도를 더욱더 하부에 접근시키며 현지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여야 한다. 군중과 밀접한 련계를 맺어야 자기 앞에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2월 전원 회의 이후 생활에 의하여 확증된 모든 사실은 당이 제기한 과제를 가지고 대중과 토의하며 대중 속에 그를 깊이 침투시키며 그리하여 대중이 그를 자각적으로 집행한다면 선진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지표도 락후한 지표로 되여 버린다는 것, 오래 동안 해결할 수 없던 많은 문제가 재빨리 해결된다는 것, 이전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일을 아주 적은 투자로 할 수 있다는 것,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많은 좋은 방법들을 대중이 생각해 낸다는 것, 동원되지 않은 많은 내부적 원천들을 간단 없이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우리 앞에는 허다한 난관과 애로들이 놓여 있다. 문제는 우리가 곤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우선 그 곤난에 대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져야 하며 매개 구체적인 곤난들을 점차적으로 극복하여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곤난을 극복할 영웅적 기개와 혁명적 기세를 가져야 하며 생기 발랄한 전개력과 진취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계속 앙양시키며 계속 공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 속도를 늦출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생산력 발전 수준은 선진 국가에 비하여 아직 뒤떨어져 있다.

《우리는 적과 직접 대치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정세는 우리에게 사소한 안일성도 허용하지 않는다. 계속 긴장하여 부단한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 달려야 하며 더욱 빨리 달려야 한다》(김 일성).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 속도를 더욱더 급속한 템포로 전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지도, 당의 주위에 튼튼히 집결된 인민들의 고도로 앙양된 창조적 혁명적 기세는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능히 할 수 있으며 우리의 건설 속도를 계속 전진시키는 강력한 담보로 되고 있다.

이 위대한 력량 앞에서는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그 어떠한 난관과 장애물도 물러 선다. 이 위대한 력량을 꺾을 힘은 세상에 없다.

당의 지도하에 조선 인민이 앞으로 보다 새로운 큰 승리를 달성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중근동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오늘 중근동에는 위급한 력사적 순간이 조성되고 있다. 미 영 침략 계층들은 레바논과 요르단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반대하는 공개적 침략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미 영 호전 분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비단 중근동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과 안전을 침해하는 침략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체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발적 행동이다.

오늘 미 영 침략자들의 레바논과 요르단에 대한 침략적 행동이 전 세계 앞에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문제를 더욱 날카롭게 제기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지역들의 하나로 된 중근동에서 군대와 땅크, 폭격기들을 동원하고 지어는 원자 무기까지 사용하려는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적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을 포함한 전 세계의 선량한 평화 애호 인민들은 한결같이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모험적 도발 행위를 견결히 규탄 반대하고 있으며 아랍 인민들의 숭고한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 있다.

특히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오늘 세계를 위험한 처지에 몰아 넣고 있는 미 영의 무력 침공을 종식시키며 국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주도적이며 가장 현명한 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쏘련은 수뇌자 회의 소집을 비롯하여 계속 중근동 문제의 구체적 해결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중근동에서의 평화는 레바논과 요르단으로부터 미 영 침략군을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시급히 철거시키고 이 지역 인민들의 내정 문제가 그들 자체에 의하여 정당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경우에만 회복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 영 호전 분자들은 그의 침략군을 철거시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들의 무력 강점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온갖 파렴치한 책동을 다하고 있다. 미 영 침략 계층들은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대치하여 세계 여론을 기만하려는 졸렬한 술책을 서슴치 않고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철면피하게도 자신들을 《평화의 녀신》인 듯이 가장하면서 자기들의 침략 행동이 마치도 《간접적 침략》으로부터 레바논과 요르단의 《독립을 보호》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듯이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론거는 사실과는 전연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세계 인민들의 분노를 더욱 야기시키고 있을 뿐이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간접적 침략》에 대한 아무러한 구체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쓸데 없는 공담만 늘어 놓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공담으로써 중근동에 조성된 긴급한 문제들의 해결을 지연시키며 자기들의 침략 행위를 음폐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책동은 바로 유엔 총회 비상 특별 회의에서 한 아이젠하워의 연설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레바논에 대한 미국 군대의 침략을 명령한 범죄 행동의 장본인인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간접적 침략》에 대한 허구적 론조를 되풀이하면서 소위 《중동 평화안》에 대한 공담을 늘어 놓음으로써 자기의 범죄적 침략 행동을 유엔의 이름으로 합법화하며 총회 앞에 제기된 긴급한 문제의 토의로부터 회피하려는 기만 술책을 다하고 있다.

미 영 침략군이 강점하기 전에 레바논과 요르단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자기 나라의 민족적 독립을 외래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 먹는 반역적 대통령 샤문과 봉건 왕조 후세인을 반대하여 궐기한 광범한 인민 대중의 봉기이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레바논과 요르단의 내정 문제이다. 유엔 시찰단과 유엔 사무 총장 함마숄드도 레바논을 방문한 다음 레바논의 무장 충돌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 원인에 기인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국제법에서와 국제 관계에서 공인된 규범으로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느 한 나라 인민들이 누구를 집정자로 선택하건 또 어떤 사회 정치 제도를 선택하건 간에 그것은 전적으로 그 나라 인민 자신의 문제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도 이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 이것은 18세기 말엽의 불란서 혁명, 19세기 중엽의 미국 공민 전쟁 당시 부르죠아 자신들에 의하여 선포되고 적용된 원칙들이다. 오늘 내정 불간섭의 원칙은 유엔 헌장의 중요한 조항으로 규정되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공인된 이 원칙을 위반하고 도발적 행동을 공공연히 감행하고 있다. 미 영 침략자들이 아무러한 근거도 없는 《간접적 침략》을 떠벌리면서 레바논과 요르단의 내정에 대하여 감행하고 있는 무력적 간섭은 국제법과 국제 생활 규범과 도덕의 란폭한 위반이며 공개적인 침략 행위이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간접적 침략》에 관한 공담으로써 레바논과 요르단에 대한 자기들의 무력 침략을 정당화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해서는 반동적 부르죠아 출판물들까지도 시인하고 있다. 미국의 유력한 반동 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지는 미국의 레바논 침략을 《간접적 침략》이란 구실로 정당화하려는 미 국무 장관 덜레스의 구상을 가리켜 미국의 침략적 립장을 더욱 폭로하는 빈약한 론거에 불과하다고 썼다. 아이젠하워가 유엔 총회 비상 특별 회의에서 덜레스의 이 구상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미국 침략 계층이 자기들의 침략 행위를 엄폐할 어떠한 구실도 찾을 수 없게 되였다는 것을 반증할 따름이다.

제국주의 침략 계층은 《평화》에 대하여 목청을 돋구어 고함치기를 즐겨한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란 침략과 전쟁을 위한 구실이며 진정한 평화는 아니다. 바로 유엔 총회에서 한 아이젠하워의 《평화》에 관한 연설도 요컨대 평화가 아니라 중근동의 풍부한 석유의 리권을 탈취하려는 미국 석유 독점체들의 범죄적 야욕을 대변하는 것이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중근동의 석유 산지를 략탈하기 위하여 오래 동안 투쟁하여 왔다. 그들은 자기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정치, 경제 및 군사적 수단들을 적용하였다. 특히 최근 년간 이러한 략탈전이 더욱 심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애급 전쟁, 《아이젠하워주의》, 《록크펠라주의》 등등은 모두 석유 략탈전의 산물이다. 현재 미 영 침략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군사적 모험도 중근동의 석유를 탈취하고 고률의 리윤을 획득하려는 전형적 식민주의적 해적 행위이다.

레바논과 요르단에 대한 미 영의 무력 강점은 바로 미국 독점 계층을 두목으로 한 침략적 제국주의 빨력이야말로 평화, 민주주의 및 민족적 독립의 원쑤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조선 인민은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의 악랄한 전쟁 준비 책동에서도 이것을 더욱 똑똑히 보고 있다. 최근 시기에만 하여도 미국 침략 계층은 조선 정전 협정을 계속 란폭하게 유린하고 남조선에 원자 무기를 끌어 들였으며 유도탄 기지까지 설치하는 엄중한 도발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제의 광란적 전쟁 준비 책동은 계속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방해하고 전쟁 온상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조선 인민의 불행과 재난의 근본 원인은 바로 미제의 남조선 강점에 있다. 조선 인민은 자기들의 이와 같은 실제적 체험을 통하여서도 미 영 제국주의자들이 레바논과 요르단 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 행위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오늘 미제의 피묻은 마수가 뻗치고 있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의 반미 기세는 고조되고 있다. 미제의 식민주의 정책은 바야흐로 파산되고 있다. 얼마 전에만 하여도 동방과 기타 일부 국가들에는 혹간 미제의 소위 《반(反)식민주의》에 대한 일정한 환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러한 환상마저 없어졌다. 이것은 미제가 오늘 모든 인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적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게 되였기 때문이다.

멸망 접경에 선 반동 세력은 더욱 발악한다. 바로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미제의 전쟁 준비 책동이 그러하며 현재 감행하고 있는 레바논과 요르단에 대한 침략 행동이 그러한 것이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군사적 모험을 중근동에서 제국주의의 최후 거점이였으며 이라크 혁명에 의하여 이름조차 타당치 않게 된 바그다드 조약이 붕괴되기 시작한 오늘 감행하고 있는 사실은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국제 제국주의 세력의 최후 멸망의 날이 가까왔음을 예고해 주고 있다.

그들의 레바논과 요르단에 대한 무력 강점은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이 나라들에서도 허물어져 가는 반동 세력의 지주인 샤문과 후세인 따위의 인물을 추켜 세우고 여기에 파탄된 식민주의의 기둥을 박아 보려는 데 있으며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 과정을 조금이라도 억제하려고 하는 데 그의 진 의도가 있다.

그러나 력사의 전진 운동에 항거하여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 과정은 억제할 수 없으며 식민지 착취 제도의 복구는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 하면 피압박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은 전 세계 진보적 투쟁의 일부이기 때문이며 프로레타리아트를 향도력으로 하고 있는 세계 혁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력사적 제 사실은 이것을 그대로 말해 주고 있지 않는가! 조선 전쟁에서의 미제의 참패, 인도네시아에서의 화란 식민주의자들의 멸망, 인도지나에서의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의 패배, 애급 전쟁에서의 영 불의 참패 등등은 력사에 항거하고 민족 해방 운동을 반대하여 도전하는 자들의 운명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바로 그러한 운명을 레바논과 요르단을 반대하여 도전하고 있는 미 영 침략자들도 면치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늘 사회주의가 세계적 범위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전환기에 있어서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와 민족 해방 운동은 불가항적인 것이다. 따라서 미 영 식민주의자들도 이러한 엄연한 력사적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민족 해방 운동을 국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중근동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며 이 국가들의 자주권과 령토 완정을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 바로 쏘련을 비롯한 전체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립장에 서서 중근동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왔으며 금번 레바논과 요르단 사건의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른 평화 애호 국가들과 같이 평화 사업을 철저히 고수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온갖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이 이를 끝끝내 거부하며 전쟁의 불'길을 확대하려 한다면 그 때에는 가장 단호한 실제적 행동으로써 그 불장난을 제압 분쇄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제국주의자들 자신과 자본주의 체계 전반의 가장 신속한 멸망을 가져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만약에 미 영 제국주의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연명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에서, 레바논과 요르단에서, 대만에서와 기타 등지에서 침략군을 철거시켜야 한다.

오직 레바논과 요르단으로부터 미 영 침략군의 지체 없는 철거만이 전쟁의 위협에 싸여 있는 중근동의 엄중한 정세를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 방도이다.

형식주의의 퇴치는 당 기관 지도 방법 개선의 중심 고리

허 일 훈

오늘 우리 당은 당 사업 지도에서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퇴치하고 당 기관들의 사업 방법을 가일층 개선할 것을 특히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 사업 발전의 객관적 요구이다.

지금 우리 나라는 정치,경제,문화 생활에서 비상한 앙양기에 처하여 있다. 따라서 당 단체들 앞에는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한 지도를 요구하는 새롭고 더 큰 과업들이 제기되였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 보자. 산업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복구가 우리 당 단체들의 전면에 나섰던 시기는 이미 지나 갔다. 제 1차 5개년 계획은 산업에서의 기술적 개건의 방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산업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선진 기술에 대한, 기술 인재에 대한, 절약과 내부 예비 탐구에 대한 문제 기타 일련의 문제들이 일층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농촌에 있어서도 사정은 동일하다.

얼마 전만 하여도 농촌 경리의 경제 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 즉 농민들이 자원적으로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당 단체들의 농촌 지도의 중심 문제의 하나였다면 오늘은 벌써 그 문제는 뒤로 물러 가고 새로운 문제들, 례하면 농민들의 사상 의식의 사회주의적 개조,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이 성숙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따라서 로동자, 농민, 근로 대중의 사상 의식에서도 거대한 전변이 시작되였다. 이것은 그들의 사회 정치 생활 및 로력 투쟁에서 거대한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되면서 있다. 근로 대중의 이 사상 정치적, 로력적 열성을 옳게 조직 동원하며 지도하는 것은 현 시기 당 앞에 제기된 경제적 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담보이며 우리 혁명을 촉진시키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그러나 아직 일부 당 단체들은 이러한 새 환경에 맞게 당 사업 방법을 대담하게 개선하지 못하고 낡은 관점, 낡은 방식대로 사업함으로써 현 시기 당 정책의 중심 고리를 옳게 틀어 쥐지 못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시키지 못하며 천리마의 대렬에서 락후되고 있다. 이러한 결함의 주되는 고리가 바로 당 사업 지도에서의 형식주의에 있다.

행정 기관, 경제 및 문화 기관, 근로 단체들에 대한 당 단체들의 지도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례를 들 수 있다.

오늘 우리의 행정, 경제 및 문화 기관, 근로 단체들과 그의 기구들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제 과업 수행에 부합되게 더욱 잘 정비되고 째워져 가고 있다. 이러한 기관 및 조직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제 과업 실행을 위한 실지 투쟁에서 이미 많은 경험들을 축적하였으며 또 이 부문의 많은 간부들도 육성되였다. 이러한 조건들은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우리의 행정,경제 및 문화 기관, 근로 단체들의 창발성과 자립적 역할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 단체들은 이러한 기관 및 조직들과 그 기구들의 창발성과 자립성을 충분히

발휘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주요하게 이에 대한 당 단체들의 지도에서 형식주의에 기인된다.

형식주의는 언제나 당 사업에서 유해하다. 그런데 사회주의 건설이 천리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고 근로 대중의 혁명적 기세가 미증유로 앙양된 현 시기에 있어서 그것이 초래하는 후과는 더욱 크다. 이러한 사업 작풍은 더는 묵과할 수 없다.

형식주의를 퇴치하는 것은 현 시기 당 단체들의 사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중심 고리의 하나로 되고 있다. 만일 일부 당 단체들의 사업에서 표현되는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청산함이 없이는 새 환경에 부합되게 당 사업 방법을 개선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혁명 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의하여 제기되며 당에 의하여 명시되는 새로운 혁명적 과업들의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

일찌기 레닌은 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때일수록 당 사업을 더 실속 있고 세밀하게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다. 《우리는 우리에 의하여 시간마다 선포되며 분마다 실시되고 후에는 매 초마다 그의 약한 점과 견실치 못한 점과 불명확한 점이 증명되는 그러한 시책들을 검열하는 데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레닌 전집, 33권, 446페지).

※ ※

형식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는 오늘에 비로소 제기되는 새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형식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 왔다.

우리 당 제 3차 대회와 제 1차 당 대표자회는 당 조직 지도 사업 수준을 현 시기 당 앞에 제기된 정치적 과업의 수준에까지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 기관들의 사업에서의 형식주의를 퇴치하는 것이 기본 고리의 하나라고 제시하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는 1958년 3월 7일 도, 시, 군 당 위원회 위원장 및 인민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당 사업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제 3차 당 대회 결정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근거하여 최근 년간 당 사업 방법 개선을 위한 일층 적극적인 투쟁이 전개되였으며 따라서 당 사업에서 커다란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특히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가 보여 준 세련된 지도 방법과 그의 모범을 따라 자기 사업을 개선한 많은 당 단체들과 당 기관들의 훌륭한 성과가 잘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형식주의가 철저히 근절되지 않고 아직 문제로 제기되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일부 당 기관들과 그의 지도 일'군들이 변천되는 객관 현실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으며 사업을 조밀하게 조직하지 않으며 되는 대로 일을 처리해 버리는 그런 낡은 관점과 낡은 사업 방법을 지속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형식주의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에 진리를 탐구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분석하여 보지 않고 모든 사업을 주밀하게 조직하지 않고 문제에 봉착할 때에는 기계적으로 또한 조잡하게 하며 걸치레만 하고 내용이 없는 사업 작풍들을 가리켜 형식주의라고 한다》(김 일성 선집, 1권 466페지).

일반적으로 말하여 다양한 객관적 사물, 현상들 중에서 그의 본질, 그의 속성을 보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개별적 현상들만 보고 어루만지는 데서 바로 형식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식주의는 형이상학적 사고 방법에 그의 사상적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일부 일'군들 속에서 형식주의적 경향이 표현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 문제를 유물 변증법적 방법, 관점에서 연구 분석하며 처리하는 능력과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레닌은 사업에서의 《무규률성, 부주의, 부단정, 부정확, 신경질적인 조급성, 사업을 론쟁으로 바꾸어 놓는 성벽, 로동과 잡담을 바꾸어 놓는 경향,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착수만 하고 하나도 끝까지 완수하지 않는 경향》(레닌; 경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참고) 등은 낡은 사상의 속성중의 하나이며 구체적 현실로부터의 유리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사실에 있어서 우리의 일부 당 기관들과 그 지도 일'군들은 당 정책과 하부 실정을 구체적으로 조사 연구하지 않고 이미 낡은 지식, 낡은 경험, 낡은 방법으로 문제를 주관주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형식주의를 범하고 있다. 또 일부 당 기관들과 그의 지도 일'군들은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광범히 토의 결정하고 집행에 옮기는 집체적 지도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당원 및 근로 대중의 경험과 지혜를 과소 평가하는 경향을 답습하고 있다.

형식주의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또한 지난 시기 일부 종파 분자들에 의하여 그것이 부식되였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 최근 년간에 진행된 당내 투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반당 종파 분자들은 그들이 관계하고 있던 사업 부문들에서 사업에 대한 불충실한 태도와 습성을 부식 조장하려고 책동하였었다.

우에서 본 바와 같이 형식주의는 그것이 중요하게 사상 관점과 관련되여 있다.

그러므로 형식주의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당 기관들, 그 지도 일'군들이 옳은 사상 관점을 튼튼히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혁명에 충실하려는 주관적 욕망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사물에 대한 유물 변증법적 관점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현실 생활에서 부닥치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 및 사물들을 옳은 당적 립장에서 그의 본질을 판별할 수 없다. 례하면 일부 일'군들이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이 일층 촉진됨과 관련하여 그 형태가 달라지고 있는 첨예한 계급 투쟁의 본질을 정확히 판별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것으로 설명된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전체 간부들이 유물 변증법을 학습하며 그 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할 데 대하여 한두 번만 강조하지 않았으며 또 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 혁명이 가일층 촉진되고 계급 투쟁이 일층 첨예한 현 시기에 있어서 일'군들이 유물 변증법적 원리와 관점으로 철저히 무장할 데 대한 필요성은 더욱 크다. 우리 당 1957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특히 강조된 바와 같이 전체 당원들로 하여금 유물 변증법의 학습을 강화하게 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은 유물 변증법의 원리와 관점에서 작성된다. 따라서 당 정책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물 변증법의 원리, 그 관점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 당 정책을 깊이 학습하는 것은 유물 변증법의 원리와 그 관점으로 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서 형식주의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당 정책에 정통하도록 그를 연구하여야 한다.

일부 당 기관들의 사업에서 형식주의는 우선 당 정책에 대한 그릇된 태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어느 때 어디에서나 당 정책을 옹호하며 그를 철저히 관철시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당 단체, 당 기관 및 당원들의 신성한 임무이며 의무이다.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과 그에 따르는 방법적 문제들이 제기되게 된다.

《당 정책을 어김 없이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당 정책의 본질을 잘 인식해야 한다》(김 일성, 1958년 3월 7일, 연설).

그러나 아직 일부 당 기관들과 당 일'군들은 당 정책의 본질을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하고 있다. 이것은 당 정책 연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며 그의 본질을 옳게 파악하는 것은 당 단체들의 구체적인 당 조직 정치 사업에 있어서 그의 방향, 목적, 중심 및 방법을 설정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이다.

이것이 없이 하는 당 사업은 중심과 목적이 없이 허공에 뜬 사업이며 내용이 없는 말공부로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지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일부 당 기관들과 그 지도 일'군들은 사업의 경중과 선후차 없이, 실정에 대한 구체적인 타산과 목적도 없이 다만 분주히 서두르기만 한다. 이러한 일'군들에게서 당 정책 관철에서의 창발성과 주동적 립장,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한 현상이 많이 표현되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당 정책에 대한 형식주의적 경향은 이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당 정책을 조잡하게 집행하는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일부 싹트고 있다. 주지되여 있는 바와 같이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는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 및 상업을 가일층 개선하여 우리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가일층 제고할 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당의 이 결정 정신에 근거하여 이 부문 사업에서 거대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벌써 거대한 물질적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그러나 일부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 속에서는 인민 대중의 기호에 맞는가 안 맞는가, 쓸모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고려함이 없이 품종 확대의 《명성》을 떨치는 데만 급급하는 편향이 없지 않다.

공명주의와 조급성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형식주의적 경향은 당 정책을 조잡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당 정책에 대하여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공명주의, 지방주의, 영웅주의적 경향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일'군들 속에서 전 함남도 당 위원회의 일부 책임 일'군들에게서 나타난 바와 같은 당 정책을 외곡하거나 그에서 리탈되는 엄중한 소위 《창발성》을 볼 수 있다.

당 정책에 대한 이러한 그릇된 태도는 그것이 모두 사상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선 당 정책에 대한 충실성의 사상, 당성으로 무장함이 없이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형식주의를 퇴치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형식주의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일'군들의 혁명적 군중 관점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은 결국 근로 대중의 리익을 위한 것이고 또 당이 대중을 옳게 지도할 수 있는 힘은 대중에게서 부단히 배우며 그들이 창조한 지혜와 경험을 허심하게 주의 깊이 배우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다.

여기로부터 당 사업이 대중 속에 침투되여야 하며 당 일'군들이 대중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그들에 의거하여 사업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게 된다. 당의 이 군중 로선의 원칙을 위반하는 일'군들은 생활과, 대중과 유리되며 주관주의, 경험주의적 착오를 산생하며 지어는 대중과 리탈되는 관료주의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당 일'군들의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함이 없이는 당 사업을 실지로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사업에서 개인 독단, 안일하고 경솔한 문제 처리 방법을 배격하고 집체적 지도 원칙을 강화하는 그것이다. 지도에서의 집체성——이것은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시키며 당 정책의 정확한 관철을 보장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주관주의를 극복하며 군중 관점을 확립함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형식주의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선 객관적 사물 현상, 당 정책에 대한 옳은 사상 관점과 태도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리함으로써만 새 것에 민감하며 일체의 락후한 것, 보수적인 것들을 배제하면서 당 정책에 튼튼히 립각하여 앞으로 전진하며 일단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야마는 완강한 혁명적 전개력과 세심한 실무성이 결합된 레닌적 사업 방법을 확립할 수 있다.

이상에 지적한 것들은 당 사업에서 형식주의를 퇴치하기 위한 방도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현존하는 형식주의를 퇴치하기 위한 결정적 고리의 하나는 행정 대행을 대담하게 퇴치하는 것이다.

당 사업 지도에서 형식주의는 일부 당 기관들이 자기의 본신 임무를 떠나 행정, 경제 기관, 과학 문화 기관들의 전문 사업 및 실무적 문제 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 기관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지도 기관이지 행정 및 경제 실무적 문제의 집행 기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 기관들은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수만 가지 사업을 도맡아 집행하려고 분주히 날뛰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 시, 군 당 위원회들에서, 특히 당 위원회 경제 부서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은 근로 대중의 조직 중에서 최고 형태의 조직이며 그들의 정치적 수령이며 혁명의 참모부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조직자이며 지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어느 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이 무관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문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부문의 천만 가지 사업을 당이 혼자서 도맡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당은 정권 기관, 경제, 문화 기관, 협동 단체들, 전체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통하여 국가 사회 생활의 모든 환절들이 당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지도한다.

이 모든 대중 조직체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튼튼히 립각하여 각각 자기의 특수한 임무들을 자립적으로 수행하는 당의 적극적인 방조자이며 당과 대중의 련계를 보장하는 인전대이며 혁명의 강력한 무기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 기관들의 사업을 대행할 것이 아니라 이 기관들이 당 정책에 튼튼히 립각하여 창발적으로, 자립적으로 사업하도록 지도하는 데 있다.

당 기관들과 당 일'군들의 관심은 언제나 당 정책과 구체적 현실에 튼튼히 립각하여 사업 방향을 옳게 제기하며, 당 정책을 간부들과 전체 대중 속에 깊이 침투시켜 당 정책이 그들을 완전히 파악하도록 하며, 당 정책 실행을 위한 력량 포치를 옳게 조직하며, 당 정책 집행에 대한 검열과 지도 방조 사업을 조직하는 등의 문제에 집중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떤 중요한 과업이 제기되였을 때에 그의 집행을 직접 자신이 담당할 것이 아니라 어느 조직, 어느 간부들에게 의거하여 얼마만한 군중을 어떤 방법으로 동원할 것인가에 대하여 면밀히 타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모든 조직, 모든 간부, 모든 핵심, 모든 대중을 제기된 과업 실천에 빠짐 없이 동원할 줄 아는 이것이 조직 사업에서 항상 중심 문제로 제기된다. 력량 배치에 대하여 머리를 쓰지 않고 모든 일을 도맡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군은 아직도 조직자로는 될 수 없다.

우리는 아직도 《행정 기관의 지시는 날이 서지 않으니 당에서 지시를 떼달라》, 《행정 기관에서 회의를 부르면 잘 모이지 않는데 당에서 강조해 달라》는 말들을 간혹 듣는다. 여기에서 당 일'군들은 교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일부 행정 일'군들이 맥을 추지 못해서 생긴 일로만 볼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일부 당 기관들에서 행정 사업을 대행하여 온 후과인 것이다.

당 단체들이 정권 기관과 대중 단체내 일'군들을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옳게 해결하도록 그들의 독자성과 창발성을 제고하는 사업과 행정 기관들의 행정적 조치들이 제때에 성과적으로 실현되도록 당 조직을 동원하며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게 하는 사업을 능숙하게 결합시킨다면 행정 기관의 권위와 창발성을 제고하는 문제는 더욱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행정, 경제 기관의 간부 대렬을 강화하며 이 기관 내부에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이 측면이 아주 중요한 본질적 의의를 가

진다.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매개 당원들과 정무원들로 하여금 당에 무한히 충실하게 하며 당 중앙 위원회와 그가 제시한 제반 정책들을 적극 지지 옹호하는 당성이 강한 혁명 투사로 되도록 교양 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어느 때 어떤 조건하에서도 항상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며 모든 정책적 문제들에 대하여 일치한 파악을 가지며 모든 문제 해결에서 확고한 당적, 계급적 립장을 견지하며 당 조직에 튼튼히 의거하여 사업할 줄 알도록 행정 기관 간부 대렬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행정, 경제 기관내 일'군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시, 군 당 단체들은 행정, 경제 기관내 초급 당 단체 사업에 대하여 커다란 주의를 돌려야 하며 그의 당 회의에 자주 참가하여 당원들의 당 생활 정형을 정확히 료해 장악하여야 한다.

행정 기관내 당조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또한 중요하다. 당조는 그 기관내에서 당의 정책을 관철시키며 당성을 고수하는 방향에서 운영되여야 한다.

당 기관들의 행정 대행을 철저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행정, 경제, 문화 기관들의 자립적 역할을 제고하는 동시에 당 기관 사업을 완전히 당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당 기관들의 사업을 완전히 당 사업으로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금년 3월 7일 도, 시, 군 당 위원회 위원장 및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명백히 교시하였다.

《당 사업이란 무엇인가? 하나는 당 내부 사업이요, 다른 하나는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이다》. 김 일성 동지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당 위원회의 《첫째가는 사업은 간부를 료해하고 당 핵심을 육성하고 당 단체를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당 정책의 철저한 관철이다…

세째로 당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사상 교양 사업이다. … 이 세 가지 사업을 잘하면 백가지 문제가 다 해결된다》.

당 단체들은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에 립각하여 우선 당 대렬의 순결성과 통일 단결을 강화하며 당 대렬의 전투력을 제고하는 한편 당 조직을 통하여 행정, 경제 기관, 문화 기관, 근로 단체 등 모든 조직과 기관들에서 당 정책이 옳게 관철되도록 통제하고 지도 방조하여야 한다.

형식주의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행정 대행을 그만 두고 당 기관 사업을 완전히 당 사업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와 함께 조직 정치 사업에서의 형식주의도 응당 극복되여야 한다.

조직 정치 사업에서의 형식주의는 주로 조건과 대상도 고려함이 없이 경제 사업과 유리된 빈 공담을 되풀이하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레닌은 《화려한 문구를 좀 적게 쓰고 단순한 일상적 활동을 좀 더하라!》, 《정치적 괴변을 좀 적게 하고 공산주의적 건설 사업의 가장 단순한 그러나 산 사실들에…더 주의하라》고 가르치였다.

당 조직 정치 사업에 존재하는 형식주의를 극복하는 주되는 고리는 당 사업에서 행정화의 경향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는 데 있다.

행정화의 경향은 우선 당적 지도를 대중 속에 접근시키지 않는 사무실적 사업 작풍에서 특히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당 일'군들은 회의를 열고 사업을 토의하며 결정을 채택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하부 일'군들에게 지시를 주고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 등은 모두가 사업의 시초이며 출발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군들은 흔히 사무실적 사업 작풍을 답습하면서 한 개의 회의가 끝나면 곧 이어 다른 회의 준비에 분망하며 한 결정서를 채택하고는 다시 또 다른 결정서 작성에 몰두함으로써 결국 군중 속에 깊이 들어 가지 못하며 대중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동한 경험을 알지 못하며 하부 당 단체나 그 일'군들에게 실제상 방조를 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 당 사업에서 해당한 회의와 결정서는 물론 필요하다. 문제를 옳게 선택하였고 잘 준비된 회의가 사업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큰 역할을 놀며 또 놀게 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필요 이상의 회의, 빈번한 준비 없는 회의와 문서 공작으로써 산 지도를 대체하는 데 있다.

하나의 례를 들어 보자. 함남 오로군 당 위원회는 최근 년간에 상품 류통 사업 정형을 7회나 당 회의에서 토의하였다. 그러나 그 회의들과 채택된 결정서들은 군내 상품 류통 부문의 정형을 정당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사업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으며 지어는 군 소비 조합에서와 같이 엄중한 결함을 오래 존속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군 당은 비슷한 결정서를 자주 만들 것이 아니라 상급 당의 결정에 근거하여 초급 당 단체에 내려 가서 직접 지도해야 한다》(김 일성).

당 기관들은 매개의 문건, 매개의 회의들에 대하여 그의 절실한 필요성 여부를 따져야 하며 하부 지도 력량을 더 얻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부에 많은 력량이 동원된다고 하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극히 중요한 본질적 요구는 당적 지도가 사람들과의 사업으로, 간부들, 당 핵심들을 료해하며 하부 일'군들에게 산 방조를 주며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며 당원 및 비당원 대중 속에 당 정책을 침투시키며 그들과 모든 문제를 털어 놓고 진지하게 토의하는 그러한 산 지도로 되게 하는 데 있다.

사람들과의 사업이라는 것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 간부들과 당 핵심들의 당성 단련 정도, 당원들의 당 생활 정형, 광범한 군중들의 정치 사상적 동향들을 료해 장악한다는 것은 당적 지도가 충분히 준비되고 그것이 또한 체계적으로 진행되여야 하며 지도 일'군들이 군중적인 사업 작풍과 령도 예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수응하기 위하여서는 잘 조직된 집중 지도 사업을 일반적 지도와 정확히 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집중 지도 사업은 일반적인 호소나 지도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특히 중요하고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는 지도 대상의 사업을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구체적인 방조를 주어 옳은 궤도에 올려 세울 가능성을 주며 그 부문의 실정을 면밀하게 료해 장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집중 지도 사업은 일'군들의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사업 작풍을 개선하며 그들의 사업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학교로 된다. 그러므로 책임 간부들의 직접적인 참가하에서 집중 지도 사업을 면밀하게 준비 진행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일반적 지도를 역시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개별적 대상에 대한 집중 지도 사업은 해당 당 단체의 전반적 정형을 충분히 고려한 기초 우에서 조직되여야 하며 전반적 당 단체의 통일적인 보조를 강화하는 대책으로 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선택된 지도 대상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들이 지체 없이 다른 당단체들에 일반화될 때 우리의 성과는 더욱 공고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을 가르치라》는 당의 군중 로선의 요구를 더욱 원만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당의 의도, 당의 정책들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현 시기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당 사업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 것은 당 일'군들의 당성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모든 당 단체들과 당 기관 및 그 지도 일'군들은 력사적인 우리 당 제 3차 대회와 수차에 걸치는 전원 회의 결정들, 그리고 김 일성 동지의 거듭되는 간곡한 교시들에 튼튼히 립각하여 당적 지도에 있어서 일부 그릇된 사상 관점과 사업 방법을 결정적으로 시정하고 당 정책을 실생활에 구현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종파 여독의 철저한 근절은 우리 시대의 력사적 과업

김 효 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 당은 당내의 종파를 허용하지 않으며 온갖 기회주의자들을 쓸어냄이 없이는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혁명의 조직자, 지도자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 자기 대렬내의 종파를 극복 청산하는 것은 당의 강화 발전의 법칙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 《…어디서 어떻게 종파가 표현되든지간에 털끝만한 종파의 흔적도 사라져야 하며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종파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오직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과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전집, 제 32권, 145페지).

우리 당은 우리 당 건설에 있어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적 경험과 레닌적 당 조직 원칙에 확고히 의거하고 있다.

우리 당은 당 건설에 관한, 무엇보다도 우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할 데 대한 레닌적 원칙에 튼튼히 립각함으로써 극히 짧은 시일내에 당 대렬을 강대한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시키면서 당내에 맑스—레닌주의적 조직 사상적 체계를 튼튼히 확립하였으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의 전 당의 강철같은 통일 단결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달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당 내외의 원쑤들과 기타 온갖 불순한 요소들과의 간고한 투쟁 속에서 단련되였으며 강화되였다. 특히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 당 건설에서는 종파 여독과의 투쟁이 큰 자리를 차지하였다.

종파 여독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해방 후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벌써 1930년대부터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여 왔었다.

해방 전후의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으로 내려 오던 악독한 종파 여독을 극복 청산하는 행정에서 우리 당은 오늘과 같이 강화되고 통일 단결될 수 있었다.

* *

우리 당 건설에서 종파를 극복하며 그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였다. 이것은 해방전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 끼친 종파의 해독성과 관련되였었다.

해방 전후를 통하여 종파가 우리 나라 혁명 운동에 끼친 죄악은 막대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거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 로동 계급이 장성하여 투쟁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동시에 위대한 10월 혁명의 영향하에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가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맑스—레닌주의는 급속히 장성하는 민족 해방 운동의 사상적 기초로 되였으며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에 조직성과 목적 지향성을 주게 되였다.

맑스—레닌주의의 사상적 기치하에 급속히

장성 발전되는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의 견인력은 더욱더 강화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이 시기에 맑스—레닌주의가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급속히 보급된 것은 이 학설의 정당성에 기인함은 물론이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을 위시한 근로 대중이 일제와 그 주구들로부터 가장 혹독한 2중적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은 까닭에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의 길을 절실히 갈망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전 시기의 투쟁 특히 3. 1 인민 봉기를 통하여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취약성이 대중의 눈 앞에서 여지 없이 폭로되였다는 사실 등에 의하여 설명된다.

맑스—레닌주의가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서와 민족 해방 운동에서 비상한 견인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 때에 아직 로동 계급은 청소하였고 자기의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적 핵심을 가지지 못하였었다.

이러한 때에 일부 소부르죠아 인테리들이 맑스—레닌주의자로 자처하면서 로동 운동 대렬내에 들어와 이 운동을 자기의 탐위주의적인 정치적 야욕에 리용하려고 광분하여 나섰다. 이러한 목적 밑에 이들은 각종 종파를 형성하여 서로 추악한 파쟁을 감행함으로써 로동 운동에 막대한 죄악을 끼치였다.

종파 분자들의 죄악은 우선 맑스—레닌주의의 보급과 로동 운동 대렬의 통일을 방해한 데 있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자로 자처하여 나섰으나 실지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에 서 본 일이 없는 정치적 탐위주의자들이였다.

아직 청소한 우리 나라 로동 운동내에서 이러한 종파 분자들이 맑스—레닌주의자로 가장하였던 까닭에 그들이 감행한 종파 행동은 더욱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되였다.

종파 분자들은 로동 운동내에서 《헤게모니야》를 장악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의례히 큰 대중 단체(그것도 흔히 전국적 의의를 가지는)의 지도부에 잠입하였다. 그러한 결과 한 줌도 못 되는 종파 분자들이 로동 운동 발전에 심중한 해독을 끼치게 되였다. 종파 분자들이 그 지도부에 잠입한 결과 대중 단체들의 혁명화와 대중 운동 대렬의 통일을 크게 저해하였다. 례를 들어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대중의 의식성과 조직성이 강화된 데 토대하여 1924년 《조선 로농 총동맹》과 《조선 청년 총동맹》이 조직되였을 때 《화요파》 분자들은 《로농 총동맹》 지도부에, 《서울파》는 《청년 총동맹》 지도부에 잠입하여 종파 행동을 감행하였다. 심지어 《서울파》는 《화요파》가 지도부를 장악한 《로농 총동맹》에 대항하여 《경성 로농회》를 조직하였고 《화요파》는 《서울파》가 지도부를 장악한 《청년 총동맹》에 대항하여 《한양 청년 련맹》을 조직하기까지 하였다.

종파의 가장 엄중한 죄악은 1925년에 창건된 조선 공산당을 파괴한 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조선 공산당은 로동 계급의 장성과 맑스—레닌주의 영향하에 날로 발전한 로동 운동에 토대하여 창건되였고 우리 나라 로동 운동의 급속한 발전에 추동력을 주었다. 그러나 조선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한 핵심들로써 튼튼히 꾸려지지 못하였다.

그 반면에 당 대렬은 다수의 소부르죠아 인테리들로써 구성되였으며 특히 당 지도부는 종파 분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토대 우에서 창건된 조선 공산당은 볼쉐위크적으로 견고할 수 없으며 조직적으로 공고화될 수 없었다》(국제 공산당 결의,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제 임무》 참고).

《엠엘파》, 《화요파》, 《서상파》 등등의 각종 종파 분자들은 《자파 세력》을 확장하며 다른 파의 세력을 허물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사기적 방법도 사양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다른 파의 비밀을 탐지하여 일제 경찰에게 밀고하는 추악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또 자파 세력의 확장에 급급한 나머지 자기파를 지지하는 자라면 무조건하고 끌어 들인 결과 일제 경찰이 용이하게 간첩들을 잠입시켜 당과 로동 운동 내부의 비밀을 탐지하고 탄압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종 도발 행위로써 분렬을 격화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일제 경찰이 《조선 공산당은 유리관 속에 들어 있는 물건과 같이 투명하게 보인다》고 호언한 것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였다.

종파 분자들의 분렬 책동에 의하여 조선 공산당 대렬은 4분 5렬되였고 당은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한 볼쉐위크적 지도를 보장할 수 없었다. 조선 공산당은 결국 종파 분자들의 파쟁과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1928년에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끝마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만일 종파가 당을 말아먹지 않았더라면 당은 계속 발전되였을 것이며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서 자기의 응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종파 분자들은 해방전에 벌써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수중에서 해방 투쟁의 무기를 빼앗아 내도록 혁명의 원쑤를 도와 줌으로써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들의 추악한 반역적 행동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공산당을 말아먹은 후에도 계속 종파 행동을 감행하였으며 특히 해방후에 또 다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종파가 끼친 죄악은 남조선에서 혁명 운동을 말아먹은 데서 더욱 엄중하게 나타났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해방후 남조선에서도 정세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리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당이 완전히 파괴되고 조국 통일이 달성되지 못하게 된 것은 미제의 강압적 탄압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박 헌영 도당을 비롯한 각종 종파 분자들의 파벌 투쟁에 기인되는 것이다.

《만일 종파 분자들의 저주로운 죄악적 행동이 없었더라면 미제의 탄압이 제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당은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며 조선 인민의 통일은 이미 달성되였을 것이다》 (제 3차 당 대회 보고문).

오래전부터 종파 행동을 감행해 오던 박 헌영, 리 승엽 종파 간첩 도당은 우리 조국의 운명에서 생사를 다투던 간고한 전쟁 시기에, 최 창익을 두목으로 하는 반당, 반혁명 종파 도당은 전후 복구 건설의 가장 곤난한 시기에 당과 정부를 전복하고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적 전취물을 적에게 넘겨 주려는 흉악한 반혁명 음모까지 감행하였다. 또한 허 가이, 박 일우 등 기타 일련의 반당 종파 분자들이 당과 혁명에 끼친 죄악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혁명 운동 력사에 있어서 종파가 끼친 죄악은 말할 수 없이 크다.

* *

종파 분자들에 의한 공산당의 해산은 그 후 당 창건 사업을 극히 곤난하게 하였다. 이 사정에 대하여 국제 공산당의 조선 문제에 관한 1928년 12월 테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에 있어서의 혁명 운동은 곤난한 위기의 길을 걷고 있다…이루 형언할 수 없는 정도로 고통스러운 〈생의 고뇌〉 속에서 조선 로동 계급의 전위—공산당은 탄생할 것이다…

이 고통스러운 〈생의 고뇌〉는 객관적 제 관계(공업 발전의 미약성과 따라서 로동 계급과 청년의 미약한 발전, 미약한 조직성)와 일본 제국주의의 박해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나라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파탄시킬만한 정도의 내부적 분렬 상태와 분쟁에 의해서도 이미 수개 성상 동안 조성되여 오고 있는 것이다》(《국제 공산당 및 기타 국제 혁명 조직들의 조선 문제에 관한 문헌》, 제 1집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3페지).

종파 분자들은 공산당을 말아먹은 후에도 자기들의 죄악을 뉘우칠 대신에 계속 분렬 행동을 감행하였다.

또한 1920년대 말 1930년대에 들어 서서 많은 종파 분자들은 추악한 시정배로 전락되거나 일제의 주구로, 간첩으로 되여 버렸다. 이 결과 공산주의 대렬내에는 일제 경찰과 련결되여 있는 암해 분자들과 각종 불순 분자들이 적지 않게 잠입하여 있으면서 공산주의자들의 대렬을 내부로부터 분렬 파괴하는 행동을 감행하였다.

로동 계급의 통일을 달성하려면 우선 공산주의 대렬의 통일을 달성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종파와 그의 여독을 극복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였다. 종파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없이는 공산주의자 대렬의 순결성과 통일을 달성할 수 없었으며 통일적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도 불가능하였으며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에 대한 통일적 지도가 있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종파와 그의 여독을 청산할 데 대한 과업은 과거 당 창건 준비의 첫 시기부터 중요하게 제기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종파와 그의 여독을 극복하고 당을 창건하기 위한 이 위대한 과업은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부과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로동자, 농민의 혁명적 진출에 기초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하면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 사업에 착수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를 진행함에 있어서 종파 분자들이 공산주의자 대렬내에 잠입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였으며 일체 종파적 요소들 및 기회주의 편향들과 결정적으로 투쟁하였다.

종파 분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 대렬내에까지 잠입하여 해독 행위를 감행하려 하였다. 그들은 항일 무장·투쟁은 《시기상조》라느니 《파멸을 면치 못할 모험적 행동》이라느니 하면서 무장 대오를 파괴하려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러한 종파 분자들을 가리켜 약자가 강자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전술도 모르는 무식하고 비겁한 자들이며 대중을 동요시키기 위한 일본 제국주의의 충실한 대변인들이라고 규탄하였다.

혁명에서 변절한 민족주의자 및 종파 분자 등으로 구성된 일제의 주구 단체 《민생단》은 혁명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는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반민생단 투쟁을 반종파 투쟁과 정확히 결부시키면서 진행하였다.

당시 당 대렬내에 잠입하였던 종파 분자들인 김 성도(엠엘 계통의 종파 분자였다), 송 일(화요파 계통의 종파 분자였다) 등은 유격 근거지에서의 반민생단 투쟁을 악용하여 진정한 혁명 투사들에게 《민생단》의 루명을 씌워 《자수하면 살린다》고 위협하면서 혁명가들을 모해하며 당 대렬과 혁명 대렬을 파괴 와해시키려고 책동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1936년 2월 녕안현 남호두 소자지하 밀영에서 소집된 인민 혁명군 제 2군 군, 정, 당 간부 회의에서 진술한 《당 단체들의 반〈민생단〉 투쟁에 있어서 기본적 오유의 시정 대책에 대하여》라는 보고에서 종파 분자들의 해독 행위를 철저히 폭로 규탄하였다. 종파 분자들은 혁명 운동 말살을 야망하는 일제의 기도를 충실히 집행하면서 무서운 파괴 암해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고 규정하시면서 김 일성 동지는 종파 분자들의 시도를 분쇄하고 반민생단 투쟁에서의 좌우경적 편향을 극복할 데 대한 구체적 방침을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민생단과의 투쟁에서 혁명적 원칙성과 신중성을 견지하는 동시에 발로된 결함의 원인과 본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에 기초하여 철저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종파 분자 기타 온갖 암해 분자들과 강력히 투쟁하는 한편 공산당 단체 및 당원들과 유격대원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선전 교양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여 당적 사상 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수 많은 간부들을 육성 교양하여 당 창건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준비하였다.

이와 함께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국내에서 당 창건 사업을 급속히 추진시킴에 있어서도 반종파 투쟁에 많은 주의를 돌리였다.

당시 종파 분자들은 제각기 《당의 재건》을 표방하였으며 이에 있어서 자체를 《국제 로선》의 집행자로 가장하여 나섰다. 《화요파》는 《당 재건 준비 위원회》라는 간판을, 《엠엘

파》는 《공산주의자 협의회》라는 간판을, 《서상파》는 《당 재건 공작 위원회》라는 간판을 들고 제각기 종파 세력 확장에 광분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앙양되고 단합되여 가는 로동 운동과 혁명 운동을 저해함으로써 실지에 있어서는 조선 혁명 운동의 분렬과 말살을 기도하는 일제에게 방조를 주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국내에서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업을 확대하며 대중 운동을 통일 집결하는 사업은 반종파 투쟁이 없이는 보장될 수 없었다.

김 일성 동지는 1936년 2월 녕안현 남호두 회의에서 진술한 《국내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장성 발전을 위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 대한 보고에서 국내에서의 통일 전선 운동의 전개와 당 창건 준비를 위한 구체적 로선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민족 해방 동맹》을 조직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민족 해방 동맹》은 앞으로 어떠한 곤난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그 곤난을 능히 극복할 줄 알며 변절하지 않고 조직의 비밀을 사수할 수 있는 우수한 공산주의자들과 그의 사상을 동정하는 자들로써 조직하고 그에 토대하여 광범한 통일 전선 운동을 전개하며 그 중에서 실지 투쟁을 통하여 단련된 우수한 핵심 분자들로 조선 공산당 창건의 기초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김 일성 동지는 교시하였다. 이에 있어서 국내의 혁명적 조직들에 종파 분자, 암해 분자들이 잠입하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과 공산주의자들과 혁명 대중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양할 데 대한 문제를 특히 강조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령도하에 종파 분자들의 온갖 분렬 책동을 폭로 극복하면서 국내에서의 혁명적 조직들과 공산주의자들의 대렬은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육성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반종파 투쟁의 첫날부터 과거 종파에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다 배척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파적 죄과를 청산하고 혁명 사업에 헌신하려는 자들은 포섭하여 교양하는 원칙과 종파 행동을 버리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원칙을 배합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진행된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공산주의자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으며 우리 당 창건의 조직적, 리론 사상적 준비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적 전통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이러한 조직적 및 리론 사상적 준비에 기초하여 해방후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지도적 핵심으로 하여 창건되였다.

우리 당이 해방 직후 그 복잡하고 곤난한 조건하에서 그렇게 빨리 창건될 수 있었고 또 맑스—레닌주의로 튼튼히 무장된 대중적 정당으로 급속히 강화 발전될 수 있은 것은 바로 우리 당이 계승한 빛나는 혁명 전통과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진행된 반종파 투쟁의 정확성과 그의 성과로써 설명된다.

* *

종파는 자본주의 사상의 산물이다. 따라서 당내에서의 반종파 투쟁은 당 외 계급 투쟁의 당내 반영인 것이다.

당 외에 적대 세력이 남아 있고 그들의 반항이 계속되는한 항상 그의 영향이 당내에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당내에서 종파의 사상적 여독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남아 있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당내에서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종파적 사상 여독은 당 외의 적들의 반항을 반영하면서 다시 종파로 대두한다는 것을 해방후 우리 당의 력사적 경험이 증명해 주고 있다.

종파를 뿌리채 뽑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형태로 규합된 종파 도당과 그 행동을 분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적 여독을 철저히 근절하고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종파 여독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은 당의 지도하에 진행되는 심각하고 장기적인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이 없이는 또 일시적인 투쟁만으로는 그를 근절할 수 없다.

해방전 우리 나라에는 통일적 당이 없었던 까닭에 종파의 사상적 여독이 철저히 근절되지 못하였다.

완전히 극복되지 않고 남아 있던 종파는 해방후 다시 대두하게 되였다.

해방후 다시 대두한 이 종파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 있어서 극히 위험한 것이였다.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분리되였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흉악한 원쑤인 미제와 그의 주구 리 승만 역도들과 직접 대치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우리 혁명이 장기성과 간고성을 띤 조건하에서 혁명의 참모부인 당내의 종파가 가지는 해독성과 위험성은 더욱 큰 것이였다.

왜냐 하면 당내의 종파 분자들의 사소한 반당적 시도도 적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되는 때문이였다.

근로 대중이 정권을 잡은 후 그의 지도적 당내에서의 종파가 가지는 위험성에 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종파 활동은…불가피적으로 일치 단결된 사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며 또 정권당에 잠입하여 그 분렬을 심각화하면서 이것을 반혁명의 목적에 리용하려는 적의 집요한 시도를 반복하는 것으로 밖에 안 된다》(레닌 전집, 제 32권, 217페지).

그런 것만큼 종파적 활동은 어떠한 것임을 막론하고 해로운 것이며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레닌은 가르쳤다.

실제에 있어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해방 첫날부터 우리 당에 대하여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공격 뿐만 아니라 당을 내부로부터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불순 이색 분자, 간첩 암해 분자들을 우리 당내에 잠입시키려고 시도하며 또 당내에 있는 불건전한 요소들을 리용하려고 발악하였다. 이에 있어서 적들은 우리 당내의 종파를 리용할 데 대하여 잠시도 잊지 않았다. 종파 분자들의 반당적 종파 행동은 바로 적들의 이러한 반혁명적 시도에 리용될 수 있고 또한 적들과 직접 결탁될 수 있는 것이다. 해방후 이러한 종파와의 투쟁이 없이는, 그의 여독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이 없이는 우선 당이 자기 대렬을 튼튼히 꾸릴 수 없었다.

종파 분자들은 해방후 우선 우리 당 창건을 파탄시키려고 책동하였었다.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창건 당시 그를 반대하여 감행한 종파 분자들의 책동은 주지된 바이다. 그들은 소위 《당내 헤게모니야》의 추악한 정치적 야욕 밑에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로 튼튼히 무장된 당 창건을 파탄시킴으로써 결국 혁명을 위험에 빠지게 하며 해방된 근로 대중을 다시 무장 해제 상태에 놓이게 하려고 책동하였다. 특히 박 헌영 도당은 당을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수중에 장악된 롱락물로 만들려고 하였다.

우리 당은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종파 분자들의 이러한 시도를 분쇄하는 토대 우에서 창건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 창건 그 자체가 벌써 반종파 투쟁에서의 당의 거대한 승리를 의미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한 지도적 핵심의 정확한 령도, 해방전 15개 성상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진행된 반종파 투쟁과 당 창건의 준비, 해방후 앙양된 근로 대중의 혁명적 기세와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지지 등——이것들이 당의 창건을 파탄시키려는 종파 분자들의 시도를 분쇄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였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지도적 핵심으로 하여 조직된 우리 당의 창건은 종파 분자들이 1920년대와 같이 더는 당과 혁명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동시에 이것은 력사적으로 되는 종파 여독을 철저히 근절할 수 있는 담보로 되였다.

당 창건후에 종파 여독은 당의 조직적, 사상적 체계 확립을 방해하였다.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종파는 어떠한 자기 독자적인 정책상 로선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또 가질 수도 없었다. 그들은 다만 추악한 종파적 야욕 밑에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을 말아먹으려고 책동하였다.

박 헌영, 리 승엽 도당이나, 허 가이, 박 일우 그리고 최 창익, 박 창옥 도당에 이르는 모든 종파 분자들, 간첩 반혁명 분자들이 다같이 당을 비방 중상하였고 자기들의 추종 분자들에게 당에 대한 불신임을 인위적으로 조장하였고 마지막에는 공개적으로 당을 공격해 나선 것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였다. 종파 분자들은 당이 아무리 자기를 신임하고 지도적 지위에 등용하여도 당에 자기의 속을 주지 않으며 당을 믿지 않고 딴 꿈을 꾸었다.

그들은 당 생활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당 규률을 문란케 하며 또 당 정책을 외곡 파탄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종파 분자들의 이러한 책동과 그의 사상적 여독이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적 규률과 사상 의지의 통일을 저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종파가 어느 때, 어디에서 대두하든지간에 그를 결정적으로 분쇄하는 동시에 그의 사상적 여독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완강하게 전개하여 왔다.

이에 있어서 당은 우선 당 건설에서 레닌적 당 조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당 대렬을 광범한 대중 속에 부단히 확대하면서 전 당의 통일 단결과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조직적 체계를 확고히 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당은 우선 투쟁에서 단련된 로동 계급의 성분으로 당 조직을 부단히 확대하였으며 그들 속에서 계통적으로 당 간부들을 육성하여 당의 튼튼한 핵심 진지를 꾸려 놓았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당은 자기 대렬을 광범한 근로 대중의 선진 분자들로써 더욱 확대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전체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와 당성 단련을 위한 사업을 계통적으로 강화하여 그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당 중앙 위원회의 사상 의지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과 강철같은 규률을 문란케 하는 자와는 엄격히 투쟁하였다.

또한 당 핵심 진지를 부단히 확대 강화하며 당 단체들의 전투력을 제고하며 당원들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 대중 속에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해설 침투시키는 동시에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해독성을 폭로하며 그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양 육성하는 사업에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이러한 결과에 전체 당원 대중의 사상 정치적 수준과 당성이 제고되였으며 당 단체들에 핵심 진지가 공고하게 되였으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저해하는 반당 종파 분자들과 기타 일체 불순한 요소에 대한 경각성이 부단히 높아졌다. 그리하여 전 당이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였으며 당의 사상 조직적 체계가 확고부동하게 되였다.

이것은 반당 종파 분자들이 당내에 발을 붙이고 숨어 있을 수 없게 하며 또 종파 분자들의 반당 행동이 어느 때 어디서 어떤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든지간에 그를 제때에 적발 폭로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담보로 되였다.

우리 당이 지난 시기들에 있어서 반당 종파 분자들의 엄중한 시도들을 그렇게 제때에 적발 폭로할 수 있은 것은 바로 이것으로써 설명된다.

당내 종파 여독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우리 당은 과거 종파에 가담하였거나 그의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당원들은 관대하게 포섭하여 그가 종파적 악습을 청산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며 방조함에 자기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당의 이러한 정당한 방침과 인내성 있는 노력의 결과 과거에 종파와 관련이 있었던 적지 않은 당원들이 당의 립장에 들어 서게 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의 있는 교양과 충고에도 불구하고 종파적 악습을 버리지 않고 당을 기만하면서 종파 행동을 계속 감행하려던 자와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고 투쟁하였다. 이러한

자들은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이 강화됨에 따라 더는 배겨내지 못하고 당에 의하여 폭로 숙청되였다.

박 헌영, 리 승엽 간첩 종파 도당을 위시하여 지방 할거주의자들, 허 가이, 박 일우 등 종파 분자들, 최 창익 도당 등의 폭로 숙청이 그러한 례이다.

이러한 자들을 폭로 숙청함으로써 우리 당은 **력사적으로 내려 오던 오물들을** 당내에서 쓸어 내였다. 그리함으로써 종파 여독을 청산할 데 대한 자기의 력사적 과업을 기본적으로 완수하였다.

제 1차 당 대표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당은 그러한 오물들을 청산한 토대 우에서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

* *

오늘 우리 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한 통일과 단결을 쟁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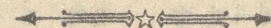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 당이 처하고 있는 국제 국내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 당 앞에 나서고 있는 새로운 복잡 다단한 과업들은 당이 이미 도달한 성과에 만족할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 당내에는 아직 종파들이 끼쳐 놓은 사상적 여독이 일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종파 활동의 온상으로 되는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위시하여 자유주의, 개인 영웅주의, 출세주의 등 불순한 요소들이 계속 남아 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는 반미 반리승만 투쟁 뿐만 아니라 소상품 경리와 자본주의적 요소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사회주의 건설 도상에서 불가피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난관과 애로의 극복을 위한 투쟁 등은 첨예한 계급 투쟁을 동반하게 되는바 이것이 당내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당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경각성 있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당내의 불건전한 요소들이 자라나 반당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적 규모에서 제국주의 반동들이 우리 진영에 대한 사상, 정치 공세를 계속 발악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 진행된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제 7차 대회 및 그 강령 초안에서 또 다시 로골적으로 표현된 바와 같이 현대 수정주의가 계속 머리를 추켜 들고 있는 조건하에서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제 1차 당 대표자회는 우리 당이 반종파 투쟁에서 얻은 경험들을 총화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종파 여독과의 투쟁을 계속 강화할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종파 여독의 집요성과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계속 경각성 있게 그 여독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하여 투쟁함과 동시에 종파의 온상으로 되는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그루빠적 편향과의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당성을 더욱 제고하는 그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당의 투쟁 경험은 전체 당원들이 한사람같이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튼튼히 단결하여 나가는한 당 내외의 온갖 적들의 어떠한 책동도 능히 분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현 기술적 개건기에 있어서의 기계 제작 공업의 임무

방 호 식

제 1차 5개년 계획은 공화국 북반부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획기적 단계로 된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한 조건하에서 이 기간 사회적 생산력은 급속한 속도로 장성 강화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더욱 튼튼히 축성될 것이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호상 적응 및 작용에 관한 사회—경제 발전 법칙을 인식 리용하고 있는 우리 당은 현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객관적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진행하며 공업화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생산력을 급속히 향상시킬 과제를 규정하였다.

오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결정적으로 승리한 조건하에서 생산력을 급진적으로 발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적, 생산적 기초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로 제기되였다.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함이 없이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완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런데 기술적 개건은 바로 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고리로 된다.

《기술적 개조 없이는 우리 인민 경제를 앞으로 더 전진시킬 수 없으며 이미 수립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킬 수도 없으며 인민 생활의 가일층의 향상도 보장할 수 없다》(김 일성, 《모든 것을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주지하는 바와 같이 파괴된 생산력을 복구하는 과업이 선차적으로 제기되였던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는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이 당면 과업으로 제기될 수 없었다.

바로 새 기술에 기초하여 생산력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이 주되는 과업으로 제기된 현 시기에 와서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 문제는 당면 주요 과제로 제기되였다.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은 무엇보다도 우선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로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갱신 확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는 새 기술에 립각한 현대적 로동 수단들을 생산하는 기계 제작 공업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계 제작 공업은 중공업의 핵심이며 기술 발전의 기초이다.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은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과 관련되는 일반적 과업들과 함께 우리 나라 기술 혁명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하는 특수한 과업들을 동시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기술 혁명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하는 특수한 과업이란 어떤 것들인가?

그것은 우선 과거 우리 나라의 기술 발전이 일제 통치의 혹독한 식민지적 편파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관련된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기계 제작 공업 자체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거의 없었으며 공업을 위시하여 농업, 운수 기타 물질적 생산의 전 분야에 걸쳐 그 기술적 기초가 극히 미약하였다. 생산 수단 생산 공업의 식민지적 락후성 특히 로동 도구 생산 공업의 결핍은 우리 나라가 기술 발전을 위한 자체 토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또한 기술 발전에 있어서 로동 도구, 기술

을 구사하는 로동자들의 문화 기술적 수준 및 기술 간부의 장성 문제가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바 우리는 이 측면에서도 혹심한 식민지적 락후성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기인한 상술한 바와 같은 혹독한 편파성, 락후성과 더불어 미제가 도발한 전쟁에 의한 기술의 무참한 파괴는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명의 수행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 분야에 걸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기술 발전면에서 나타난 이 모든 편파성과 락후성들은 지난 기간 특히 전후 시기 우리 당이 취한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급속히 그리고 현저히 퇴치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모든 기술적 락후성들을 완전히는 퇴치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완전히 퇴치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해방후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그 곳에서 기술과 생산력을 혹심하게 파괴하고 있는 사정이 우리 나라 기술 혁명 수행의 속도, 내용 등에 미치는 일정한 영향과 특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이것은 앞으로 남반부에서 진행될 기술 혁명을 위한 확고한 기지를 북반부에 창설하여야 할 임무를 제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제 특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기술 혁명의 수행은 일정한 복잡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요구를 정확하게 타산하고 그의 수행을 일정에 올려 놓은 오늘 우리에게는 기술 혁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온갖 조건들이 구비되여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결정적으로 승리한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 기술 발전은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고유한 그 모든 제약성들로부터 해방되였으며 무진장한 발전 전망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하에서의 기술 발전이 로동의 강도를 높이며 로동 계급의 빈궁화를 가져 오게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의 기술 발전은 근로자들의 로동을 경감하고 그들의 물질 문화적 복리를 증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보장한다. 직접 생산자인 우리 나라의 광범한 근로자들은 기술적 락후성의 퇴치, 기술적 개건, 로동 생산 능률의 급속한 제고에 최대의 혈연적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기술 혁명 수행에서 가장 적극적 역할을 담당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당의 옳바른 경제 정책에 의하여 자기의 기계 제작 공업 기지를 창설하였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현대적인 공작 기계 및 공구 생산을 위시하여 각종 중공업, 경공업용 생산 설비 기계들을 생산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형제적 국가들 간의 기술 경제적 협조와 사회주의적 국제 분업이 존재하는 유리한 조건하에서 기술적 개건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달성하고 있는 최신 과학 기술 성과들을 효과적으로 도입 리용할 수 있으며 기술 발전 템포를 가일층 제고시킬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 기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들이다.

*　　*

생산 수단 생산이 소비재 생산에 앞서 장성하여야 된다는 문제는 맑스의 재생산 리론의 기본 원리이다. 그 중에서도 기계 제작 공업은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그의 발전이 공업 및 중공업 전반의 발전 템포를 릉가할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기계 제작 공업이 인민 경제에 생산 도구 즉 생산 장성을 위한 고정 폰드의 절대적 장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및 도덕적으로 낡은 생산 설비들을 보다 새롭고 완성된 것으로 교체하는 기초로 되기 때문이다.

과거 일제 통치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기계 제작 공업을 전혀 발전시키지 않고 오직 략탈

과 군사적 침략을 목적한 중공업 부문들만을 부분적으로 발전시킨 사정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 자체의 기계 제작 공업을 급속히 창전 발전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그러므로 해방후 우리 당은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며 자립적 경제 토대를 축성하는 우리 인민 경제 발전의 기본 로선에 립각하여 지난 기간 기계 제작 공업을 창설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의 결과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은 1946년에 비해 1949년에는 5.1배로 장성하였다. 그 결과 공업의 부문별 구조에서 기계 제작 공업의 비중은 1944년의 1.6%로부터 1949년에는 8.1%로 장성되였다.

전쟁 기간에 우리 당은 앞으로의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전망적 견지에서 기계 제작 공업 기지의 창설에 착수하였다.

전쟁 기간에 공작 기계 제조 공장을 비롯한 수다한 공장들이 신설되였고 또한 안전 지대로 재배치되여 그 생산 능력이 현저히 장성된 결과 기계 제작 공업은 전전의 1949년도 생산 수준을 훨씬 릉가하였으며 1953년에는 1950년에 비하여 124.8%로 장성하였다.

1954—1956년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기계 제작 공업은 더욱 급속한 템포로 장성하였다. 1956년에 이르러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은 1953년에 비해 3.2배로 장성하여 공업 총생산액에서 17.5%를 차지하게 되였다. 이는 1949년에 비해 4배, 1946년에 비해서는 실로 21.2배로 장성한 것으로 된다.

특히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천리마의 속도로 진척되고 인민 경제의 개별적 부문들의 발전 과정이 보다 다각적으로 진행되며 기계화가 광범히 도입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기계 제작 공업은 더욱 급속한 속도로 발전될 것이 요구되고 있는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기계 제작 공업은 1956년에 비하여 2.6배 이상으로 장성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이 확대 재생산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계 제작 공업을 급격히 장성시켰으며 또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확증하여 준다.

* *

기계 제작 공업이 해결하여야 할 임무는 매 력사적 시기마다 동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의 임무는 그가 당해 시기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동시에 구체적 시기에 당이 제시한 정치 경제적 과업에 의하여 규정된다. 또한 기계 제작 공업 자체와 인민 경제 전체의 발전 수준 및 기술적 장비 정도에 의하여서도 규정된다.

5개년 계획 기간에 기계 제작 공업은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과 관련된 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 성과에서 기인되는 합법칙적인 결과로서 제기된다.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의 복구와 관련된 사업을 담당 수행하였다. 이때에 그는 실제적으로 보아 기술적으로 완성된 생산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 공급할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그의 주되는 력량이 부속품 생산에 돌려졌었다.

그러나 5개년 계획 기간에 기계 제작 공업은 부속품을 생산 공급하는 한편 예비품과 공구를 구비한 설비를 공급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일부 공장, 광산의 설비를 종합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 기간에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높은 생산 장성 템포를 보장하며 공장, 광산들의 개건, 확장, 신설에 요구되는 각종 설비들을 주로 자체의 힘으로 생산 공급하여야 할 제 과업과 관련하여 그가 해결하여야 할 임무의 중대성은 그 심도와 그 범위에 있어서 물론 3개년 계획기의 그것과 대비할 바가 안 된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기계 제작 공업이 놀아야 할 역할 및 과업은 무엇보다도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보장함으로써 현하 당 경제 정책의 총로선을 철저히 집행함에 자기의 력량을 돌려야 한다. 즉 기계 제작 공업은 새로운 현대적 기술에 기초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인 급격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자기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은 생산 수단 우선 각종 금속 절삭 기계들의 생산을 위시하여 원료 채취 공업 및 동력 생산용 기계 설비, 금속 공업용 설비 등 각종 생산 수단 생산을 위한 생산 수단 생산 부문과 방직 기계, 식료품 가공 설비, 일용 필수품 생산 설비 등 소비재 생산을 위한 생산 수단 생산 부문들을 가지고 있으며 농기구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현대적 기계 공장들을 소유하고 있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기계 제작 공업에 포함되는 이 모든 개별적 생산 부문들은 그가 생산하는 생산 설비 및 기계 기구들을 사용하는 인민 경제 각 부문들에서 생산 계획을 원만히 완수하도록 생산 설비들을 제때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그는 기계화의 적극적인 도입을 보장하며 해당 부문의 생산 기술 수준 제고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할 것은 제 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의 해결과 관련하여, 그리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기계 제작 공업의 각이한 생산 부문들 앞에는 긴급히 해결하여야 할 당면 주요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 기계 제작 공업이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것은 금속 및 채취 공업이 요구하는 기계 설비들과 건설 건재 공업, 식료 가공품 및 일용 필수품 생산을 위한 기계 설비들 및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와 관련된 발 관수 체계의 전면적 도입을 위한 각종 설비들을 대량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문제이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함이 없이는 제 1차 5개년 계획에서 제기된 과업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이 부문 생산 설비들을 선차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 전반을 성과 있게 보장하기 위한 기본 고리로 되기 때문이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각종 금속 제품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증대한다. 그것은 우선 금속을 대량적으로 요구하는 기계 제작 공업 자체의 급진적 발전과 더불어 건설 및 기타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고정 폰드의 대규모적인 확장과 개건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금속 가공 공업의 급격한 발전과 공업, 농업, 운수 등 물질적 생산 규모의 절대적 확장에 의하여 제기되는 금속 제품에 대한 수요와 현실적 공급 능력 간에는 차이가 적지 않다.

이 금속 발란스에 대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존 설비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한편 각종 금속 설비들을 원만히 생산 공급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금속 공업의 발전은 그와 관련된 광석 채굴업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금속 공업에 원료를 제공하는 광석 채굴업이 금속 공업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에게 각종 광산 기계들을 대량 생산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기계 제작 공업은 주되는 력량을 우선 금속 및 채취 공업의 발전에 요구되는 각종 설비들과 부속품들의 생산에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 제작 공업의 과업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황해 제철소, 강선 및 성진 제강소, 김책 제철소들에서 요구될 박판, 후판 압연기를 비롯한 압연 설비 및 기타 각종 금속 설비들을 생산하는 것이다. 건설 공업과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강재에 대한 장성되는 수요는 350, 280, 520 미리 압연기 등 다종 다양한 금속 설비의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

야금 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하여 광석 채굴업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3.8배로 발전하게 된다. 이 부문의 생산량의 증대와 더불어 생산 설비의 대대적인 확장과 기계화의 실시가 예견되고 있는바 이것들은 기계 공업에 의하여 공급되여야 한다. 기계 제작 공업은 특히 300마력 공기 압축기를 위시하여 시추기, 광산용 전차, 300마력 복동 권양기, 뽈밀, 버력 적재기, 착암기, 첸콤베야, 그랍샤 등 현대적 설비들의 생산 공급을 책임지게 된다.

또한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제 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건설 공업의 발전, 식료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의 확장,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의 촉진이 당면 과업으로 제기되는바 이 과업의 해결은 우선 해당 생산 부문에 선진적 기계 설비들을 공급할 것을 요구한다.

건설 및 건재 공업 발전을 위한 기계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과업은 무엇보다도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주되는 과업으로 제기되는 생산적 고정 폰드의 개건 및 확장과 대규모적인 주택 건설을 위한 건설 건재 공업의 발전의 요구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 당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경제 각 부문과 사회 문화 후생 시설에 대한 막대한 기본 건설 투자를 예견함과 함께 건설의 공업화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그의 기계화 수준을 현저히 제고할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1961년에 건설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토공 작업에서 65%, 적재 적하 작업에서 54%, 몰탈 혼합 작업에서는 75% 이상에 각각 도달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건설의 공업화와 기계화 수준의 이와 같은 제고는 무엇보다도 우선 건재 공업 발전을 위한 현대적 생산 설비와 건설 작업의 공업화를 위한 각종 선진적 건설 기계들의 대대적인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 공업의 요구에 순응하여 기계 제작 공업은 금년에만 해도 2톤 및 3톤 능력의 탑식 기중기를 100대 이상 생산하게 되며 곧 5톤 이상의 능력을 소유한 탑식 기중기 생산에 착수하게 된다. 그 외에 금년도에만도 약 30—40대의 자동차 기중기를 생산하게 되며 또한 혼합기, 선별기, 철근 절단기, 몰탈 뽐프, 보일라, 천정 기중기 콤베야 등 각종 건설 기계들을 생산하게 된다.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는 건설 작업의 기계화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엑쓰까와또르까지 자체 생산하게 된다.

건재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예견하는 마동 및 해주 쎄멘트 공장의 복구 확장에 요구되는 대형 및 중형 기계 설비들도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이 해결하게 된다.

입고 먹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당의 정책을 철저히 수행하는 문제도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이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

기계 제작 공업은 방직 공업의 기술적 개건을 위하여 자동 직기, 견직기 등을 비롯하여 각종 면직물 및 견직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 설비들을 생산하게 된다. 우리 당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방직 공업을 2.7배로 장성시키며 인구 1인당 20메터 이상의 직물 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대적 화학 섬유 공장을 창설할 것과 기존 면직 및 견직물 공장들을 확장 개건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방직 기계 제작 부문 앞에 새로운 중요한 과업을 제기하게 되였다.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는 일용품 생산과 식료 가공 공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 앞에는 년산 42만 5천 톤의 처리 능력을 가진 옥수수쌀 가공 종합 설비와 정미기, 정맥기, 현미기 등을 비롯하여 어류, 산채, 육류, 과실 등 식료 가공 설비 및 청량 음료 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기계 제작 공업은 직접 인민 생활과 관련된 문화 생활 필수품들을 더욱 대량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시계, 가정용 랭동기, 세탁기, 재봉기, 자전거, 축음기, 라지오가 대량적으로 생산된다. 그 외에 기계 공장들의 일용 필수품 직장들에서는 근로자들의 창의 창발에 의하여 쓸모 있고 아름다운 생활 필수품이 허다히 생산될 것이다.

우리 당은 밭 곡식 재배에서 커다란 변혁으로 되는 밭 관수 체계의 도입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밭 관수 체계의 도입은 우리 나라 자연 경제적 조건에 비추어 보아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의 기본 고리로 된다. 우리 당은 70만 정보 이상의 밭에 관수 체계를 확립하여 관개 면적을 확장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바 이는 실로 거대하고 웅장한 사업이다. 이 웅대한 자연 개조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수다한 최신식 현대 설비들이 요구된다.

이 거대한 사업을 완수함에 있어서 기계 공업이 담당한 임무는 크다. 이와 관련하여 기계 공업은 스크레빠, 권양기, 바켓트 굴착기 등 하천 정리 설비를 비롯한 수리용 뽐프, 석유 발동기, 전동기 등을 대량적으로 생산 공급해야 한다.

한편 농기계 및 농기구 제작 부문에서는 축력 이앙기, 제초기,탈곡기, 가마니 제조기, 영양 단지 제작기, 충해 방지 분무기 등 다종다양한 농기계들을 생산 공급하여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소기계화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대규모적인 현대적 기계화에로의 이행을 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조응하여 우리 나라 농기계 제작 부문 앞에 제기된 과업도 더욱 중대해 진다. 즉 우선 축력에 의거한 농기계 및 소기계화를 위한 각종 농기구 및 수송 수단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한편 점차 대기계화에로 이행하기 위하여 동력에 의거한 농기계들의 대량적 생산을 조직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 공업은 상술한 바와 같은 당면 중요 과업들의 해결에 력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전체 인민 경제에서 요구되는 설비들과 공작 기계, 공구들을 다량 생산하여야 한다.

제 1차 5개년 계획 말기에 희천 및 구성 공작 기계 공장들에서는 선반, 볼반, 쎄빠, 라지알 볼반, 후라이스반 등 각종 신형 공작 기계들과 우수한 금속 절삭 기계들을 년 1,500대 이상 생산하게 된다. 이리하여 특수한 공작 기계들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수요를 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게 된다.

공구 생산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는 현대적인 전문화된 공구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연마석 및 기타 각종 일반 금속 절삭 공구와 측정 공구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되였다.

공업 생산의 전반적 앙양과 함께 특히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전기 용량 공업이 발전된다.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발전량의 현저한 장성과 함께 각종 전기 기계 제품들의 대량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

당의 옳바른 정책에 의하여 이미 전문화된 현대적 전기 기계 제작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그를 확장 신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발전되는 인민 경제의 수요에 적응하여 이 기간에 우리 나라 전기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는 6,000키로 볼트암뻬야 발전기를 비롯하여 강하천용 중 소 발전기들을 처음으로 생산하게 된다. 동시에 압연기용 전동기를 비롯한 각종 대 중 소 전동기와 특고압 대형 변압기들과 다종다양한 전기 기계 및 약전 기계들을 생산하게 되며 수다한 전기 부속들을 대량 생산 공급하게 된다.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화학 공업 설비 및 선박, 차량 등 중요 수송 수단 생산을 성과 있게 보장하여야 할 과업을 지니고 있다. 수산업을 급격히 발전시키며 해상 운수를 성과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선박 건조

공업이다. 우리는 3,000톤급의 화물선과 어류 선상 가공선을 비롯하여 각종 선박들을 대량적으로 건조하며 이에 요구되는 디젤 기관들을 생산하게 된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연료 공업은 2.5배로 급속히 발전하게 된다. 이 부문들에서는 생산량의 이와 같은 발전과 더불어 생산 설비의 대대적인 확장과 기계화의 실시가 예견되고 있다. 탄광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1961년에 이르러 갱내 채탄 운반 작업은 50%, 굴진 막장 적재 작업과 갱내의 운반 작업은 60% 이상으로 각각 높아진다.

석탄 공업의 급속한 장성에 적응하게 기계 공업은 공기 압축기, 련탄 설비, 구멍탄 생산용 종합 설비를 비롯한 각종 설비들을 대량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이렇듯 우리 기계 제작 공업은 중공업 부문에서 요구되는 각종 생산 수단 생산을 자체의 힘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기계 제작 공업은 이러한 임무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업화의 토대를 확고히 축성하며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는 사업에 있어서 자기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은 또한 경공업 생산을 더욱 급격히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킴에 있어서도 극히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 ❄

이렇듯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기술적 개건을 보장하여 사회주의 경제적 기초를 튼튼히 하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 생활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킴에 있어서 기계 제작 공업이 노는 역할은 그야말로 거대하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각 부문들은 천리마의 기세로 매일 매시각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면서 앞으로 향하여 대약진하고 있다.

이러한 혁명적 일대 고조기에 기계 제작 공업 앞에는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킴으로써 그들의 전진을 더욱 촉진시켜야 할 중대한 임무가 나서게 된다. 이 임무는 지도 일'군들이 군중 속에 당의 정책을 철저히 해석 침투시켜 그들의 창발력을 고도로 발양시키며 내부 예비들을 부단히 적발 탐구함으로써만이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계 공업성 내 일부 지도 일'군들의 보수주의와 신비주의는 당 정책의 철저한 관철과 기계 제작 공업에 대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것을 장애하였다.

기계 공업성 내 일부 일'군들은 적지 않은 경우에 《선진 국가의 기준을 초과한다》, 《설비 리용률은 하루 이틀에 제고할 수 없다》, 《기계 제작은 힘들다》 등등으로 현대적 설비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는 데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근로 대중의 무진장한 력량에 의거하여 내부 예비들을 탐구해 낼 대신에 자기의 총명을 내세우면서 근로자들의 증산 결의에 대하여 《지나친 열성》이라느니 《구체적 타산이 없다》느니 등의 소극적 태도를 취하였다.

기계 공업성 내 일부 지도 일'군들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다방면적인 발전과 관련하여 많은 신제품들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도 많은 경우에 소극적이며 보수주의적으로 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신제품을 많이 생산할 데 대한 당의 결정과 지시들이 철저히 관철되지 못하였으며 신제품에 대한 요구들도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계 공업 부문 일'군들은 기계 제작 공업 부문 앞에 나서고 있는 과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체 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기계 제작 공업 부문 일'군들은 《생산 면적과 설비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제고하며 공장들을 더욱 완비함으로써 기존 공장들의 생산 잠재력을 적극 동원하는 한편 건설중에 있는 공장들을 시급히 완공하며 부분적으로 공장의 확장도 진행하여 생산 능력을 더욱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조선 로동당 제 1차 대표자회 결정서).

이 부문 일'군들은 우선 생산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결함들을 급속히 퇴치하는 한편 계획화 및 사회적 생산 조직의 제 형태—전문화, 협동화들을 옳게 조직하며 기술 관리 사업을 우리 실정에 알맞게 철저히 조직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책 없이는 현재 가장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는 설비 리용률의 제고도, 생산량의 증대도 기대하기 곤난하다.

기계 공업 자체와 또한 그와 직접적으로 련결된 인민 경제 각 부문들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기계 설비 생산에 대한 계획화 사업을 정확히 하며 생산 예비들을 적극 탐구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특히 협동 생산을 강화하는 것은 생산의 품종 확대와 생산량 증대에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논다.

또한 기계 공업 부문 앞에는 로동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급속히 높이며 선진 생산 경험과 기술을 광범히 습득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고 있다.

우리는 쏘련을 위시한 형제 국가들로부터 선진 기술 수단들을 받아 들였다. 그러나 오늘 이를 구사하는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은 아직도 선진 국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시킴이 없이는 로동 생산 능률 제고와 제품의 질 제고가 보장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며 그들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새 제품을 계속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부단히 제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기계 공업 부문 일'군들은 제품의 구조를 부단히 개선하며 기술 공정들을 합리화하여 우리 나라 특성에 알맞는 기계 설비들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현 기술적 개건기에 있어서 그가 담당한 임무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기계 공업 부문 내 당 단체들은 당 결정의 철저한 옹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한층 강화하며 그의 집행 행정에서 발로되는 보수주의, 신비주의, 소극성 등등의 극복에 심중한 당적 주의를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는 제 1차 5개년 계획 수행에서의 중심 문제

전　정　산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는 제 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경제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며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 없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종국적인 완수는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 제도의 우월성은 발휘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가 가지는 결정적 역할에 대하여 《로동 생산 능률——이것은 결국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 제도의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주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농노 제도하에서는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로동 생산 능률을 창설하였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가 새로운, 보다 훨씬 더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창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극복될 수 있으며 또 최종적으로 극복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청산되고 사회주의 생산 관계가 확립되였으며 그에 상응한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이 작용하는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로동 생산 능률의 확고한 장성은 경제 법칙으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 제도하에서는 자본주의 제도하에서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생산의 무정부성과 경제 공황과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한 로력의 막대한 랑비가 청산되였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기술 및 로동 조직의 개선에 기초하여 생산 수단과 로동력이 계획적, 합리적으로 리용되며 생산의 결과에 대한 로동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에 기초하여 로동 생산 능률이 확고히 장성하는 것이 합법칙적이다.

우리 당과 정부는 해방후 우리 나라 인민 경제 체계의 우월성과 특히는 우리 나라에서 작용하는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의 법칙에 의거하면서 그의 체계적인 장성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 왔다.

그리하여 해방후 공화국 북반부의 공업 부문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은 급속한 템포로 제고되여 왔다. 공업 부문에서 1946년의 로동자 1인당 생산액을 100으로 한다면 1949년에는 257, 1956년에는 391로 제고되였고 1957년에는 1956년에 비하여 24%나 더 제고되여 1946년보다 실로 485% 더 장성되였다.

해방후 사회적 생산의 장성은 로동자 수의 절대적인 증가와 함께 무엇보다도 주로는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의하여 보장되였다.

우리 나라 공업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 의한 생산 증대의 몫은 1946년부터 1949년까지의 기간에 82%, 1953년부터 1956년까지의 기간에 68%, 1957년도에는 70%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지난 시기에 로동 생산 능률의 급속한 장성에 의한 공업 생산 장성의 몫은 공업 생산 증가의 결정적이며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지난 날의 사실이 확증하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시킴으로써만이 제 1차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 및 초과 완수할 수 있다.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는 제 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기간에 공업 총생산액을 2.6배 이상으로 그 중 생산 수단 생산은 2.9배, 소비재 생산은 2.2배로 장성시킬 것을 규정하였다. 사회주의적 생산의 급속한 장성에 기초하여 국민 소득은 2.2배, 로동자, 사무원과 농민들의 실질 소득은 각각 1.5배 이상으로 장성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사회주의적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면서 그에 확고히 기초하여 인민들의 실질 소득도 제고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생산은 3개년 계획 기간에 비하여 훨씬 빨리 발전하게 되는 바 이 높은 장성 템포를 보장하는 것은 용이한 것이 아니다.

인민 경제 발전의 이러한 템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재, 원료, 자금, 로력 등등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의 피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페허 속에서 건설하여야 하였으며 전쟁을 겪은지 불과 5년 밖에 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자재와 원료의 충분한 예비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생산이 급속히 장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생산은 장성하는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자금 문제도 3개년 계획 기간에는 대외 무상 원조에 의하여 적지 않은 것을 충당하여 왔다면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거의 전부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전후의 짧은 기간에 아직은 충분한 자금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생산의 급속한 장성에 따르는 국민 소득의 부단한 제고와 엄격한 절약 제도의 실시에 의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로력 문제에 있어서도 사정은 동일하다.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에 조성된 조건으로 말미암아 로력 문제는 긴장성을 띠고 있는바 공업과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로력에 대한 수요는 부단히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로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농촌 경리로부터 로력을 보충 받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도시 인구의 장성과 부양 가족 로력에 많이 의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로력, 자재, 자금 문제들을 그의 절대적인 증가에만 의존하여 해결할 수 없으며 또 그러한 방법으로써는 근로자 1인당 생산액의 장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로력, 자재,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곧 제 1차 5개년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는 고리로 된다.

우리 당은 북반부 인민 경제의 발전 정도와 그 각 부문의 기술 경제적 조건들을 충분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일련의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 방도를 제시하였는바 그것은 바로 《절약하여 증산하자》라는 전투적 구호에 집중적으로 체현되여 있다.

《절약하여 증산하자》라는 당의 구호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이다. 로동 생산 능률의 체계적인 장성은 로력, 자재, 원료, 연료—동력 및 자금 등을 절약케 하여 생산물의 원가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생산의 가일층의 장성을 촉진시킨다.

로동 생산 능률의 가일층의 제고——이것은 《절약하여 증산하자》는 당의 구호 실천의 방도로 되는 동시에 제 1차 5개년 계획 수행의 결정적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 결정서에는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것은 제 1차 5개년 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중심 문제로 제기된다》고 지적되여 있다.

우리들은 이 기간에 로동 생산 능률을 급속히 제고시켜 국민 소득의 근로자 1인당 몫을 장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소득의 근로자 1인당 몫의 확고한 장성에 기초하여서만 축적 폰드와 소비 폰드는 계통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의 높은 템포가 유지되며 인민들의 실질 소득의 일정한 장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기본 건설 투자는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비하여 년 평균 141%로 장성되는바 이 현저히 장성되는 투자 총액은 국민 소득중에서 급격히 장성되는 소비 폰드의 몫을 고려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 수의 증대에 의한 생산 장성 분만을 가지고 보장해 낼 수 없다. 특히 현 기술적 개건기에 있어서 인민 경제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건설 투자 계획의 수행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기초한 국민 소득의 장성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소득 1인당 몫의 부단한 제고를 보장하지 못하고서는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의 높은 템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인민들의 실질 소득을 장성시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 소득의 1인당 몫의 장성을 보장하는 데 있는바 이는 해당 시기에 생산된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만큼 곧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기본 건설 투자를 보장하며 매년 증대되는 류동 자금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사회적 예비 폰드와 보험 폰드를 보장하는 동시에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수준에까지 그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열쇠가 다름 아닌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은 1961년에는 1956년에 비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공업 부문에서 165%, 건설 부문에서 152% 이상 제고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리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생산액 증가의 63%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로써 보장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반부에서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아주 높은 템포로 로동 생산 능률을 장성시켜야 한다.

전후 3개년 계획의 수행 결과에 북반부에는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였으며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 제작 공업 기지를 비롯한 기타 중공업 기지들이 창설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로력적 및 정치적 앙양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바 근로자들은 매일, 매 시각 새로운 기적들을 창조하면서 천리마의 기세로 새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달리고 있다.

문제는 지도 일'군들이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제 조건들을 명백히 인식하고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를 장애하는 온갖 경향들을 철저히 퇴치하며 그 제고의 구체적 방도를 정확히 강구 실시하는 데 있다.

❋ ❋

레닌은 일찌기 《쏘베트 정권의 당면 과업》에서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일반적 요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로동 생산 능률이 향상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공업의 물질적 기초 즉 연료, 철, 기계 제조, 화학 공업의 생산 발전이 보장되는 것이 요구된다…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또 하나의 조건은 첫째로 주민 대중의 교양 및 문화 수준의 제고이다… 둘째로 경제적 이 앙양의 조건은 근로자들의 규률 향상, 로동의 숙련, 기능, 로동의 강도 및 우수한 조직 등의 향상에 있다》.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 결정서에는 《모든 기업소들에서 선진 기술과 선진 작업 방법을 도입하며 생산 및 로력 조직을 합리화하며 로동 규률을 강화하며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지적되여 있다.

현 시기에 있어서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선진 기술의 도입이다.

우리 나라 공업에서 기술 발전의 기본 방향은 생산 행정의 기계화, 자동화, 화학화 및 전기화 등인바 그 중에서 기계화는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생산 행정의 기계화는 일반적으로 기술적 개건의 기본 요소이며 선진 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기초적 조건으로 되는 동시에 특히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에 더욱더 큰 의의를 가진다. 생산 행정의 기계화, 여기에 우리 나라에서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가장 큰 현실적 예비들이 내포되고 있다.

때문에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품이 많이 들고 힘든 작업에 대한 기계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계화는 구체적 조건에 대한 타산이 없이 처음부터 큰 것만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소기계화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대규모 기계화와 종합적 기계화에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함께 창설된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한 기타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하에서 낡은 기계 설비들을 새롭고 보다 성능이 높은 설비들로써 계통적으로 교체 재장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어진 가능성——선진 기술로 장비된 설비들을 충분히 리용하는 것은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형제 국가들의 원조에 의하여 우리의 많은 공장들이 최신식 기술로 장비된 실정을 고려에 넣을 때에 더욱더 그러하다.

선진 기술은 그에 적응하는 작업 방법상의 개선을 요구하는바 선진 기술 도입의 효과성은 그것을 구사하는 작업 방법 여하에 많이 좌우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선진 기술의 도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게 선진 작업 방법을 도입 보급하는 데도 있다.

선진 작업 방법의 도입과 보급, 이에 기초한 기술 개선과 새 기술 도입 과정은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의 부단한 제고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선진적 작업 방법——제강 부문에서의 고속도 용해 방법, 방직 부문에서의 다기대 다추 작업 방법 등등의 창안은 례외 없이 높은 기능을 가진 선진 로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기술 기능 수준의 제고는 현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조성된 애로의 하나를 해결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이것은 전쟁의 피해와 전후 급속한 복구 건설로 인하여 기능 로동자들의 수가 아직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 로동자들의 기능 수준이 아직 낮은 조건하에서 각별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우리의 공장, 기업소가 지금 계속 새로운 기술로 개건 장비되여 가고 있는바 이에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의 제고, 작업 방법의 꾸준한 개선이 따라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새 기술로 장비되였고 그에 상응하게 선진 작업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생산 과정이 복잡화되고 있는 우리의 공장과 기업소들에서 생산적 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고리는 생산 조직의 합리화이다.

생산의 합리적 조직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생산형을 정확히 선택 적용하는 문제이다.

인민 경제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 요구에 적응하게 설정된 생산 과제 범위내에서 반드시 대계렬 대량 생산형으로 생산을 전문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같은 조직은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의 제고와 로동 시간의 절약을 보장할 뿐더러 제품의 질을 제고하며 오작 비률을 축감시키는 동시에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촉진하게 된다.

생산 조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생산의 파동성을 근절하고 률동성을 보장함으로써 설비 리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생산의 률동성을 높여 설비 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계획 예방적 보수 체계의 확립, 보수 속도의 촉진, 보수의 질 제고 등등 보수 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원료, 연료 등의 공급을 위한 후방 공급 체계의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중요하다.

이러한 생산 조직에 토대한 생산의 전체 환절들의 일치한 협동 동작이 필요한바 이를 위하여서는 매 교대, 매 주야별로 매개 생산 단위들의 조화적인 작업 보조를 보장하여야 한다.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는 그 본질에 있어서 로동 시간 소비의 절약을 의미하는 것만큼 그것은 산 로동의 합리적 조직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함에 있어서 우선 일'군들의 재능과 기능 수준에 알맞게 작업을 정확히 선택 배정하며, 작업 장소들에서의 정확한 분업과 협업의 조직 특히 로력 조직의 기본 형태인 작업반의 합리적인 조직 및 다기대 작업과 겸직을 광범히 조직 발전시키며 작업 장소의 합리적인 조직, 로동 보호 조건의 보장과 가열층의 개선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 제 조건의 급

속한 변화 특히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 전기화, 화학화 방향에로의 기술 개건은 이러한 부문들에서 겸직과 다기대 작업 조직에 의한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광활한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새 기술 공정과 선진 작업 방법의 도입 보급 및 그의 가일층의 발전은 종합 작업반의 도입과 보급의 가능성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종합 작업반은 특히 건설과 광산, 탄광 부문에서의 흐름식 생산 조직을 가능케 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케 하는바 오늘 건설 부문에서 보급되고 있는 계단식 련속 시공 조직, 광산, 탄광 부문 지하 작업에서의 순환식 련속 작업 조직 등은 모두 종합 작업반 조직에 의한 로동 조직의 발전된 형태이며 이 부문들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 장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로동 보호 안전 조건의 개선과 완성은 우리 기업소들에서의 제 1차적인 과업이며 특히 유해 고열 및 지하 로동 부문의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사회주의적 로동 조직의 기본 방법은 사회주의 경쟁이다. 오늘 우리 나라 경쟁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혁신자 운동으로부터 새롭고 한층 높은 단계인 집단적 혁신 운동으로 전환시키며 경쟁 의무 수행에 대한 지도 방조 사업을 강화하며 경쟁 총화를 선진 경험의 보급을 위한 유력한 계기로 만듦으로써 경쟁 성과를 확대 공고화하는 것이다.

경쟁 운동 조직을 개선하며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예비를 동원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생산 협의회 사업을 개선하며 그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지도 일'군들이 기업 관리 운영에 로동자 대중들을 광범히 인입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생산 협의회 운영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데 대한 당의 결정 정신을 전체 종업원들 속에 철저히 해설 침투시켜 그들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조직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한 로동 조직상의 방도들은 그것이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에 부합되는 정확한 로임 조직과 조화적으로 결합됨으로써만 응당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자기 로동 결과에 대한 매 개인의 물질적 관심을 강력히 자극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당 작업의 내용과 조건에 알맞게 로임 형태를 정확히 선택 적용하는 것은 모든 로동 조직 개선의 기본 문제인 동시에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유력한 공간으로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로동 조직의 필수적 전제는 일'군들의 자각적 규률과 동지적 협력이다. 전후 시기에 우리의 로동 계급 대렬이 급속히 보충 장성된 조건하에서 아직 모든 일'군들이 한결같이 이러한 자각적 규률을 준수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 조직의 개선을 위하여 로동 규률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중요하게 제기한다.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는 산 로동의 지출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 로동의 지출 절약, 전 사회적 범위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즉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포함한다.

때문에 각종 물자의 절약, 효과적인 리용을 위한 제 대책과 전 인민 경제적 범위에서의 로동력의 합리적인 배치와 리용, 전국적, 지역적 범위에서의 생산의 합리적 배치, 생산의 전문화, 협동화와 결합화의 정확한 조직, 제품의 표준화와 규격화의 개선 강화, 수송 거리의 단축과 경제적 수송 형태의 선택 등은 모두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한 투쟁의 중요한 일환으로 되는 것이다.

제 1차 5개년 계획에 예견된 로동 생산 능률 장성 과제는 계획의 기타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민의 앞날의 보람찬 생활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이 과업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매개 지도 일'군이 제 1차 5개년 계획의 수행 여부가 로동 생산 능률 제고 과제의 완수 및 초과 완수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온갖 조건과 가능성들을, 그리고 근로 대중의 창발력과 집체적 력량을 성과 있게 동원하는 것이다.

당 교양 사업에 대한 당 위원회들의 지도를 개선 강화하자

최 안 국

머지 않아 당 교양 체계에서는 새 학습 년도가 시작된다. 지난 기간 각급 당 단체들은 당 교양 사업에 존재하는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하며 당원들의 사상 정치 교양 사업을 일층 개선 강화할 데 관한 우리 당 제 3차 대회 결정의 관철을 위하여 실로 거대한 사업들을 수행하였으며 적지 않은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지난 학습 년도 기간에 당 단체들에서는 당 교양 체계를 당 결정에 립각하여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게 개편하였으며 학습 강사들의 질적 구성의 개선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당원들의 교양에 관한 당 중앙 위원회의 배려와 각급 당 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당원들의 정치 사상 리론 수준과 당성은 일층 제고되였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 투쟁에서 당원들의 역할은 비상히 제고되고 있으며 당 대렬의 맑스—레닌주의적 통일과 단결의 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의 고상한 당성과 전투성은 가일층 높이 발양되고 있다. 전체 당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여 있다.

오늘 각급 당 단체들 앞에는 새 학습 년도를 맞이하면서 당 교양 사업을 당 중앙 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조직 진행하여야 할 주요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지금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서 거대한 혁명적 변혁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은 고조기에 처하고 있다.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한 전체 근로 대중들은 당 중앙 위원회의 지도하에 사회주의를 향하여 천리마로 달리고 있다. 이 장엄한 현실은 천리마의 기세로 달리고 있는 대중들의 앞장에 서서 그들의 투쟁을 지도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당 정책 학습을 더욱 가강히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간부들과 당원들이 정치 사상적으로 준비되면 될수록 당의 전투력은 더욱 제고되며 우리의 모든 사업, 사회주의 건설의 제 과업은 성과적으로 해결되여 간다.

당 중앙 위원회는 우리 나라 사회 발전의 이 객관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당 교양의 사상 정치적 수준을 가일층 제고할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 ❊

당 교양 사업을 당 중앙 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기 위하여서는 이 사업에 대한 각급 당 단체들의 관심과 지도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당 교양 사업에서의 성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 단체들이며 우선 간부들인 까닭이다.

당 교양 사업은 당 위원회들의 제 1차적 과업이다.

김 일성 동지는 1955년 4월 전원 회의에서 하신 보고에서 이에 대하여 다시금 다음과 같

이 지적하시였다: 《각 도, 시, 군 당 위원회들과 초급 당 단체들은 당 사상 사업을 과소 평가하는 일체 옳지 못한 경향들을 비판 근절하고 간부들과 당원 대중 속에서의 맑스—레닌주의 계급적 교양 사업을 당 단체들의 가장 중요한 제 1차적 과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일상적이며 체계적인 지도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당 단체들은 당 교양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개선 강화할 데 관한 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 단체들의 지도 사업은 당 교양의 내용과 방법상 문제에 깊이 침투되여 가고 있으며 강사들의 사업과 당원들의 학습에 대한 당 단체들의 통제와 방조 사업도 더욱 강화되여 가고 있다. 또한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의 결합도 더욱더 긴밀하게 되여 가고 있다.

그러나 모든 당 단체들이 다 이렇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일부 당 단체들은 당 교양 사업을 의연히 과소 평가하고 있다. 어떤 당 단체들은 당 교양 사업과 사회주의 경제 및 문화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결합시키지 않고 그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당 교양 사업에 대한 지도를 선전 선동부나 선전 일'군들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다. 례로 함주군 당 위원회를 들 수 있는바 그곳에서는 지난 기간 수차례에 걸쳐 하부 지도 사업을 조직 진행하였으나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 리론 및 당 정책 연구 정형과 학습 강사들과 초급 당 단체들의 당 교양 사업 진행 정형은 료해 방조하지 않았으며 당원들을 위한 리론 강연과 정책 강연은 거의 진행하지 않았다.

함주군 당 위원회가 지난 기간 경제 건설에서 더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일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가 속히 가셔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그 중요 원인을 당 사상 사업이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한 데서, 사상 사업에 대한 이 위원회의 무관심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엄중하게도 지난 기간 《새 학습 년도 준비 사업 진행 정형》을 토의한 홍원군 당 집행 위원회는 처음부터 《10분 간에 보고하라》, 《7분 간에 보고하라》는 일부 지도 일'군들의 무책임한 발언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등의 본질적이며 실제적인 대책도 강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말았다.

당 교양 사업에 대한 과소 평가와 무관심성은 일부 도, 시, 군 당 위원회와 그의 지도 일'군들이 선전 선동부와 초급 당 단체들의 교양 사업 조직 진행 정형을 통제 방조하지 않고 자유 방임하고 있는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일부 시, 군 당 위원회와 그의 지도 일'군들은 당 교양 사업에 관한 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도 철저히 파악 못하고 있으며, 자기 군내의 당 교양망과 강사 구성 정형, 각급 교양망의 학습 제강과 그의 진도, 학습 회수와 참가률 등도 거의 모르고 있는 형편에 처하여 있다.

당 교양 사업에 관한 과소 평가와 무관심성은 당 교양의 사상 정치적 내용에 대한 통제와 방조를 홀시하고 있는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당 교양의 내용에 대한 통제는 당 교양의 질——사상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당 위원회들과 그의 지도 일'군들은 당 교양의 사상 정치적 내용에 대한 통제와 방조 사업을 극히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학습 제강의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였으며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 어떠하며 당원들이 문제의 내용과 본질을 어떻게 리해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하여 거의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다.

문제의 엄중성은 또한 이런 책임 간부들이 흔히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당 정책, 그리고 당 교양망에서 취급되는 학습 제강과 그에 따르는 학습 참고 자료들을 연구하지 않는 관계로 그를 지도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데 있다.

당 교양의 사상 정치적 내용에 대한 통제와

방조가 결여된 곳에서는 당 교양에서 참을 수 없는 정치 리론적 외곡들과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비속화가 허용된다.

경험은 책임 간부들이 당원들의 교양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연구하며 노력하는 당 단체들에서는 당원들의 정치 사상적 장성도 빠르고 사업도 잘 되며 반대로 책임 일'군들이 이에 무관심한 곳에서는 당원들의 사상적 장성이 굼뜰 뿐만 아니라 온갖 낡은 사상에서 해방되지 못하며 질서와 규률이 서지 못하며 사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경험은 또한 당원들의 사상 정치적 장성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배려하지 않으며 정치 사업에 무관심한 당 지도 일'군들은 자체 학습에 게으른 일'군들이라는 것과 그런 사람들은 점차 전망 없는 실무주의자로 전락되여 정치 활동가의 면모를 상실하고 실제 사업에서 이러저러한 결함들을 불피코 발생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당 단체들은 이 엄연한 현실로부터 반드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과업은 당 위원회들과 그 지도 간부들이 당 교양 사업에 대한 과소 평가와 무관심성을 결정적으로 근절하고 당 교양 사업을 자기의 가장 주요한 제 1차적인 과업으로 인정하고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 교양 사업에 대한 지도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 있다.

❊ ❊

각급 당 단체들은 우선 당 교양의 사상 정치적 내용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개선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당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사상 정치적 내용과 전투적인 당성이며 맑스—레닌주의에 적대되는 리론과 견해의 침습과 발로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이다.

당 단체들은 당원들을 과학적 공산주의에 대한 지식과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자각적인 혁명 투사로 교양 훈련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 당이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 투쟁의 첨예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닥쳐 오는 새로운 력사적 사변을 준비있게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제기한 전투적 과업이다.

당 단체들은 이를 위하여 당 교양 사업에서 존재하고 있는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당 단체들은 《금후 우리 당원들의 교양 사업에서는 우리 나라 혁명의 실제적 문제의 연구가 중심으로 되여야 하며, 여기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기본 원칙을 반드시 그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재삼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방법을 소유함이 없이는 우리 나라의 력사와 현실을 옳게 분석할 수 없다.

당 중앙 위원회는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 교양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깊은 배려를 돌리고 있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 3차 대회는 당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로 하여금 자연 및 사회 현상에 대한 옳은 견해와 해석을 줄 수 있는 과학적 세계관으로 무장케 하며, 그들이 모든 사물과 현상들을 옳게 인식하고 그를 과학적으로 분석 비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혁명 발전을 정확히 리해하며 혁명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할 것을 제기하였다.

당과 혁명의 이러한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 교양 사업에서는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 리론 연구에서는 아직도 그를 조선 혁명 문제의 연구에 복종시키지 못하고 맑스—레닌주의 공식을 기계적으로 독경, 암송하는 교조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태도들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례를 들면 어떤 교양망에서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학습함에 있어서 그의 조항과 명제를 라렬하는 데 그치고 그의 사상

리론적 내용과 본질을 심오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가 우리 당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구현되였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연구하지 않고 있으며 그를 구체적으로 론증하지 못하고 있다.

당 단체들은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며 그에서 교조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경향들을 퇴치하고 그가 우리 나라 혁명 문제의 연구에 복종되도록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 단체들은 조선 로동당 투쟁사의 연구에 대한 지도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 투쟁사에 대한 연구는 당원들에게 당 건설 및 당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 력사와 조선 혁명 발전에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당의 전략 전술, 그의 실현 과정, 당의 정치적 지도와 정치 투쟁의 경험을 보다 심오히 파악케 하여 준다.

당 단체들은 당원들의 당 정책 교양에 보다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당 정책의 철저한 관철은 전체 당원들과 대중들의 당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일부 당 단체들은 당 정책 교양을 불원만하게 조직 진행하고 있다. 당 정책 교양에서 가장 주되는 결함은 당원들에게 당 정책의 사상 리론적 내용과 본질을 체득시키지 못하며 당 정책 교양이 매개 당 단체들 앞에 제기된 구체적인 과업들의 해결과 밀접히 결부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다.

당 정책 교양이 당 정책의 본질을 해명하지 못할 때, 당원들 앞에 제기되고 있는 구체적 과업들과 결부되지 못할 때 그는 추상성을 면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당원들을 당 정책 관철을 위한 실천적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당 정책 교양에서 존재하고 있는 형식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인 결함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당 정책의 사상 리론적 내용과 본질을 당원들에게 철저히 파악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당 단체들 앞에 제기된 과업을 가르치는 사업은 어디까지나 당 중앙 위원회에서 제시한 제강을 심오히 파악시키며, 당 중앙 위원회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한 데 복종되여야 한다.

근로 대중 속에서 속출되고 있는 창조적 기적들을 광범한 당원들에게 제때에 인식시키는 것은 우리 당의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당원 대중의 신심을 더욱 확고히 하며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 정책 교양에서 또 하나의 결함은 이를 일정한 회수와 시간수에 국한시키는 경향인바 각급 당 단체들은 시간과 회수에 구애됨이 없이 당 정책을 당원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관철시킬 때까지 계속 침투하여야 한다.

당 정책 교양에서 당 및 국가 기관 간부들이 노는 역할은 비상히 크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당 정책을 해설 침투시키는 사업에 당 및 국가 기관 간부들과 우수한 과학자, 인테리들을 광범히 인입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당 단체들은 당원들에게 당 정책의 사상 리론적 내용과 본질을 심오하게 파악시킬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당 정책을 적극 지지 옹호 관철하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를 철옹성같이 사수하며 당적 령도와 지도에 무한히 충실한 강철의 투사가 되도록 교양 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들 속에서 우리 당의 혁명 전통에 대한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각급 당 단체들의 중요한 임무로 된다. 당의 혁명 전통을 연구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당의 력사를 정확히 리해함에 있어서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당과 조국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민족적 긍지감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제고함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당 단체들은 전체 당원들과 대중들에게 우리 당의 혁명 전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항일 무장 투쟁의 빛나는 전통, 그의 사상 체계, 그의 우수한 사업 작풍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일상적인 배려를 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혁명 전통 문제와 관련한 당의 문헌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에 대한 학습을 당원들 속에서 광범히 그리고 심도 있게 조직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당 단체들은 당 교양 사업을 통하여 당원들을 당의 통일과 단결의 열렬한 수호자로 교양 훈련하여야 한다. 당 대렬의 맑스—레닌주의적 통일과 단결——이는 당의 생명이며 그의 위력의 원천이며 혁명 승리의 필수적 담보이다. 지난 기간 당 교양 사업은 당의 공고화를 위한 반종파 투쟁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결함도 적지 않다. 일부 당 교양망 학습회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이 반종파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강조에만 그치고 있을 뿐 해당 직장내에 남아 있는 불건전한 사상 요소를 폭로하며 그의 사상 근원을 분석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과 결부되지 못하고 있다.

당 단체들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 데 관한 제 1차 당 대표자회의 정신에 근거하여 우리 당 건설의 특수성과 관련한 반종파 투쟁의 력사적 필연성,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서 종파의 해독성, 반종파 투쟁에 대한 당의 방침, 우리 당이 수행한 반종파 투쟁의 의의, 당의 공고화를 위한 금후 과업들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당원들과 대중 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오늘 당 단체들 앞에 제기되고 있는 중요 과업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당원들에게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본질과 특징, 그리고 우리의 사회주의 전취물, 사회주의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의 고귀한 의의를 심오하게 파악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전취물과 사회주의 제도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하며 그를 계속 공고 발전시키며 온갖 종류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교양 훈련하여야 한다.

각급 당 단체들은 당 학습에서 질서와 규률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제도와 질서의 확립이 모든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관건으로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에 있어서도 그의 규률이 해이되고서는 학습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까닭이다. 지난 년도의 학습 진행 정형을 볼 때 황해남도를 비롯한 일부 도 당 위원회 관하 적지 않은 시, 군 당 단체들에서는 당 결정에 지적된 학습 회수마저 보장하지 못하였다. 학습에서 이러한 비정상적 상태를 더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학습 년도 초기부터 학습 규률을 강화하며 당 교양망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각급 당 단체들 앞에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 *

학습 강사들과의 사업은 당 교양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오늘 당 교양 체계에서는 수 만의 학습 강사들이 당원들의 정치 사상 교양 사업을 지도하고 있다. 이들은 당 교양의 믿음직한 지주(支柱)이며 당 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이며 적극적인 집행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 교양의 정치 사상적 수준은 무엇보다도 먼저 강사들의 질적 구성과 그들의 리론적 준비 및 학습 지도 방법의 숙련 여하에 의존한다.

웨. 이. 레닌은 어떠한 통제도 어떠한 강령 등등도 강사들의 구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학습 방향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교시하였다.

당 단체들은 강사 선발 배치에 심중한 당적 주목을 경주하여야 한다. 지난 기간 일부 당 단체들은 강사 선발 배치에 관심을 적게 돌렸던 결과 강사 대렬의 질적 구성을 당 중앙 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보장하지 못하였다. 주요한 결함은 강사들을 당성이 강하고 정치 리론적으로 준비된 당원들로써 선발 배치하지 못한 그것이다. 이리하여 강사들을 고착시키지 못하고 빈번히 교체하군 하였다.

이는 당 교양의 사상 정치적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저애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당 단체들은 학습 강사를 당성이 강하고 정치 리론적으로 준비된 당원들로서 선발 배치

하며 그들을 고착시키며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당 단체들은 강사 쎄미나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강사들과의 사업에서 강사 쎄미나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당 중앙 위원회는 강사 쎄미나르를 결정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당 단체들은 강사 쎄미나르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질——사상 정치적 수준을 당 중앙 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적지 않은 경우 쎄미나르는 당면 학습 문제의 본질과 강의 방법상 문제들을 심오하게 토의 해명하지 못하고 일장의 랑독식 연설로 대치하군 한다. 또한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강사 쎄미나르를 조직함에 있어서 학습반 별, 사업 부문별, 지역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당 단체들은 강사 쎄미나르에서 존재하고 있는 형식주의적 결함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그의 질——사상 수준을 일층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강사 쎄미나르에서는 당면 학습 문제의 정치 사상 리론적 내용과 본질, 결부시킬 현실 문제, 토론(혹은 쎄미나르) 제목 등 일련의 문제들이 심오하게 토의 해명되여야 한다. 쎄미나르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쎄미나르 지도자들을 준비된 간부들로서 고착시키며 그들의 준비를 적극 방조하며 쎄미나르 청강자들인 학습 강사들에게 사전 준비를 철저히 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

특히 당 단체들은 강사들의 자습을 강화시킬 것이다. 당 단체들은 강사들에게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당 정책과 당 단체들 앞에 제기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때에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당 단체들은 강사들에게 학습 과정안 작성 방법, 강의 준비 및 강의 진행 방법, 직관물과 문예 작품의 리용 방법, 청강자들의 자습 지도 방법 등 일련의 학습 지도 방법상 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며 강사들의 학습 지도 경험들을 수시로 교환하며 우수한 경험을 일반화하여야 할 것이다.

당 단체들은 매 휴학 기간에 진행되는 강사들의 단기 강습을 성과적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매년 휴학 기간에 진행되는 강사 강습은 강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새 학습 년도 준비 사업을 방조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 단체들은 강습 지도자들을 준비된 간부들과 인테리들로써 보장하며 그들을 적극 방조하여야 한다.

당 단체들은 강습 지도자들에 의하여 작성된 제강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야 한다. 집체 토의는 당 위원회 책임 간부들의 지도하에 강습 지도자 전원과 토의되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부문 간부들의 참가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집체 토의에서는 제강의 사상 정치적 내용과 강의 방법들이 충분히 토의 해명되여야 한다. 당 위원회 책임 간부들은 자신이 강의에 출연할 뿐만 아니라 강의를 수시로 참관하며 청강자들과 담화하고 조언을 주어야 한다.

당 단체들은 강습에 참가 대상을 전원 참가시키며 당 중앙 위원회에서 제시한 제강을 질적으로 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하며 강습을 세밀한 계획 밑에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당 단체들은 간부들의 학습에 대한 통제와 방조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 간부는 당 및 국가적 지도의 결정적 력량이다.

오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비상한 고조와 관련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당 및 국가 기관 간부들의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당 정책에 대한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하시였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당 단체들은 간부들의 교양에 대하여 응당한 주목을 돌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간부들에게 학습 방향과 연구 제마를 제시하여 주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학습상 방조를 위한 강연, 쎄미나르, 콘쑬따찌야, 담화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들은 도, 시, 군 당 위원회 위원장들의 책임하에 진행하게 된 간부 쎄미나르를 정상적으로 조직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 하기는 하나 그의 내용에 대한 통제와 방조가 결여된 결과 그의 사상 정치적 수준이 극히 낮은 형편이다. 결과 오늘 적지 않은 간부들이 자기의 정치 리론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 량강도 당 위원회 일부 부장들은 지난 1년간 맑스—레닌주의 고전, 특히는 김 일성 동지의 로작, 당의 중요 문헌들까지도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았으며 황해남도 은천군 당 위원회 책임 간부들이 망라된 조선 로동당 투쟁사 연구반은 지난 기간 집체적 학습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일부 간부들은 어느정도 학습을 하기는 하나 목적 지향성 없이 산만 무질서하게 진행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간부들의 학습의 기본은 자습이다. 당 단체들은 간부들의 자습의 생활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당 단체들은 간부들을 당원들과 대중들을 위한 강연, 쎄미나르, 보고회 등에 출연시킬 것인바 이는 그들의 학습을 방조함에 있어서 배우 중요하다.

당 단체들은 당 도서실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당 교양 사업과 관련한 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들은 당 도서실에 중대한 과업을 부과하였다. 당 도서실에는 맑스, 엥겔스, 레닌의 고전들과 당 문헌,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과 기타 서적들이 비치되여 있으며 도서실에는 도서실 주임과 지도원이 배치되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 도서실 사업은 극히 불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강연과 쎄미나르, 콘쑬따찌야들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도, 시, 군 당 위원회들은 당 도서실의 역할을 제고하여 강사, 선동원, 보고자들의 사업과 간부들과 당원들의 학습을 적극 방조하여야 한다. 그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주어야 하며 강연, 쎄미나르, 콘쑬따찌야, 담화들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각급 교양망 학습 제강에 따르는 각종 직관 자료들과 사회주의 건설을 향하여 천리마로 달리고 있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력과 위훈에 관한 직관 자료들을 작성 제시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실은 강사, 선동원, 보고자들의 선전 선동 사업과 당원들의 자습에서 창조된 우수한 경험들을 보급 일반화하여야 할 것이다.

당 단체들은 당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의 제고를 위한 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당 중앙 위원회의 배려에 의하여 당원들의 보통 지식 수준의 제고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들이 달성되고 있지만 발전하는 우리 나라 현실에 비하여 볼 때 그는 아직도 락후한 형편에 처하여 있다. 당 단체들은 초급 학습반에 망라된 당원들에 대한 지도 방조 사업을 강화하여 정치 학습에 필요한 그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시급히 제고할 것이며 최근 년간에 그들을 인민 학교 졸업 정도의 보통 지식을 소유하도록 할 것이며 그 외의 당원들도 모두 한 등급 이상의 일반 지식 수준을 제고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당 단체들은 새 학습 년도와 관련한 일체 준비를 철저히 완료한 토대 우에서 새 학습 년도 학습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당 교양 사업에 현존하는 제 결함들을 시정하고 우리 나라의 현실 생활에 부합되게 1958—1959년도 당 학습을 보장하는 것은 각급 당 단체들 앞에 나선 영예로운 과업이다.

미제에 의한 남조선 경제의 군사화와 그의 엄중한 후과

최 길 현

오늘 남조선은 파괴와 빈궁, 불행과 비극의 천지로 전락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 특히는 남조선 경제의 군사화 정책에 전적으로 기인된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화 정책은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전쟁 준비 정책과 아세아 침략을 위한 군사 쁠럭 정책과 밀접히 련관되어 있으며 그의 한 고리로서 편성된 것이다.

미제는 남반부 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민족적 통일 독립과 자유를 념원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을 반대하고 남조선을 공화국 북반부와 쏘련 및 중국을 반대하는 군사 기지로 전환시키며 남조선 경제를 이에 상응시켜 군사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더우기 정전후에도 이러한 정책을 강화하였다.

남조선 경제를 군사화하기 위하여 미제는 리 승만 괴뢰 정권과의 사이에 《과도 기간 잠정적 군사 및 안전 문제들에 관한 행정 협정》(1948년 8월 24일), 《재정 및 재산 이양에 관한 협정》(1948년 9월 11일), 《미국 군사 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1950년 1월 26일) 등 일련의 예속적인 군사 경제적 《협정》들을 조작하였다. 이러한 협정들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한미 호상 방위 원조 협정》인바 이 《협정》은 악명 높은 《엠 에스 에이법》(미국 호상 안전법)의 전신인 《호상 방위 원조 보장법》에 의거하여 조작된 것이다.

이러한 《협정》들은 남조선 경제를 괴뢰군의 증강과 미군의 강점에 알맞도록 재편성하며 나아가서는 남조선으로 하여금 미제의 아세아에 대한 침략적 군사 기지화의 한 고리로, 그의 전초 기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조선 정전이 실현된 후인 1953년 8월 8일에 미제와 리 승만 괴뢰 도당 사이에 체결된 《한미 호상 방위 조약》도 바로 이러한 목적하에 조작된 것이다.

《한미 호상 방위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1953년 6월 7일 리 승만에게 보낸 자기의 서한에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미국과 비률빈 간의 《호상 방위 조약》과 《안쥬스 동맹》(미국, 호주, 뉴질랜드 간의 군사 쁠럭)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일층 포괄적인 군사 쁠럭 체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한미 간의 안전 보장 조약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 대륙에 련결되고 있으며 특히는 위대한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과 같은 가장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린접하고 있는 조선의 지리적 조건을 타산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자기들의 침략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남조선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음흉한 침략적 야망으로 하여 미제는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백방으로 방해하면서 남조선에서 죄악적인 도발적 책동을 부단히 강화하여 왔다. 그들은 정전 협정을 계속 파괴 유린하고 남조선에 증강 무기들을 도입하여 리 승만 괴뢰군을 정규군만 21개 사단, 72만 여 명으로 대량 확장하였으며 중국 인민 지원군이 조선으로부터 철거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도 남조선으로부터 자기의 침략 군대를 철거시킬 것을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에 각종 증강 무기를 도입하였고 지어 금년 6월과 7월에는 강원도 춘천 부근에 유도 무기 기지를 설치하는 등 로골적으로 전쟁 준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정전 이후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 정책의 기본은 바로 이러한 전쟁 준비 정책과 관련하여 남조선 경제를 가일층 군사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식민지적 략탈 체계를 강화 재편성하는 데 있었다.

미제는 이러한 정책을 남조선 경제를 《재건 부흥》한다는 기만적인 구호로 가장, 은페하면서 상투적으로 《원조》를 그 정책 실현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지배층들의 공개 성명과 문건에서 또한 괴뢰 정부와 체결한 일련의 협정들에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전후 남조선 경제를 《재건 부흥》하기 위한 기초 조사의 명목으로 남조선을 방문하였던 미국 대통령 특사 타스카는 《한국에 대한 신 원조는 타 지역의 방위 기지 계획과 같은 것이다》라고 공언함으로써 《원조》의 성격을 폭로하였다. 1953년 10월에 남조선에 왔던 미 국회 하원 정부 사업 분과 위원회가 미 국회에 제출한 《국정 감사 보고서》에서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정책의 기본이 《고도의 군사 방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초를 수립》하는 데 있다고 함으로써 남조선 경제의 군사화의 강화가 미제의 남조선 경제에 대한 기본 정책의 하나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재정 별책 제 1호).

그런데 미제는 정전후 남조선 경제의 군사화를 가일층 강화함에 있어서 남조선에 조성된 경제 형편을 피상적으로나마 타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정전후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경제 정책 수립에 대표적인 역할을 한 《네이산 협회》는 《필요한 군사 원조와 한국 경제를 합리적으로 결부시키는》 문제를 강조하면서 《과거 10년 간 한국 경제 생활 양식》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극도의 인플레》를 제거하고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서만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제기하였던 것이다.

극도의 인플레는 정전 이후 뿐만 아니라 8. 15 이후 남조선 경제의 특징의 하나이라는 것만 틀림 없다.

《한국 은행》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1945년 8월 15일 당시 4,900만 환(당시 화페로 49억 원)이던 남조선의 화페 발행고는 1957년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896억 환 즉 1,828배의 팽창을 보이고 있다. 한편 물가는 이보다 더욱 앙등되고 있는데 1945년 당시에 비하여 1957년의 남조선 소매 물가 지수는 2,122배 등귀하였다. 이 수'자들은 남조선 인플레의 심각상을 말해 주는 동시에 통화 발행고의 팽창률보다 물가가 더욱 빠른 속도로 등귀하였다는 사실은 근로자들의 형편이 극도로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악성 인플레는 인민들의 부담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군사비 지출에 따르는 괴뢰 정부의 재정 적자의 루증과 소위 《유엔군 대여금》의 명목으로 되는 미제 침략군을 비롯한 그의 추종 국가 군대들이 남조선에서 사용하는 환화 방출 등이 그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에 조성된 악성 인플레의 중요한 원인인 괴뢰군의 확장과 전쟁 준비 정책에 의한 리 승만 괴뢰 정부의 군사비는 다음과 같이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괴뢰 정부의 군사비 증가와 예산비 중에서 차지하는 그의 비률

(단위 100만 환)

년도별	예 산 지출액	그중 군사비 (직접 및 간접 군사비 포함)	지출 예산 중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률	군사비 지 수
1950	911.1	443.9	48.7%	100
1951	2,429.5	1,887.3	77.7〃	425
1952	6,178.6	4,046.5	66.1〃	911
1953	21,507.6	11,308.1	52.6〃	2,573
1954	52,694.2	40,105.7	77.1〃	9,032
1955	118,526.1	79,984.1	67.4〃	18,018
1956	202,481.9	132,052.6	65.2〃	29,748
1957	218,596.8	145,163.3	66.4〃	32,768

※ 미국의 《군사 원조》는 제외되였으며 1956년도와 1957년도는 예산임.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괴뢰 정부의 군사 예산은 년년이 증가되여 1957년도에는 1950년도의 무려 327배로 증대되였으며 1953년도에 비하여도 12.8배로 증대되였다. 그리고 예산 지출액 중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에 따라 약간의 굴곡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매년 방대한 재정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바 1953년도에는 그 액수가 217억 9,120만 환이였으며 1954년도에는 209억 6,790만 환, 1955년도에는 105억 환, 1957년도에는 334억 환이였다. 이러한 재정 적자는 불환 지페의 증발로써 충당되는데 이것이 악성 인플레의 요인으로 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미제가 군사비의 급격한 증대를 동반하는 괴뢰군의 확장과 미군의 장기 강점을 획책하면서 《극도의 인플레》를 제거하고 경제의 《안정화》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의 기저에는 경제의 가일층의 군사화와 인민들에 대한 더욱 가혹한 수탈이 전제되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 미제의 정전후 남조선 경제에 대한 《안정화》 정책의 대강으로 되고 있는 것은 《경제 재건과 재정 안정 계획에 관한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 협약》(1953년 12월 14일 조인)과 《한미 회담 의사록》(1954년 11월 17일 공포)인바 이러한 《협약》과

《의사록》은 남조선 경제의 군사화의 가일층 강화와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준다.

《경제 재건과 재정 안정 계획에 관한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 협약》은 전시에 체결된 《한국과 유엔군 사령부 간의 경제 조정에 관한 협정》을 전후 조건에 알맞도록 보충함으로써 예속적인 군사 경제 체계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조작된 것인데 이 《협약》의 기본 내용은 《거대한 군사비로 인한 한국 정부의 전란 수습비 특별 회계 예산 부족을 최소한 억제하기 위하여…조세와 기타 세입의 징수를 목표로 하는 제반 시책을 채택》한다는 구절에서 명백히 폭로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세입 증대를 위한 가격 정책의 적절한 수립 및 딸라와 환화의 일정한 교환률의 유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딸라 교환률의 변경과 그를 통한 미국 《원조》 상품 가격의 인상 및 괴뢰 정부의 각종 관영 료금의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미 회담 의사록》에서는 괴뢰군의 상비 병력을 72만 명으로 확장할 것을 규정하고 이에 수반하는 군사비 지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괴뢰 정부의 예산을 《균형화》하고 인플레를 《억제》하는 데 노력할 것과 딸라와 환화의 교환률을 《현실적인》 것으로 고칠 것을 중요하게 내세웠다. 그리고 동 《의사록》에서는 또한 미국의 사자본 도입을 보장하며 리 승만 괴뢰 정부가 《국유》 《공유》로 하고 있는 적산 기업체들을 불하하여 《민영화》할 것 등도 지적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 재건과 재정 안정 계획에 관한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 협약》과 《한미 회담 의사록》의 기본 내용은 방대한 군사비 지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 발란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금을 비롯한 인민들로부터의 수탈을 강화함으로써 세입을 증대시키며 군사비를 제외한 일반 재정 자금의 지출을 극도로 억제하자는 것과 딸라의 교환률을 높임으로써 《원조》 물자 판매 대금 수입의 증가를 통해 괴뢰 정부의 수입 증가와 통화의 수축을 기하는 동시에 딸라의 지배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며 그리고 괴뢰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적산 기업체들을 불하함으로써 미국 독점 자본 침투의 길을 보장하고 예속 자본가들의 팽창을 꾀하는 한편 그 불하 대금을 괴뢰 정부 예산에 충당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전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른바 《안정화 정책》은 남조선 경제에 대한 가일층의 군사적 부담과 식민지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면 미제의 이러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으며 어떠한 파멸적 후과들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가?

미제와 리 승만 괴뢰 정부는 《안정화 정책》의 중요 고리로서 일련의 반인민적 《긴축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들은 세입 증대를 위하여 철도,. 체신, 전기 료금들과 담배, 소금, 석탄 가격 등 이른바 관영 료금들을 거듭 인상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에 대한 대량적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세제를 개혁함으로써 방대한 군사비 부담을 인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데 조세를 통한 인민 수탈이 얼마나 가혹한가는 다음 표에서 잘 알 수 있다.

(단위 100만 환)

년 도	세입 총액 (괴뢰 정부 내부 재원에 의한 것에 한함)	조세 수입액	세입 총액에 대한 조세 수입액 비률	1953 회계 년도 조세 수입을 100으로 한 지수
1953 회계 년도 (실적)	53,839.8	20,566.0	38.1%	100
1954 회계 년도 (실적)	99,496.2	51,430.6	51.8%	250
1957 회계 년도 (실적)	145,566.0	115,897.0	79.6%	564

(《경제 년감》, 1957년 판 및
《동양 통신》, 1958년 7월 25일)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제와 리 승만 괴뢰 정부의 남조선 인민들로부터의 조세 수탈액은 1953년 회계 년도에 비하여 1957년도에는 근 6배로 증대되였으며 괴뢰 정부의 내부 재원에 의한 세입 총액중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53년도의 38.1%로부터 1954년도에는 51.8%로, 1957년도에는 79.6%로 세입의 절대적 부분을 차지하는 데까지 증대되고 있다.

리 승만 도당이 자기들의 가혹한 수탈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남조 축소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의 국민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률은 1947년도의 0.8%로부터 1951년도에는 7.1%, 1954년도에는 13.7%, 1955년도에는 18.6%, 1957년도에는 19.1%로 급격한 증대를 보이고 있다(《경향 신문, 1956년 2월 25—26일》, 《경제 년감 1957년 판》).

미제와 리 승만 괴뢰 정부가 국민 소득을 실제 이상으로 증대시켜 추산하고 있는 점과 세금 가운데는

공식적인 것만 계산되고 수다한 가렴잡세들이 통계에서 빠졌다는 점을 들어 전기 《경향 신문》도 실제에 있어서는 국민 소득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조세 부담률이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남조선 국민 소득이 리 승만 괴뢰 정부가 말하는 대로 인구 1인당 평균 70딸라 정도라고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 부담률이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조세를 통한 인민 수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제와 리 승만 괴뢰 정부는 정전후에만도 3차에 걸쳐 세제를 뜯어 고치고 세률을 인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세의 비률을 상대적으로 저하시키고 간접세의 비률을 높임으로써 근로 대중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1956년 12월 30일 남조선 《국회》가 채택한 《세제 개정》에서는 《중요 사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한다》는 명목 밑에 군수 기업체에 대하여는 사업 개시의 해와 그 다음 해부터 3년 간 전액 면세하고 그 다음 해에는 소득의 3분의 2, 다음 다음 해에는 소득의 3분의 1에 대하여 각각 면세할 것을 규정한 종래의 《세법》에 첨가하여 소득세, 영업세, 법인세의 세률을 더욱 경감 혹은 면제할 것과 감면 기간을 5년 간 더 연장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세제 개혁》을 통하여 미국 독점 자본가들과 예속 자본가들이 주로 부담하는 직접세는 총체적으로 3할이 인하되고 근로 대중이 부담하는 간접세는 3할이 인상되였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세입 증수를 위하여 《국채》 발행을 통한 인민 수탈도 강화하였다. 괴뢰 정부 수립후 1957년 말까지 발행한 《국채》 총액은 970억 3,900만 환인데 그 중 1953—1957년 간에 발행된 것이 총발행고의 98%인 955억 6,300만 환에 달한다. 《국채》를 통하여 수탈된 자금의 대부분은 군사비를 포함한 기타 비생산적인 부문에 투하되고 있다.

이 외에도 미제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리 승만 괴뢰 정부는 철도, 전기, 체신 료금과 소금, 석탄, 담배 가격 등 《관영 료금》 인상을 통한 대중적 략탈도 발광적으로 강화하였다.

정전 이후 1957년까지 철도, 전기 료금은 4회, 체신 료금은 3회, 석탄, 소금, 담배 가격은 2—3회씩이나 인상되였는데 이에 의하여 이 기간에만 철도 운임은 7.5배, 전기 료금은 10배, 수도 료금은 7배나 폭등하였다.

다음에 서술하겠지마는 《관영 료금》의 이러한 대폭적 인상은 딸라의 환률 변경에 따르는 미국 《원조》 물자 대금 인상과 함께 물가의 전반적 앙등을 초래케 하였으며 근로 인민들의 생활을 한층 도탄속에 몰아 넣고 있다. 남조선 물가는 총체적으로 정전 당시로부터 1957년 간에 4배나 등귀하였다.

미제와 리 승만 괴뢰 정부는 이상과 같이 발광적으로 직접적인 인민 수탈을 강화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증대되는 군사비를 보장할 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비군사적인 재정, 금융 자금의 지출을 극도로 억제함으로써 인민들에 대하여 2중 3중으로 략탈하며 민족 산업과 농촌 경리를 파탄 령락시키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와 로동 강도의 강화, 실질 임금의 저하가 강요되고 있으며 농민들이 공출하는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 이하로 억제되였다. 통화 가치의 저락에도 불구하고 괴뢰 정부 예산 가운데서 비군사적 지출은 도리여 감소되고 있다.

군사적 지출에 자금을 집중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괴뢰 정부는 정전 직후인 1953년 가을에 6만 4,000 여 명, 1956년 말에 3만 1,000 여 명, 1957년에 1만 1,000 여 명의 하급 《공무원》 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고 축출하였으며 《경영 합리화》란 이름 밑에 《대한 중석 공사》를 비롯한 8개의 괴뢰 정부 직할 기업체의 1,200 여 명 로동자들을 해고한 것을 비롯하여 대량적 해고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3교대 작업을 2교대 작업으로 이행하는 등 로동 강도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동반되고 있다.

딸라의 환률을 적절히 변경한다는 《경제 재건과 재정 안정 계획에 관한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 협약》과 《한미 회담 의사록》에 따라 1953년 12월 15일에는 종래의 1딸라 대 60환의 환률이 일약 1딸라 대 180환으로 바뀌였으며 1955년 8월 15일에는 다시 1딸라 대 500환으로 바뀌였다. 이러한 환률의 변경은 환화에 대한 딸라의 지배력을 강화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대한 《원조》 물자 가격을 이 비률로 높이는 동시에 남조선 물가를 전반적으로 이러한 식민지적 물가 체계에 복종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환률의 변경과 이에 따른 물가의 폭등은 남조선 근로 인민들의 생활을 가일층 악화시켰다. 실례로 1955년 8월 1딸라 대 180환으로부터 1딸라 대 500환으로 높임에 따라 물가는 전반적으로 이 비률 즉 277%나 폭등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명목 임금은 171%(1953년 12월에 비한)에서 억제되였으며 괴뢰 정부가 농민들에게 강제 공출시키는 량곡 가격은 148%에서 억제되였다. 이것은 결국 환률 변경 전후를 대비할 때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62%로, 농

산물 공출 가격은 53%로 저하되였다는 것을 말한다.

실질 임금의 저하, 로동 강도의 강화 등은 필연적으로 로동자들을 선두로 하는 근로자들의 반항을 격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를 억압하기 위하여 각종 제압 수단과 회유 술책을 적용하고 있다.

1955년부터 리 승만 역도와 그의 《자유당》이 내핍(耐乏) 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신생활 운동》을 전개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군사비 부담을 걸머지고 있는 로동자, 농민들과 중소 상공업자들을 기만 회유하기 위한 《사회적 운동》인 것이다.

《긴축 정책》에 따라 재정 및 금융 자금이 극도로 억제되였으나 이것은 결코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였다. 민족 자본에 의하여 운영되며 인민 생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 기업체들에게는 자금이 봉쇄되였으나 예속 자본가들이 경영하는 군수 산업 부문에는 자금이 집중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한국 은행》 통계에 의하여 1956년 9월 현재의 남조선 금융 기관들의 대출 정형을 보면 대출 총액은 547억 9,300만 환인데 그 중 100만 환 미만의 대출은 우선 대부 받은 자의 수가 1953년 9월에 비하여 3분의 1로 격감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 금액도 대출 총액의 9.1%에 불과한 50억 환인 데 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대규모 대출은 대출 총액의 52%에 해당하는 286억 환에 달하고 있으며 대출 총액의 현저한 부분이 대부 받은 자 총수 1만 8,300여 명의 1% 미만인 144명에게 집중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융자 총액의 45%에 해당하는 237억 환이 리 승만의 《자유당》 소속인 75명의 예속 자본가들에게 대부되였는데 이는 그들이 평균 3억 환 이상 대부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합동 통신, 1957년 5월 2일).

바로 이러한 금융 정책은 남조선의 중소 기업가들을 극심한 자금난에 몰아 넣고 있으며 이는 과중한 세금과 아울러 그들을 파산 몰락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1957년 9월 말 현재 남조선의 각종 공장들의 평균 가동률은 1년 전인 1956년에 비하여 다시 10%가 저하된 50%에 불과하였는데 그의 원인은 자금과 원료의 부족, 과중한 세금, 미제의 잉여 상품의 압박으로 인한 제품의 판로 상실 등이였다(재정, 1958년 1월호).

은행 자금으로부터 봉쇄 당한 중소 기업가들은 당장의 파산 폐문을 모면하기 위하여 월 리자가 원금의 1—2할에 달하는 고리대 자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실례로 남조선에서 그래도 형편이 좋다고 하는 섬유 공업 부문의 실정을 보면 시설 자금의 49%, 운영 자금의 51%가 타인 자본 즉 부채인데 이 부채 가운데서 고리채가 53%를 점하고 있다.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타인 자본의 82%가 고리채이다(산업 경제, 1957년 3월호).

이러한 고리채는 필연적으로 기업을 파산에로 이끌고 있는데 1955년 말부터 1957년 1월까지 사이에만 1,176개의 중소 공장들이 완전히 파산되고 나머지들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업을 단축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리 승만 괴뢰 정부에 의하여 자금과 원료를 집중적으로 보장 받으며 감세, 면세 등의 특전을 받고 있는 군수품 생산 부문은 팽창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 다수의 중소 기업체들이 파산 몰락하는 것과는 반대로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대공장이 1955년 11월부터 1957년 1월에 이르는 기간에 적지 않게 증가된 사실에서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미제가 남조선 경제를 군사화하며 예속화함에 있어서 《원조》를 공간으로 리용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는 우에서 지적한 바이지마는 이는 《원조》 물자의 내용 및 그 판매를 통하여 얻은 자금의 사용 정형에서 여실히 폭로되고 있다.

우선 《원조》 물자의 내용을 보면 1955년 말까지 도입된 총액의 약 4분의 3이 소비품과 원자료였다. 1956년에는 《원조》 총액의 68% 이상이 소비품이고 약 30%가 《시설재》, 2% 미만이 《기술 원조》였다. 1957년에도 사정은 1956년과 대동소이하였다. 소비품들 가운데는 식량, 연료, 섬유, 원면 등을 비롯하여 남조선에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상품들이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조》 상품 도입이 남조선의 민족 산업과 농촌 경리를 파괴하는 요인을 이루고 있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시설재》도 그 대부분이 전쟁 준비와 관련하여 군사 기지를 확장 정비하며 군사적 수요에 따른 철도, 도로, 통신 시설 및 현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군수 공업 시설, 례하면 부산 부근에 건설하고 있는 조병창과 몇 개의 화력 발전 시설 등에 필요한 자재들이다. 또한 몇푼 안 되는 자금이 소위 기술 원조에 배당되고 있다고 하나 이는 남조선 경제를 기술적으로 미제에 예속시키며 미국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남조선 중요 경제 각 부문에 침투시켜 경제의 실권을 장악시키는 데 리용되고 있을 따름이다.

미국 《원조》가 남조선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는 오늘 남조선 공업 상품 대외 의존도가 년 약 70%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남조선의 주산물이며 수출의 중요 원천이였던 량곡마저 오늘에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량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놓이고 있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남조선의 대외 수지 형편은 악화의 일로를 걷고 있는바 농산물의 수입량만 보더라도 1954년의 18만 2,977톤으로부터 1956년에는 50만 2,214톤, 1957년에는 80만 7,249톤(원조의 명목으로 수입된 것에 한함)으로 일방적으로 증대되였으며 금년에도 76만 5,000톤의 수입이 예견되고 있다.

오늘 미제가 남조선에 가져다가 처분하는 농산물의 대부분은 미국 공법 480호 및 《엠 에스 에이법》(호상 안전 보장법) 402조에 의하여 《원조》의 명목으로 가져 오는 것인데 그것이 남조선에서의 군비 확장과 미제의 잉여 농산물 판매 시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남조선에서도 생산되는 량곡, 면화, 담배 등을 수입하여다가 남조선 농촌 경리를 파탄시키고 있다.

남조선 중요 농산물 생산의 감소 정형은 다음과 같다:

(단위 석 정곡)

년 도	미 곡	맥 류	두 류
1941	18,899,922	10,195,625	1,545,117
1949	14,734,000	5,134,000	1,469,000
1956	12,781,000	5,805,000	1,247,000

년 도 별	면 화	잠 견
1940—1944년 평균	177,568,380근	3,062,388관
1 9 5 6년	81,615,000〃	1,582,000관
1 9 5 7년	40,478,826〃	

뿐만 아니라 미국 《원조》의 군사적 성격은 《원조》 물자 판매 대금으로 되는 《대충 자금》의 사용 정형에서도 발로되고 있다. 《한국 은행》 통계에 의하면 1949년 1월부터 1956년 4월까지의 《대충 자금》 총액은 714억 8,900만 환인데 그 중 괴뢰 정부의 군사비에 충당된 것이 294억 3,441만 환으로서 총액의 41.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38.8%인 277억 6,166만 환이 괴뢰 정부의 소위 《경제 부흥 특별 회계》로 돌려졌으며 4.4%인 31억 3,300만 환은 괴뢰 정부의 차입금 상환에, 그리고 나머지 15.6%에 해당하는 111억 3,300만 환이 《산업 은행》을 통하여 《민간 융자 자금》으로 사용되였다(《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56년 6월호, 《경제 년감》, 1955년 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위 《경제 부흥 특별 회계》나 《민간 융자 자금》도 그 절대액이 군사적 부문에 투자되고 있다. 실례로 1956년도 《경제 부흥 특별 회계》의 세출 내역을 보면 군사적 목적을 위한 철도, 항만, 통신 시설에 총예산의 67.2%라는 압도적 부분이 할당되였다. 그리고 《민간 융자 자금》으로 방출된 전기 111억 3,300만 환도 전력, 교통 운수, 《공공 사업》 및 전략 광물 채굴 등 군사적 성격을 띤 부문에 그의 89%가 투자되였다(경제 년감 1956년 판).

미제는 이 《민간 융자》를 통하여 《조선 전업 회사》 산하의 발전소들, 《대한 석탄 공사》 산하의 탄광들, 《대한 중석 공사》 산하의 중석 광산들, 《대한 조선(造船) 공사》, 《장항 제련소》 등 남조선 산업 부문의 중추적 기업체들을 장악 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 기업체들을 통하여 남조선 전 산업을 자기들의 군사 활동과 식민지적 지배에 복종시키고 있다. 실례를 전력 공업 부문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은행》 통계에 의하더라도 미제 침략군의 군용과 괴뢰 정부의 《관공용》으로 사용되는 전력은 전체 남조선 전력의 34.6%를 차지한다. 여기에 괴뢰군용까지 합치면 전력의 절대적 부분이 군사용 및 《관공용》으로 된다. 따라서 일반 산업용과 가정 전등용 전력 소비량은 현저히 축소되고 있는데 특히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전쟁전 수준의 3분의 1 이하로 축소되였다. 축소된 산업용 전력도 전력 배정 순위에 따라 군납품(軍納品)을 생산하는 공장들에 우선 공급되고 일반 민수 산업 공장들은 혹심한 제한을 받고 있다. 전력 공급의 이러한 현상은 남조선 경제의 군사화가 일반 산업 부문과 인민 생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잘 말해 준다.

전력 뿐만 아니라 미제는 자기들의 군사적 강점과 전쟁 준비를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막대한 농토, 건물, 주택, 물자들을 《징발》 점거하고 있으며 철도, 통신 시설들을 무제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금들과 사용료의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들의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미제가 《징발》 사용하고 있는 재산과 각종 사용료는 1956년까지에 약 29억 6,000만 딸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그 때까지 미제가 남조선에 제공하였다고 하는 《경제 원조》 총액의 약 배액에 해당된다. 여기에 다시 리 승만 괴뢰 군대에 의하여 《징발》된 인민들의 재산들까지를 합친다면 그 액은 실로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막대하다는 것을 짐작키 어렵지 않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제의 군사화 정책에

따라 군수 산업 특히 미제가 략탈해 가고 있는 전략 광물들의 생산은 일정한 장성을 보이고 있다. 례하면 중석광은 1957년에 3,825톤, 토상 흑연은 14만 7,342톤, 활석은 6,600톤을 생산하였는데 이는 일제 시의 년 최고 생산량에 비하여 각각 129%, 370%, 110%에 달하는 장성이다(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58년 3월호).

그러나 일부 군수 생산 부문의 기형적 장성에도 불구하고 우에서 론한 바와 같이 남조선 공업과 농업 생산 수준은 일제 시대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있으며 근로 인민들의 절대적 상대적 빈궁화는 류례 없는 처지에 이르고 있다.

미국 유피 통신 기자 쟈크 보야는 남조선 사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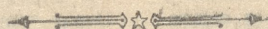
《한국의 정치, 경제적 및 개인 생활에 있어서 지배적인 것은 의연히 군사적인 것이다. 남한의 년 정부 예산의 80%는 군사 예산으로 들어 가는데 이것은 이 나라를 대군사 기지와 같은 면모를 띠게 하고 있다. 도로 우를 달리는 대부분의 차량은 발발이와 군용 화물 자동차이다. 농촌의 빈궁과 도시의 실업은 한국인의 운명으로 되고 있다. 한줌도 못 되는 부유한 한국인들은 다채로운 네온싸인 밑에서 춤추고 음식점에서 연회를 베풀고 있으나 남한인의 대부분은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남조선에서 조성되고 있는 사태는 바로 이러하다.

남조선 경제의 군사화가 아주 심각하며 따라서 그로부터 산생하는 사회 경제적 제 모순이 더욱 심각화되여 가고 있으며 남조선의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는 더욱 심화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남조선 현실이 그대로 말해 주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괴뢰 집단은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그것을 더욱 야기시킨 군사화 정책과 전쟁 준비 정책에서 찾고 있으며 계속 남조선 괴뢰군의 강화를 책동하며 심지어는 미제의 원자 무기, 유도 무기 기지를 남조선에 설치하는 엄중한 도발적 책동까지 감행하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군사화의 가일층의 강화 특히 미제의 유도 무기 기지화 정책은 남반부 땅으로 하여금 더욱더 파괴와 빈궁, 불행과 비극의 천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전체 조선을 재화와 불행 속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가장 엄중한 죄행이며 극동과 세계 평화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20세기의 인간 쓰레기 리 승만 도배는 미제의 이러한 침략적 도발 행동에 적극 추종하며 협력하고 있다. 로구 리 승만은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유도 무기 기지화를 적극 협력함으로써 그의 매국 매족적 본성을 더욱 로골적으로 표면화하였다. 리 승만의 반역적 죄행은 과거 리 완용 일당의 죄행을 훨씬 초월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남조선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미 반리승만 기세의 기본 원인의 하나가 있는 것이다.

사태는 남조선에 조성되고 있는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 그리고 남조선 인민들의 불행과 비극의 그 어떠한 출로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에 의한 전쟁 준비 정책과 《북진 통일》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군은 물러 가야 하며 리 승만 괴뢰 집단은 제거되여야 한다. 오직 우리 당의 평화적 통일 정책과 당에 의하여 령도되는 공화국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만이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과 나라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가져 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현실은 말해 주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도 이 길에서 행복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게 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민의원 선거》후 남조선 정치 정세

최 준 섭

《민의원 선거》후 남조선 정치 정세의 추세는 첨예화의 일로를 걷고 있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리 승만 도당의 발악적 책동과 그를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 인민들의 투쟁 기세의 앙양,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격화되여 가고 있는 지배층 내부에서의 대립 및 내분으로써 특징 지어진다.

남조선 정치 정세의 이러한 추세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파쑈 테로 통치에 의하여 불가피적으로 야기되는 객관적 합법칙성이다. 따라서 오늘날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아무리 발악한다 하여도 조성된 현 남조선 정세를 완화할 수 없으며 직면한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우기 오늘 미제와 리 승만 도당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여 가고 있는 국내외의 정세, 특히는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와 남조선 각계 인민들 속에서의 반미 반리승만 기세의 강력한 앙양은 리 승만 도당의 정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 ❋

알려진 바와 같이 제 4대 《민의원 선거》에서 리 승만 도당이 추구한 주되는 목적은 《국회》를 자기들의 충복들로 《재구성》함으로써 지배층 내부에서의 알륵과 내분을 《완화》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앙양되는 반미 반리승만 기세를 억압 탄압하며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여 파쑈 테로 통치를 유지 강화하려는 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리 승만 도당은 반동적 《민의원 선거법》을 더욱 개악하고 《선거》에로의 근로 대중의 진출은 물론 야당들의 진출도 최대한으로 억제하였으며 과거의 모든 《선거》에서와 같이 총검과 테로, 사기와 협잡으로써 《선거》를 감행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심지어 현 남조선 괴뢰 《부통령》인 장 면 자신도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선거는 범법, 강압, 폭력, 위협, 무법이였다》.

그러나 《선거》는 리 승만 도당의 참패로 끝났다. 리 승만이 총재로 있는 《자유당》은 제 3대 《민의원》에서 차지하였던 131석보다도 5석이나 줄어든 126석을 겨우 차지하였다. 이 결과에 《자유당》은 첫째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리 승만이 죽는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헌법》중 《부통령》이 《대통령》을 계승한다고 규정한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민주당》 소속 현 《부통령》(장 면)으로부터 《대통령》 계승권을 박탈하려는 기도와, 둘째로는 2년 후에 있을 《정 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락관할 수 없는 데 비추어 동 《선거》를 《직접 선거제》로부터 《간접 선거제》로 바꾸려는 기도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와 반면에 《민주당》은 종전의 46석으로부터 79석으로 즉 33석을 더 차지하게 되였다. 그러나 군소 정당들은 완전히 배제되였는바 《자유당》의 산하 단체라고도 할 수 있는 《통일당》이 1석을 차지하고는 기타 군소 정당들은 1석도 차지하지 못하였다. 무소속도 3대 《민의원 선거》 당초의 68석에 비하여 41석의 감소인 27석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다.

《자유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주되는 원인은 남조선의 광범한 각 계층 인민들로부터 배격을 받은 데 있다.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전쟁 정책에 추종하는 리 승만 도배의 반인민적 정책은 남조선 경제의 가일층의

위기를 조성시켰는바 이로 인한 인민 생활의 령락과 파탄이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의 반미 반리승만 기세의 증대를 초래케 한 것은 당연한 것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광범한 남조선 인민들은 리 승만의 《자유당》을 반대하여 나섰다. 실로 251만 명에 달하는 남조선 인민들이 기권과 무효 투표로써 《선거》를 보이꼬트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등록된 유권자의 3분의 2가 리 승만 도배를 반대하였다.

이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자유당》에 대한 반대 기운이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종전보다 일층 확대된 사실이였다. 《에이 에프 피》 통신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번 선거의 특징이 집권 당에 대한 반대가…도시로부터 농촌으로 확대되였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유당》이 참패한 또 하나의 요인으로써는 립후보자 《공천》에서 137명에 달하는 락천자가 《자유당》 수뇌부에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실인바 이는 《자유당》에 대한 표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한편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 진출하게 된 것은 《정권》 쟁탈을 위한 《반정부 인기 전술》로써 남조선 각계 인민들의 앙양된 반미 반리승만 기세에 교활하게 편승한 데 있다. 《민주당》은 그 계급적 기초에 있어서나 표방하고 있는 정책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자유당》과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런데 현 시기 《자유당》과 대결하여 《정권》 쟁탈을 꾀하고 있는 것은 오직 리권 분배에서 거의나 제외되다시피 되여 있고 이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자유당》 당원들보다 항상 불리한 립장에 있기 때문에 역시 이들도 모리적 리해로부터 출발하여 리 승만의 《일인 독재 정치》를 정면으로 반대하여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당》은 자기의 정치적 립장을 유리하게 전변시켜 보려고 리 승만의 학정이 빚어낸 후과를 《폭로》, 《공격》하며 인민들의 《환심》을 얻어 보려고 노력하여 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그 본질에 있어서 미제의 주장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유엔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고 《헌법》을 새로 제정하자는 이른바 《평화 통일》을 들고 나옴으로써 일정한 계층 속에서 《환상》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민주당》은 어느 정도 《득세》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리 승만 도배에게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없었는바 《일당 독재》의 유지 강화를 노리는 《자유당》은 이로부터 출발하여 그가 직면하고 있는 가일층 심화된 정치적 위기를 만회하기 위한 일련의 파쑈적 폭압과 정치적 흉모를 꾸미고 있다. 이리하여 《자유당》과 야당과의 사이에는 《정권》 쟁탈을 위한 알륵과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 ✻

《선거》후에 벌어지고 있는 여 야당간의 대립과 관련하여 《세계 통신》은, 4대 《민의원》은 《2년 후의 정 부통령 선거에 총력(總力)할 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는 량 당의 각축전으로 말미암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치렬한 정쟁(政爭)의 무대로 화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4대 《민의원》 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량 당의 알륵과 대립은 벌써부터 격화될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정 부통령 선거》에 대비하는 일련의 정치적 포석으로써 《자유당》이 내놓고 있는 《헌법 개정》 기도를 비롯하여 《민의원》을 계속 롱단하기 위한 《민의원》내 간부직의 독점 및 《국회법 개정》 기도, 그리고 인민들을 기만 회유하기 위하여 《선거 공약 3장 실천》을 계속 떠벌리면서 파쑈 경찰 테로를 강화하고 있는 사실과 이에 대항하는 야당측의 대정부 및 대 여당 공세로서 표현되고 있다.

《자유당》 중앙 위원회 의장 리 기붕은 《선거》 직후에 4대 《민의원》 기간중에는 《개헌에 대하여 번의》하려는 듯이 떠벌렸으나 실은 《헌법》을 《개정》하려는 흉계를 버리지 않고 이를 계속 추진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자유당》은 우선 《선거》 직후부터 《선거 사범 립건주의》를 내걸고 야당 계렬의 《당선자》들에 대한 《당선 무효》 또는 《선거 무효》를 조작하며 《자유당》의 락선자들로 하여금 《당선》케 할 목적 밑에 5월 7일 《선거 사범 처리 위원회》를 조직하고 《선거》 행정에서 얻지 못한 의석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자유당》의 이런 술책에 대처하여 《민주당》도 자당 소속의 《법조계》 인물들로 《선거 사후 처리 위원회》를 조직하여 맞소송으로써 대항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의원 의원》으로 당선된 자들 중 《선거 사범》으로 립건된 것만 하더라도 5월 31일 현재로 85건에 달하는데 그 중 《자유당》이 12건, 《민주당》이 67건, 기타가 6건으로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유당》은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위협, 매수, 회유 등으로 포섭 공작을 감행함으로써 이미 11명의 《의원》을 《자유당》 원내 세력에 끌어 넣었는데 이로써 《자유당》은 《민의원》내에서 137석을 차지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자유당》은 나머지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포섭한다 하여도 《헌법 개정선》인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므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매수 포섭까지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일시 《번의》한다고 하던 《자유당》의 《개헌》 기도가 다시 로골적으로 추진됨으로 하여 량 당간의 알륵은 일층 첨예화되고 있다. 리 승만은 6월 29일 《에이 피》 기자의 질문에 대한 해답에서 《헌법 개정》 기도를 로로하였는바 이를 계기로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자유》 《민주》 량당간에는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있어 《자유당》은 《민주당》이 《헌법 개정》에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들고 나오면 이를 기화로 하여 《부통령》의 《대통령》 계승권 박탈을 위한 《개헌안》을 들고 나올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민주당》은 《자유당》이 전기 《개헌안》을 들고 나올 때에는 《내각 책임제 개헌안》으로 이에 대항할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여 야당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또 하나의 표현은 《민의원》 간부 문제와 《자유당》이 들고 나온 《국회법 개정》 기도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민주당》은 《선거》에서 3분의 1의 의석을 차지한만큼 그들이 당초부터 기도한대로 《민의원》내에서의 지반을 닦아 놓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 림할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우선 《민의원》내에서 《자유당》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데 착수하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민주당》은 《원내》 간부직의 3분의 1을 정식으로 요구하여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당》은 그렇지 않아도 《민의원》내에서의 《민주당》 세력이 어느 정도의 팽창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원내》 간부직까지 할양하게 되면 《민의원》내에서의 《자유당》의 지배력이 약화되리라는 것을 타산하고 간부직 3분의 1을 《민주당》에 할여하는 대신에 야당의 반정부 공세의 예봉을 봉쇄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회법 개정안》에서 《자유당》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국회 운영의 원활화》라는 명목하에 《긴급 동의안》 및 발언 제한 등 규정으로 야당의 활동을 제한 내지 억제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의원》내 간부직 할양의 조건부로 내놓은 《자유당》의 이 흉책을 반대하였다. 이리하여 《원내》 간부직을 미끼로한 《국회법 개정 협상》은 결렬되고 《민의원》의 의장, 부의장 및 15개 상임 위원회 위원장직은 모두 《자유당》이 또 다시 독점하였다.

《자유당》은 계속 《국회법 개정》을 집요하게 추진시키고 있는바 이로써 《민주당》과의 알륵은 더욱 심화되여 가고 있다.

여 야당간의 알륵을 격화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은 《참의원 선거》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괴뢰 《국회》의 상원격인 《참의원》 구성 문제는 1952년 《개헌》 당시에 《헌법》에서 규정하였었다. 당시 리 승만 도배가 《참의원》 구성으로 소위 량원제 운영을 기도한 것은 《민의원》내에서의 반대파 세력을 견제하고 반인민적 매국적 립법 활동을 자의로 자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회》내의 적극적 반대파인 《소장파 의원》들을 폭압으로 제거한 후 1954년 《선거》에서 《자유

당》 세력이 《민의원》내에서 지배적 위치에 서게 되자 야당파의 《참의원 선거법 개정》제의를 구실로 하여 5년 간이나 《참의원 선거》를 태공하여 왔었다. 그러다가 새로운 《선거법》에서 1958년 1월 24일까지에 《선거》를 실시키로 다시 규정하여 놓기는 하였으나 이를 또 다시 지연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다. 《자유당》이 《참의원 선거》를 주저하는 리유는 5.2 《선거》에서의 참패의 쓰라린 경험에서 《참의원 선거》에서도 야당파를 압도하고 승리할 가망이 희박하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참의원 의장》은 《부통령》이 자동적으로 겸임하기로 규정되여 있으므로 《민주당》 소속 현 《부통령》이 《참의원 의장》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참의원》내에서의 그의 주도권 장악에 처애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유당》은 《헌법》을 개악한 다음에나 혹은 2년 후의 《정 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도 자당 출신으로 당선된 이후 무난하게 이를 실시하려고 타산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당》의 속심을 간파하고 있는 《민주당》은 자당 출신인 장 면이 《부통령》으로 있는 기간에 기어코 《참의원 선거》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여 야간의 대립은 특히 《민의원》 본 회의를 무대로 더욱 격화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격화될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의 리 승만 도배의 협잡 《선거》 사실을 저상에 놓고 대 정부 및 대 여당 공세를 취함으로써 인기를 얻어 보려고 기도하고 있던 《민주당》은 지난 6월 20일 《민의원》 본 회의에 이르러 《자유당》에 대한 공격의 화살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 김 선태는 《무투표》 당선을 조작한 리 기붕을 비롯한 《자유당》 수뇌부를 가리켜 《역적》이라고 규탄하면서 《대한 민국은 강도 국가》라고 지칭하였다. 《자유당》은 김 선태에 대한 《징계 동의안》으로 야당파의 공격을 억압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민의원》내에서의 여 야당 간의 공방전은 지난 5.2 《선거》에서 리 승만 도배가 자행한 폭압과 사기, 협잡 등 부정 사건을 규명할 목적으로 《민주당》이 제기한 진상 조사단 구성 동의가 6월 24일 《민의원》 본 회의에서 《자유당》의 다수파에 의하여 부결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 56명이 동월 26일에 《국회》 본 회의에서 리 승만에게 《선거》 폭압과 협잡에 대한 책임을 추구하는 경고 결의안을 제출함에 이르러 더욱 격화되였던 것이다.

《선거》 결과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제 3 세력이 통합을 위하여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다. 즉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배제된 군소 정당들은 《선거》 직후부터 보수 량 대 정당에 대항할 제 3 세력을 형성할 기세를 보여 주었는데 지난 6월 7일 드디여 《민주 혁신당》과 《로농당》이 합당할 것을 성명함에 이르렀다.

군소 정당들의 이른바 혁신 세력에로의 통합은 이미 《선거》 이전에도 《민주 혁신당》과 《진보당》을 중심으로 하여 저상에 오른바 있었다. 그러나 통합후의 주도권 문제 등으로 난관에 봉착되고 《진보당》에 대한 폭압이 가해지자 이것이 일시 좌절되고 말았었는데 《선거》 직후에 이르러 그 실현이 촉진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선거》 결과는 괴뢰 지배층 호상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알륵과 대립을 조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유》 《민주》 량당이 각각 내포하고 있던 모순들도 또 다시 표면화시켰다.

《자유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의 하나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립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벌러진 내분이였다.

《자유당》 내에는 리 기붕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파》와 조 경구를 중심으로 하는 《비주류파》가 있으며 《비주류파》가 제거되고 《주류파》 일색으로 채워진 동 당 최고 기관인 《당무회》내에는 장 경근을 중심으로 하는 《법조파》와 《관료파》인 리 재학을 일파로 하는 분파들이 있다. 이것이 립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그 내분이 로정되였었는바 《자유당》 지도층은 내분의 재현을 두려워 소위 지명제 공천으로 리 기붕에게

《공천》을 일임함으로써 《자유당》 내에서도 친 리 승만 분자들을 《공천》하였던 것이다. 수뇌부의 이런 처사에 불만을 품은 《공천》 락천자들 중 137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자유당》의 표를 분산시켰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무회》내 《법조파》는 자파에 소속한 비《공천》 립후보자들의 《당선》을 날조할 목적으로 《민주당》 《공천》 립후보자에 대해서는 물론 《관료파》 소속 《공천》 립후보자들에게도 탄압을 가하는 등으로 갖은 횡포를 다하였었다.

《관료파》 계렬의 전면적 거세를 획책한 《법조파》의 이와 같은 횡포는 《자유당》의 《선거》 전략을 혼란에 빠뜨리게 함으로써 특히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전반에 걸쳐 《민주당》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였는바 이것이 《선거》후의 동 당내의 내분을 다시 로정시킨 직접적 계기로 되였다.

이에 있어 《자유당》은 《선거》후의 수습책의 하나로서 지방 당부의 개편을 추진시키고 있으며 《당무회》의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법조파》 계렬을 거의 제거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뿌리 깊은 그들 간의 알륵은 이를 계기로 또 다시 로정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에서도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진출을 계기로 하여 당내 및 《원내》 령도권을 둘러싼 신 구파 대립이 로현되였다. 《민주당》의 내분도 《자유당》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선거》 결과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였다. 그것은 《민주당》이 종래보다 33석을 더 얻게 된 의석의 전부가 장 면을 중심으로 한 《신파》가 차지하게 되여 《신파》의 《원내》 세력이 증대되게 된 데 있다.

작년 9월의 동 당 《전당 대회》 당시부터 우세를 차지하게 된 《신파》는 《민의원 선거》에서의 상기한 바와 같은 진출을 보게 되자 조 병옥을 중심으로 하는 《구파》 세력을 배제하고 당내 및 《민의원》내에서의 령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것을 목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이에 있어 《신파》는 우선 당내의 이른바 《온건파》로 지칭되고 있는 《중도파》를 매수 포섭하는 방법으로 자파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우선 《구파》에 속하였던 《원내 총무》직을 탈취하였다.

이러한 《민주당》내의 신 구파의 알륵은 2년 후에 있을 《정 부통령 선거》에서의 립후보 출마를 둘러싼 내분으로서 앞으로 보다 첨예화될 것이 명백하다.

이상과 같이 《민의원 선거》후 괴뢰 지배층 내부에서의 알륵 대립은 더욱더 격화되여 가고 있다.

✻ ✻

《선거》후 남조선 정세의 특징의 하나는 광범한 남조선 각계 인민들과 리 승만 도당간의 모순의 격화이다.

그것은 리 승만 도배의 협잡 《선거》와 반인민적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 리 승만 도배의 인민들에 대한 폭압 등에서 표현되고 있다.

인민들로부터의 철저한 고립이 실증된 리 승만 도배는 《선거》 참패의 보복과 회유의 량면 전술로써 《선거》후에 조성된 자기의 정치적 곤경으로부터 벗어나며 이를 수습하려고 발악적으로 날뛰고 있다. 《선거》후에만도 《5렬 색출》이니 《일체 단속》이니 하면서 4차에 걸쳐 검거 선풍을 일으켜 무고한 인민들을 대량적으로 체포, 구금하는 등 리 승만 도배의 보복 행위는 특히 락선 지구에서 더욱 악랄성을 띠고 있다.

《선거표》를 많이 획득할 목적으로 판자'집들을 철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공포한 바 있었던 리 승만 도배는 《선거》에서 령세 주민들이 그들을 반대하였다고 하여 판자'집에 대한 강제 철거로써 보복하고 있다. 서울에서만도 괴뢰 경찰대를 동원하여 하루'밤 사이에 2백여 동을 습격 파괴하였다. 괴뢰 치안 국장은 판자'집 강제 철거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렸다.

합동 통신에 의하면 경상남도 울산에서는 1천 여 명의 주민들이 괴뢰 경찰에 의한 행패

와 검거망을 피해 린근 지대를 떠돌면서 집에 돌아 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였다. 리 승만 도당의 횡포가 얼마나 악독성을 띠고 있는가는 야당 소속의 일 《민의원 의원》이 《리조때 당파 싸움에서 배안에 든 자식까지 죽이던 보복의 무서운 력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지탄한 것에 의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리 승만 도배는 인민들의 반정부 기세를 무마하며 회유할 목적으로 서투른 기만책을 쓰고 있다. 《선거하나 마나, 국회 있으나마나》라는 류행어가 류포될만큼 《선거》에 무표정한 인민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선거》 직전에 공포한 바 있는 이른바 《선거 공약 3장》을 마치 실현이나 할듯이 떠벌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공약》이 한낱 헛약속에 불과하다는 것은 괴뢰 지배층 자신들도 인정하고 있다. 《공약》의 첫째인 《공무원 처우 개선》 즉 그들의 봉급을 7월부터 배액을 지급한다는데 대하여 괴뢰 재무부 장관은 《우리 재정으로는 될 수 없다》고 공언하면서 《감원》이나 혹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솔직히 토로하였다. 《부통령》 장 면까지도 《자유당》의 《공약 3장》은 일종의 《선전》에 불과하며 《그 실현을 위한 뒤'받침이 없으므로 이것을 강행하면 경제 파탄》을 가져 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런 사실들을 《공약 3장》이 애당초부터 실현성 없는 공담에 불과하다는 것을 립증하여 준다.

이 모든 것은 《선거》에서 인민들로부터의 완전한 고립이 실증된 리 승만 도배가 밑바닥으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는 파쑈 통치 제도를 유지 강화하며 앞으로 있을 《지방 의회 선거》 및 《정 부통령 선거》에서 이번 《선거》에서의 참패를 만회해 보려는 심산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고조되여 가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리승만 기세를 제압하며 2월 5일부 공화국 정부 성명이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인민들과 사회 여론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기 위하여 부질없는 소동과 허장성세를 부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선거》를 전후하여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수차에 걸쳐 대규모적인 《원자전 대비 기동 훈련》을 조작하며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인 오네스트존 로케트포 및 280 미리 원자포의 《시범》 발사 등 광란적인 도발 행동을 거듭해 오던 나머지 지난 7월 4일에는 군사 분계선 이남 춘천 근방에 미군 《제 4 유도탄 사령부》를 정식으로 설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다른 한편 리 승만 도배는 미제의 조종하에 이른바 《해외 무대》에로의 《적극 진출》을 기도함으로써 인민들로부터의 고립, 배격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저락된 그 《위신》을 추켜세워 보려고 어리석은 시도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리 승만 역도는 지난 5월 12—15일 간에 서울 경무대에서 구라파 및 중동 지역에 주재하는 괴뢰 《외교 공관장 회의》를 소집하였다. 남조선 통신들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동 회의에서는 위신 없는 《대한 민국》과 그들이 주장하여 온 《북진 통일 방안》에 대한 구라파 및 중동 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방책들을 토의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그들은 평화적 통일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 줌으로써 인민들로부터의 배격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리 승만은 지난 5월 19일 현 일본 수상인 기시 노브스께의 개인 특사 야쯔기를 통하여 기시의 《친서》에 대한 《회신》을 보내였다. 종래 《반일》 주장자로 가장하여 온 리 승만이 그 태도를 《표변》하여 일본 군국주의자들과의 적극 접촉을 꾀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량자 간의 사이를 조정함으로써 우선 《한일 회담》을 《성공》에 이르게 한 다음 오래 전부터 획책하여 온 군국주의 일본을 골간으로 하는 리 승만, 장 개석, 느고 딘 디엠 등 괴뢰 도당들로 이른바 반공 군사 쁠럭 조작을 추진시키려는 미제의 조종에 의한 것이였다. 이에 있어서 리 승만은 남조선에 랍치된 일본 어민들과 일본에 비법적으로 억류된 조선 공민들을 교환함으로써 총선거에 림하였던 기시의 정치적 립장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며 동시에 자기의 체면도 세워 보려는 것이였다. 한편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여기에서 추구하려는 목적은 미국의 원자전략의 그늘 밑에서 그의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의 망상을 실현해 보려는 것인데 이에 있어 그들은 《한일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남조선의 협력을 얻어 그 망상의 일부를 달성해 보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일 회담》 일본측 수석 대표 사와다 렌조가 이 회담의 목적이 《대한 민국과 협동하여 38 경계선을 압록강까지 밀어 올리는 것》이라고 토로한 데서도 여실히 폭로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리 승만 도배는 지난 5월 20일 《국무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사태를 《방치》할 수 없으니 미제의 사촉에 의하여 내란을 도발한 반란 도당을 위하여 《원병을 동원할 것》이라고 떠벌리면서 관권을 발동하여 소위 《원병 지원 운동》을 조작하는 등 허장성세를 부리다가 남조선 청년들로부터 일치한 배격을 당하고 말았다.

최근 중근동 사태와 관련하여 자기의 잔명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된 리 승만 도배는 당황망조상을 보임으로써 그의 가긍한 처지를 여지 없이 드러내 놓았다.

이렇게 부질없는 소동과 인민들에 대한 폭압, 회유책으로서 그의 파국을 모면해 보려고 발악하고 있으나 이것은 도리여 그들의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 ❊

모든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리 승만 도배의 통치 지반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그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위기의 가일층의 심화를 보여 주었다. 미국 신문 《뉴욕 헤랄드 트리뷴》지까지도 리 승만 괴뢰 정권의 불안정성에 대하여 《현재 우리는 남조선 정부가 안정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정부는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리 승만 도배의 정치적 위기는 그의 전쟁 추구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의 가일층의 심화, 허무러져 가는 식민지 통치 제도의 유지를 위한 경찰 테로, 폭압의 강행으로 인한 광범한 인민 대중과의 모순의 격화, 《정권》 쟁탈을 위한 지배층 호상간의 알륵과 대립의 격화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더욱더 심화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멸망하는 계급이 력사 무대에서 저절로 물러간 례는 없다. 더우기 국제 반동의 원흉인 미제 침략자들의 적극적 비호와 조종하에 있는 리 승만 괴뢰 통치가 저절로 물러 설 리는 없는 것이다.

최근 사태가 실증하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리 승만 도배는 내외적으로 되는 모순의 격화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더욱더 광란적으로 《북진 통일》을 떠벌리면서 새 전쟁 도발 책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장엄한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발악으로도 멸망의 길에 들어선 그의 파국을 만회할 수는 결코 없으며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철석같이 뭉쳐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조선 인민의 우렁찬 전진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당 사업 경험

보수주의와의 투쟁이 없이는 선진 영농 기술을 도입할 수 없다

평북도 통천군 당 위원회
위원장 변 상 렵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고조기에 들어 섰다. 농촌 경리 분야에서도 거대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다.

통천군내 농업 협동 조합원들은 금년도에 6만 7천 여 톤(그 중 벼 정당 평균 5톤 84키로그람)의 알곡을 생산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것은 제 1차 5개년 계획말인 1961년도의 국가 알곡 생산 계획을 3년 간 앞당겨 초과 완수하는 수'자로서 우리 군내 농업 생산에서의 일대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천군 당 위원회는 이미 채택된 증산 결의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하여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 그 중에서도 선진 영농 기술의 광범한 도입에 주요한 관심을 돌렸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공업이 주는 적극적 방조에 의하여 농업 로동을 점차 기계화하며 선진 영농법을 도입함으로써 농업의 집약화를 실현함이 없이는 토지에서의 단위당 수확고를 제고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 황해남도 농업 협동 조합 열성자 회의에서 진술한 연설에서 《우리 나라에는 농토가 적기 때문에 적은 땅에서 많은 소출을 내도록 해야 하며 집약적 농법으로 단위당 수확고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선진 영농법을 광범히 도입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경지 면적의 절대 다수가 논 면적인 실정에 비추어 논에서의 단위당 수확고를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군 당 위원회는 금년 봄까지 논에 대한 관개 체계가 기본적으로 완성된 조건하에서 벼 종자의 80% 이상을 《해방조》로 갱신하며 1만 여 정보의 논에 전면적으로 랭상모를 도입하며 1천 여 정보에 논판 양어를 실시하는 등으로 벼 정당 수확고를 5톤 이상으로 제고시키는 투쟁에 중점을 두면서 토지 리용률의 제고, 밭 관수 체계의 확립 및 면화 영양 단지 가식법의 도입 등등에 지도를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농촌에서의 일체 락후한 것, 보수적인 것들을 반대 극복하고 새로운 것, 사회주의적인 것들을 지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회주의 건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진 영농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도 역시 낡은 보수주의적 사상과 반동적인 요소들이 부단히 우리의 전진을 저애 파탄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군 당 위원회는 선진 영농 기술 도입을 위한 투쟁을 다만 행정 기술적 조치로 대치하려는 실무주의적인 편향과 완강히 투쟁하면서 사업 성공의 중요 고리를 농촌에서의 낡은 보수주의 사상의 극복, 반혁명 분자와의 투쟁 및 농민들의 문화—기술 수준 제고에 두고 그에 당적 지도를 집중하였다.

※ ※

우리의 전진 운동을 저애하는 낡은 보수주의적 경향은 랭상모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우심하게 표현되였다.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전 논 면적의 17.8%에 랭상모를 도입하여 벼 정당 평균 4톤 228키로

그람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전 논 면적에 전면적으로 랭상모를 도입해야 하며 벼 정당 평균 5톤 84키로그람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 이것은 농업 협동 조합원들 자신의 결의이며 군 당 단체의 영예로운 투쟁 목표인 것이다.

랭상모를 신비로운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의 도입을 주저하던 그런 락후한 경향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랭상모는 수리 안전답이나 수리 불안전답임을 막론하고 모든 논에서 물모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낸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누구도 랭상모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하여서는 시비를 걸지 않았다. 다만 보수주의자들은 너무 단꺼번에 앞으로 뛰여 나가는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였다. 몇 가지 실례를 들 필요가 있다.

쌍룡리 당 단체의 일부 지도 일'군들은 면전에서는 마지 못해 전 논 면적에 랭상모를 도입하겠다고 결의하고도 뒤에 돌아 가서는 《아무래도 10중 8,9는 실패할 것》이라고 하면서 30% 정도가 적합하다고 뒤'공론을 하였다. 심지어 동하리 원서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은 생산 계획 수립에서도 랭상모는 30%밖에 예견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수주의적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되 적지 않은 리 당 단체들에서 발로되였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런 경향은 천리마를 타고 앞으로 내달리는 대중의 창발적 적극성을 믿지 않고 그의 수'자적 장성에 벌벌 떨면서 뒤'걸음질치는 락후한 사상 경향이였다.

일부 일'군들의 보수주의적 경향은 논판 양어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큰 저애로 되였었다. 보수주의자들은 지난 해의 경험에 의하여 논판 양어가 부업 수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벼 생산에 있어서도 4—10%의 증수를 가져 온다는 것을 뻔연히 알면서도 단꺼번에 그렇게 많은 면적에 도입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는 것이였다.

례를 들어 룡연리 제 1 농업 협동 조합의 논판 양어 책임자 리 영묵 동무를 비롯한 일부 일'군들은 전 면적에 논판 양어를 도입하라는 지시를 사상적으로 접수하지 않았다. 그들은 랭상모의 전면적인 도입을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과 한패가 되여 완강하게 선진 기술의 적극적 도입을 반대하여 나섰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렇게 단꺼번에가 아니라 서서히 전진하자》는 것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전진 속도를 잠시도 늦출 수는 없었다. 가능하면 더 빠른 것이 요구되였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께서는 《선진 영농 방법을 도입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것을 고집하는 보수주의와 강한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 보수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해석하고 설복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이 다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오늘 조합이 조직된 조건하에서는 일정한 계획 밑에서 대담하게 선진 영농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군 당 위원회는 이 교시에 립각하여 보수주의와의 사상 투쟁을 완강히 조직 전개하는 한편 대중의 사상을 동원하고 대중의 앙양된 창발적 적극성에 튼튼히 의거하여 랭상모와 논판 양어의 적극적 도입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켰다.

우선 군 당 위원회는 리 당 위원장, 리 인민 위원장 및 관리 위원장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들 속에서 보수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완강한 사상 투쟁을 조직 전개하는 한편 군급 간부들을 지구 별로 파견하여 농민 대중 속에서의 강력한 정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조합원 총회들에서 농민들 자신의 결의로서 랭상모의 전면적 도입 계획을 채택케 하였다. 특히 논판 양어를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는 논판 양어에 경험이 풍부한 부근 농업 협동 조합의 열성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계층별 선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조합내 민청원들을 동원하여 치어를 잡아들이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한 결과 낡은 보수주의는 마침내 대중의 앙양된 기세 앞에 숙으러들고 말았다.

우리의 전진 운동을 저애하는 경향은 비단

낡은 보수주의 사상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일부 관리 일'군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개인 리기주의, 영웅주의, 출세주의 등 락후한 사상 요소들이 또한 이러저러한 형태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은 보여 주었다.

례를 들어 룡연리 제 6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전 논 면적에 랭상모를 도입할 것을 토의 결정하고 그의 실천에 들어 섰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관리 간부의 자리를 탐내고 있던 강운채, 전 천봉 동무들은 락후한 계층을 자기들 주위에 집결해 가지고 랭상모 도입을 은근히 저애하면서 모판 닦이와 그의 락종 사업을 태공하고 있었다. 그들은 랭상모에 실패하여 현재의 관리 간부들이 신임을 잃는다면 응당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이런 경향은 기타의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도 발로되였다.

군 당 위원회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저애하는 가장 유해로운 사상 요소인 지방주의와 가족주의를 극복함이 없이는 더는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실지 체험을 통하여 더욱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군 당 위원회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제 1차 당 대표자회 결정 실천을 위한 투쟁을 선진 영농 기술 도입 행정에서 발현된 일체의 락후한 사상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면서 당 단체와 당원들의 사상 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며 당 정책에 대한 일치한 견해를 보장하도록 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그리하여 당원들 속에 제 1차 당 대표자회 결정 정신이 침투되고 우리 당 농업 정책의 정당성이 더욱 철저히 인식됨에 따라 그들은 우리의 전진 운동을 저애하는 락후한 사상 요소들을 반대하여 힘차게 궐기하였으며 선진 영농 기술 도입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 *

농촌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며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반혁명 분자와의 투쟁을 성과 있게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우리 나라 농촌에 잔존하고 있는 반혁명 세력이란 극히 미미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놈들은 력사적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자기 스스로가 력사 무대에서 물러 가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확고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계급적 진지가 강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초조감에 사로잡혀 최후 발악적인 파괴 암해 공작을 감행하려고 날뛰는 것이다. 우리는 랭상모의 전면적 도입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에 직면하였으며 그에서 적지 않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반혁명 분자들에게 있어서 전 논 면적에 랭상모를 도입하여 농업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려는 농민 대중의 혁명적 지향이 마음에 들 리는 만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협동 조합에 잠입하였던 극소수의 반혁명 분자들은 일부 락후한 조합원들을 유인하여 가지고 벼 종자를 못쓰게 만들려고 책동하였으며 또 모판 락종시에는 복토를 두텁게 하여 부분적인 모판들에서 발아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책동 하였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모든 사회주의 건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진 영농 기술 도입을 위한 투쟁 역시 날카로운 계급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당 위원회는 선진 영농 기술 도입을 위한 투쟁을 다만 행정 기술적 조치로 대치하려는 실무주의적인 편향들과 완강히 투쟁하면서 이 사업을 반혁명 분자와의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였으며 농민 대중의 계급적 각성을 제고시키는 데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례를 들어 일부 농업 협동 조합 초급 당 단체들에서는 일부 랭상모판이 실패된 사실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사상 투쟁이 진행되였다. 당원들과 조합원들 속에는 반

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결정이 거듭 해석 침투되였다. 대중은 누가 우리의 원쑤인가를 똑똑히 인식하게 되였으며 놈들을 반대하여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였다. 그러한 결과 놈들에게 유인 당하였던 조합원들이 놈들의 죄행을 폭로하기 시작하였다. 놈들의 반혁명적 음모는 백일하에 폭로되였으며 대중의 치솟는 증오를 받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런 농업 협동 조합 초급 당 단체들에서는 각성된 조합원 대중을 옳게 고무 추동하여 계단별로 저상식 랭상모를 재파하고 그의 관리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제 기일내에 전 논 면적에 랭상모를 도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 *

농촌에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온갖 낡은 것, 보수적인 것들을 극복하면서 선진 영농 기술을 광범히 도입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한 농민들의 문화—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 조건이라는 것을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께서는 농촌 문화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문화 수준을 높여야만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으며 기술적 문제들을 성과 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다》라고 가르치시였다.

군 당 위원회는 이에 있어서 우선 새 것에 민감하며 지식 수준이 높은 초 고중 졸업생들을 비롯한 농촌 청년들을 농촌의 새로운 기술 인테리로 양성하며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농민들의 전반적 문화—기술 수준을 제고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룡천군 당 위원회는 1955년 초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북현 농산 과학 연구 크루쇼크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인정하고 그의 경험을 보급 일반화하는 일련의 조직적 대책들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다. 초 고중 졸업생 대회, 농산 과학 연구 크루쇼크원 회의, 현지 견학 사업, 필요한 기술 서적의 알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낡은 보수주의적 사상이 청년들의 새로운 전진 운동을 저애하고 있었다.

즉 일부 리 당 단체 지도 일'군들과 조합 관리 일'군들은 청년들의 이런 새로운 운동을 지지 원조할 대신에 오히려 그것이 농촌 경리 발전에 방해가 되는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를 은근히 저애하였으며 심지어는 《햇내기들의 장난질》이라고 조소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이런 경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광활한 발전 전망을 내다 보지 못하고 당면한 영농 사업에만 눈이 어두워 맴돌이치는 근시안적 사업 작풍의 반영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간의 락후한 영농 방법에 물젖어 새로운 과학 기술의 우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험 본위주의 사상의 표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 당 위원회는 거듭되는 당 단체 회의와 당 학습회들을 통하여 변천된 새 환경에 민감하지 못한 일부 지도 일'군들의 낡은 보수주의 사상들을 신랄하게 비판 폭로하면서 농촌에서의 과학 기술 연구 사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킬 일련의 조직적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즉 군 당 위원회는 하부 지도 사업을 통하여 각종 과학 연구 크루쇼크와 농촌 청년 기술 학교의 조직과 그의 운영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방조를 주는 한편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내에 350명의 기사, 기수를 양성할 목표를 세우고 그에 대한 통일적이며 실질적인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작년 말에 군내의 당, 정권 기관 및 사회 단체 지도 일'군들과 농업 기술 일'군들로서 《군 농업 기술 연구 크루쇼크 지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이 지도 위원회는 크루쇼크들의 운영 경험을 수시로 일반화하며 크루쇼크 지도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쎄미나르를 조직 진행하며 수시로 제기되는 기술적 및 리론적 문제들에 대한 해명을 주는 동시에 정상적인 하부 지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농촌에서의 기술 인재 양성 사

업을 전망성 있게 추진시키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룡천군에서는 87개의 각종 과학 연구 크루쇼크와 12개의 농촌 청년 기술 학교에 1천 4백 여 명의 농촌 청년들이 망라되여 과학 기술 연구에 힘써 왔다. 그러한 결과 이미 1명의 기사와 3명의 기수가 양성되였을 뿐만 아니라 36명의 청년들이 국가 기술 검정 시험의 일부 과목에 합격하였으며 금년에는 또 다시 320명이 응시하여 그 중 32명이 기수 자격을 쟁취하며 나머지가 모두 일부 과목에 합격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룡천군에서는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위하여 전망성 있게 농촌에서의 기술 인재 양성 사업에 주력하여 왔는바 새로 자라난 이러한 기술 력량은 곧 금년도에 이르러 농촌에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던 온갖 보수주의적 경향들을 극복하고 선진 영농 기술을 광범히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로 되였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 보자.

전 논 면적에 이앙할 수 있는 그야말로 대규모적인 랭상모판 락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군 당 단체와 전체 농민들의 이목이 모판 관리 사업에 집중되고 있던 그러한 때이다. 급작스럽게 기후의 변동이 심해지더니 기온이 령하 1—2도에까지 하강되여 갔다. 이렇게 되자 적지 않은 모판 관리자들은 당황망조하여 동요하게 되였으며 기술 지표에 의하여 더욱더 철저하게 모판을 관리할 대신에 제가끔 자기 《경험》만을 고집하면서 눈짐작으로 모판을 관리하여 적지 않은 랭상모판이 실패하게 될 우려성이 조성되였다. 심지어 일부 모판 관리자들은 뻔연히 모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참견마시오. 내 일은 내가 할테니》하면서 농산 기술자들의 지도까지도 거부하여 나섰다.

군 당 위원회는 조성된 사태를 심중히 토의하면서 선진 과학 기술과 실제적인 산 경험을 옳게 배합하는 것이 당면한 위기를 뚫고 나가는 유일 방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군 당 위원회는 모판 관리 사업에서 선진 과학 기술을 무시하고 자기의 《경험》만을 고집하는 그런 락후한 보수주의자들을 새로 자라난 3천여 명의 크루쇼크원들과 농촌 청년들로써 교체하였으며 유능한 경험자들에게 배우면서 선진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와 함께 수차에 걸친 현지 견학 사업과 지구별 기술 강습회를 통하여 모판 관리자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일련의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그러한 결과 새로 배치된 크루쇼크원들과 농촌 청년들은 유능한 경험자들로부터 진지하게 배우면서 이미 학습한 선진 과학 기술과 기술 지표에 엄격히 립각하여 랭상모판을 기술적으로 관리하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지방의 기후 풍토에 알맞게 건모를 육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 누구도 농촌 청년들 속에서의 각종 과학 기술 연구 사업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게 되였다. 농촌 청년들은 점차 농촌의 새로운 기술 인테리로 양성되면서 농촌 경리를 기술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체 농민들이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에 필요한 지식을 쉽사리 습득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전반적 지식 수준을 제고하는 데 관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룡천군 당 위원회는 1958—1959 학년도부터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를 앞당겨 실시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또 성인 학교, 각종 과학 연구 크루쇼크, 야간 중학교, 문화 써클 등도 광범히 조직 운영하여 농민들의 문화—기술 수준 제고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교훈적인 것은 산두리 당 단체의 사업 경험이다.

산두리 당 단체에서는 성인 학교를 광범히 운영하여 문맹자를 완전히 퇴치한 토대 우에서 인민 학교 졸업 정도의 청장년들 102명을 야간 중학교에, 초 고중 졸업 정도의 청년들 52명을 농촌 청년 기술 학교에, 유아를 가진 녀성들 274명을 어머니 학교에 각각 취학시켜

공부시키고 있으며 그 밖에 로인들은 월 2회씩 조직하는 좌담회에 참가시켜 사회 과학 지식과 선진 영농 기술을 습득시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농촌 청년 기술 학교에서의 연구 발표회에는 작업반장과 열성 조합원들을 적극 참가시켜 그들의 기술 수준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농민들의 문화—기술 수준 제고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는 다음의 실례들이 말하여 준다. 즉 산두리에서는 한 때 적지 않은 농민들이 랭상모의 도입을 반대하여 왔었으나 금년도에는 각종 학습망에서 선진 영농 기술을 잘 공부한 결과 모두가 일치 협력하여 리적으로 100%의 논에 랭상모를 도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산두 농업 협동 조합 축산 크루쇼크원들은 덕틀이 26두, 비육돈이 43두로 증가된 조건하에서 5평의 온상에 옥수수 종자 두말(대두)을 붓고 3회에 걸쳐 옥수수'대를 베여 먹임으로써 풀이 돋아나기 전 이른 봄의 사료 문제를 창발적으로 해결하였으며 현가 농업 협동 조합 잠업 크루쇼크원들을 중심으로 한 잠업반원들은 기술 지표를 엄격히 준수하여 봄누에 13매에서 매당 평균 48키로그람이란 많은 고치를 땄다.

이와 같이 지금 산두리 당 단체에서는 농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 농민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점차 제고시키면서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바 그들은 이 경험에 기초하여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내에 전체 농민들의 지식 수준을 인민 학교 정도는 물론 초급 중학교의 정도에까지 제고시킬 과업을 성과 있게 추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신서리, 쌍학리를 비롯한 적지 않은 리들에서도 비교적 성과 있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신서리 전진 농업 협동 조합 당 위원회에서는 초급 중학교를 조합 자체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면서 인민 학교 졸업생 전원을 취학시키고 있으며 농촌 청년 기술 학교에 인민반과 초중반을 두고 300여 명의 청장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으며 어머니 학교를 작업반 단위로 조직 운영하여 전체 녀성들을 이에 망라하고 있다. 그리고 로인들을 위하여서도 정기적으로 좌담회를 열어 당과 정부의 정책들을 침투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모든 리 당 단체들에서 다 성과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직도 일부 리 당 단체 지도 일'군들은 농민들의 전반적 지식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을 《막연한 일》, 《실천 불가능한 일》로 생각하면서 그에 사상적으로 동원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일부 리들에서 리 당 단체의 응당한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자연 생장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 ❁

룡천군 당 위원회는 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지도 밑에 농촌 경리를 기술적으로 개조하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인 선진 영농 기술 도입을 위한 투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기후 조건이 극히 불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벼 종자의 86%를 《해방조》로 갱신하였으며 전 논 면적의 82.5%에 랭상모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1,177정보에 논판 양어를 실시하여 벼 정당 평균 5 톤 이상의 다수확을 거둘 가능성을 얻게 되였으며 밭 농사에서도 적지 않은 면적에 밭 관수 체계와 면화 영양 단지 가식법 등 선진 영농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작황으로 보아 능히 년초의 증산 결의를 초과할 자신심을 갖게 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의 사업에 아무런 결함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진 영농 기술 도입을 위한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밭 관수 체계 확립에서의 소극성, 토지 리용률 제고에서의 완만성, 농촌 기술 인재 양성 사업에서의 농산 부문에의 편중 등등 허다한 결함들을 가지고 있다.

룡천군 당 위원회는 이미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농촌에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일체 락후하고 보수적인 경향들과의 더욱 완강한 사상 투쟁을 조직 전개함으로써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위한 사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킬 것이다.

새 발기에 대한 적극적 지지—이것은 생산 혁신의 기본 요인

구성 방직 공장 당 위원회
위원장 김 정 삽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은 대중 속에 침투되여 거대한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되였다. 구성 방직 공장은 로동자들의 앙양된 창조적 적극성과 헌신성에 기초하여 작년도보다 111.9%로 장성된 금년도의 국가 생산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함은 물론 340톤의 면사와 200만 메터의 침염 직물을 더 생산할 것을 결의하였다.

물론 채택된 증산 결의는 로동자 자신들의 결의이며 당 단체들의 영예로운 전투적 과업이다. 공장 당 단체는 채택된 증산 결의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면서 적지 않은 애로와 난관들을 예견하였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으며 동요하지 않았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께서는 《…당 앞에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였을 때 그것을 대중과 합께 토론하면 그들은 적극적으로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를 받들고 애국적 열성과 창조적 지혜를 다하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들을 찾아 내고야 만다》(경공업성 열성자 회의에서 한 연설)고 가르치시였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대중은 오랜 생산 경험을 통하여 생산의 약한 고리는 무엇이며 그를 타개할 방도는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 의식적으로 생산을 혁신시키기 위한 새로운 창발적인 발기들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가 가르친 바와 같이 로동 계급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모든 문제들을 그들과 상론하며 그들이 제기하는 새로운 발기들을 적극 지지 발전시킨다는 것은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기본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전진 운동이 그러한 바와 같이 대중의 새로운 발기들을 지지 발전시키는 투쟁 역시 새 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을 동반하게 되므로 사업에서 오유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항상 새 것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온갖 락후한 것, 보수적인 것들을 극복하는 데 주요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 *

채택된 증산 결의를 완수 및 초과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자 대중의 창발적 지혜와 적극성을 강력히 고무 추동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그들의 창발적 새 발기들을 적극 지지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일부 지도 일'군들 속에는 대담하게 대중 속에 뛰여들어가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과 더불어 새로운 대책들을 토의 강구할 대신에 자기의 경험과 주견만을 고집하면서 대중이 제기한 창발적인 의견까지도 묵살 거부하는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을 답습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금년 초에 절약과 증산 예비 탐구를 위한 대중적 토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실제 경험에 근거하여 원면의 실수률을 89—90%까지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일부 책임 일'군들은 종전의 기준량에 매여 달려 《그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고집하면서 결국 원면의 실수률을 88.5%로 낮추어 버렸으며 따라서 면사 15.5톤, 원면 17톤을 년간 절약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러한 결과 어떻게 되였는가? 일부 책임 일'군들의 고집이 과연 정당하였던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즉 로동자들은 온갖 창발성과 헌신성을 다 발휘하여 상반년 기간에만도 이미 면사는 17톤, 원면은 29톤을 절약함으로써 자기들의 제기가 정당하였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만일 지도 일'군들이 새 것에 민감하지 못하며 대중과 더불어 허심하게 토의하고 그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는 불피코 대중 운동의 뒤'고리를 따르게 되며 대중의 전진 운동을 저애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더욱 지지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한바 그를 위해서는 일부 지도 일'군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락후한 사상 요소들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방직 공장 당 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실정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사상 교양 사업과 당내 사상 투쟁을 통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 기업소와 생산 혁신자들이 달성한 성과들을 실질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그들의 낡은 경험주의와 주관주의를 극복하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 보자.

1956년 초에 오랜 직포공들이며 10대공들인 김 춘옥, 김 희영, 고 금순 동무들로부터 교대 본위주의를 극복하고 직기의 최대한의 리용률을 보장하기 위한 새 발기가 제기되였다. 그들은 각자의 작업 방법들에서의 특징적인 것——례하면 김 춘옥 동무의 바디 께기 방법, 김 희영 동무의 직물 검사 방법, 고 금순 동무의 북 교체 방법 등을 통일적으로 종합 연구하여 《3인조 작업 방법》을 창안했으며 호상 인계 인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년 1만 메터의 직물을 더 생산할 것을 발기하였었다. 그 후 《3인조 작업 방법》은 당 단체의 적극적인 지지 밑에 직포공들 속에 일반화되여 갔으며 《다기대 운동》으로 확대 발전되였다.

그러나 이 때 직포 직장의 일부 지도 일'군들은 《비록 평방이나 개성 직물에서는 우리와 직물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다기대 운동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 공장에서는 사정이 다르다》고 하면서 그 운동을 적극 추진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당 단체는 당 회의를 통해 그들의 낡은 경험주의의 해독성을 신랄하게 비판 폭로하는 한편 평양 방직 공장과 개성 직물 공장에 대한 견학을 조직하였다. 견학 행정에서 그들은 다른 품종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장과 같은 면직물을 생산하는 직기들에서의 10대공, 12대공들의 훌륭한 작업 방법을 목격하게 되였으며 따라서 자기들이 현실에 뒤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러한 결과 다기대 운동은 비로소 당 단체와 행정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더욱 발전되게 되였는바 그러한 결과 작년 말에 평균 담당 기대수가 4.15대이던 것이 금년 6월 말에는 5.2대로 장성되였으며 그리하여 절약된 로력으로 매주 1 교대 작업을 증가하여 28만 메터의 직물을 더 생산하게 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지도 일'군들의 낡은 사상 관점을 개조하고 사업 작풍을 개선하는 것은 대중의 창발적 적극성을 더욱 고무 추동하며 생산을 혁신시킬 수 있는 중요 고리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 작풍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군들의 사업 행정에서 나타나는 사상과 사업 방법의 종합적 표현》(김 일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며 인내성 있는 사상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당 위원회는 지도 일'군들의 군중에 대한 낡은 사상을 개조하며 관료주의적 및 주관주의적 사업 작풍을 극복하고 혁명적인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정확한 령도 방법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계

속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 ＊

대중의 창발적 적극성을 강력히 고무 추동하여 개별적 혁신 운동을 집단적 혁신 운동으로 전환시키며 제기된 새 발기들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로동자들의 문화—기술 수준을 제고시켜야 하며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새로운 사회 제도하에서 무한히 개화 발전하는 로동자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도 그것에 일정한 목적 지향성을 부여하며 선진 기술로써 안받침함이 없이는 당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생산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공장 실정으로 보아 당면하게 중요한 것은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공장 당 단체가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대중 속에 광범히 해석 침투시켰으며 로동자들의 문화—기술 수준 제고에 각별한 주의를 돌린 결과 로동자들의 평균 기능 급수는 작년 말에 4.8급이던 것이 현재에는 5.2급(양성공은 제외)으로 장성되였으며 로동자들 속에서의 창의 고안 및 발명 합리화 운동은 대중적 운동으로 확대되여 갔다. 즉 로동자들의 창의 고안이 1955년에는 불과 37건이 도입된 데 비하여 1957년에는 51건, 1958년 6월 말 현재로는 40건이 도입되였다. 물론 제기만 되고 채택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한다면 이를 수배로 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대중의 앙양된 창발적 적극성을 《절약하여 증산하자》는 우리 당의 당면한 구호를 관철하는 투쟁에로 집약적으로 조직 동원하며 제기된 새 발기들에 대한 기술적 방조를 강화함으로써 그 중 가치 있는 것들을 지체 없이 완성시켜 생산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기술 일'군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당의 이러한 요구가 항상 원만하게 관철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한 때 우리 공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즉 염색 직장의 조 종두 동무가 오랜 생산 경험에 의하여 새로운 염색 방법을 창안하였는데 이것이 기술 일'군들에 의하여 제때에 심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일반화를 위한 대책이 상당한 기간 지연되여 왔었다. 얼른 보기에 이는 기술 일'군들의 단순한 무책임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실제에 있어서 일부 일'군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곧 일부 기술 일'군들의 군중 관점이 확립되지 못한 데서 초래된 결과이라는 것을 실제 생활은 보여 주었다. 당시 적지 않은 기술 일'군들은 자기만을 높이 자처하면서 대중을 깔보고 있었으며 사무실 안에 들어 앉아 좀처럼 현장에 나가기조차 싫어하였었다. 그들은 항상 《기술》을 운운하면서도 로동자들의 창발적 제의에 대하여서는 《가치 없는 일》이라고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조성된 상태로부터 일보 전진하기 위하여서는 기술 일'군들의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당 위원회는 기술 일'군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비판과 호상 비판 사업을 통하여 낡은 사상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진지하게 전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일'군들로써 《합리화실》을 조직하게 하고 대중의 창발적 제기들을 기동성 있게 지지 발전시킬 대책을 강구케 하였다.

그러한 결과 조직된 《합리화실》은 대중 속에 창의 고안 및 발명 합리화 운동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서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옳게 고무 추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기된 새로운 발기들에 기초하여 설계 일'군들로 하여금 설계도를 작성케 하며 기사, 기수들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그들을 적극 방조하도록 함으로써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다음과 같은 실례가 그것을 실증하여 준다.

오랜 기간의 생산 경험에 의하여 낡은 일제식 직포기들에 위사 자동 교환 장치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로동자들로부터 제기되였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여 온 문제였으나 누구 하나 그를 해결하려고 사상적으로 동원되지 않았던 결과 오늘까지 묵인되여 왔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합리화실》이 자기 역할을 옳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달리 섰다. 즉 《합리화실》에서는 곧 설계 일'군인 오 금석 기수, 오랜 보전공들인 명 로걸, 문 성호, 보전 직공장 박 영근, 공무 직장장 김 만호 동무들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집체적으로 그를 연구할 과제를 주었다. 그러한 결과 그들은 《아. 떼.—100》 직기의 원리에 따라 마침내 일제의 낡은 직기들에 설치할 위사 자동 교환 장치를 창안했으며 이미 60대분을 제작 완료하였는데 이 장치를 설치한다면 현재의 절반 로력으로써도 능히 현재 이상의 생산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기술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 협조에 의하여 창발적 발기들이 생산에 도입된 실례는 허다하다. 서 윤택 기사가 유 유복 동무를 방조하여 고속도 정경기를 도입했으며 김 정애 기사가 고 영택 동무를 방조하여 체크스트라프 장치와 스텍기 밤바 장치들을 도입한 것도 그의 일례이다.

이와 같이 기술자들의 군중 관점을 확립함으로써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달성한 결과는 대중의 창발적 적극성을 고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다한 새 발기들을 생산에 도입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 ＊

로동자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제고시키며 새 발기들을 조장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부문별 당 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다. 부문별 당 단체들은 생산 현장에서 사업하면서 로동자들의 새 발기들을 발견 지지하며 그를 일반화하는 초소에 서 있다. 경험은 당 단체들이 로동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생산 사업과 정치 사업을 잘 결합시키고 있는 곳에서는 항상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며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락후와 침체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모든 부문별 당 단체가 한결같이 대중 속에서 사업하면서 대중의 새 발기들을 지지 발전시키도록 함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에 있어서 가치 있는 지도 방법의 하나는 선택된 개별적 단위에 대한 잘 준비된 지도 사업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지도 사업은 많은 지도 력량이 장기간에 걸쳐 개별적 단위를 지도하므로 쉽사리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킬 수 있으며 대중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할 수 있으며 모범을 창조하여 그를 다른 단위에까지 일반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공장 당 위원회는 후방 직장 당 단체에 대한 지도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도 행정에서 우리는 오래 전부터 직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생산 통계원 리 내덕이가 일부 견실치 못한 일'군들을 유인하여 가족주의를 형성하고 지도 일'군들과 로동자들 간에 리간을 조성시키고 있었으며 《다추 운동》에 궐기한 생산 혁신자들의 생산 성과를 의식적으로 삭감함으로써 대중의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오랜 기간을 두고 부문별 당 단체 사업들을 료해한 바에 의하면 이런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되 다른 당 단체들에도 적지 않게 존재하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당 위원회는 이러한 교훈에 립각하여 당내의 불순한 사상 요소들인 지방주의와 가족주의를 청산하며 부문별 당 단체들의 전투적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더욱 고무 추동할 일련의 조직적 대책을 강구하였다.

우선 공장 당 열성자 회의를 소집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제 1차 당 대표자회 결정을 토의하면서 후방 직장 당 단체의 쓰라린 교훈을 상기시켰으며 당내 사상 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며 당 정책에 대한 일치한 견해를 보장할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

시하였다. 그리하여 제 1차 당 대표자회 결정은 또 다시 부문별 당 단체들에서 광범히 토의되였으며 대중의 창발적 적극성을 저애하며 새 발기의 일반화를 억제하던 일체의 락후하고 보수적인 사상 요소들에 대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부문별 당 단체들의 전투적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원들의 사상 의지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면서 부문별 당 단체들의 사업 방법을 개선하며 당 단체 위원장들의 사업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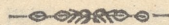
공장 당 위원회는 이미 다섯 차례에 걸친 각종 강습회와 경험 교환회들을 통하여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며 생산 사업과 경제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며 당 분조의 역할을 제고시키며 개별적 당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일련의 방법적 문제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당 분조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당적 지도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례를 들어 직포 직장 당 단체는 당 분조의 역할을 제고시킴으로써 생산을 혁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즉 제 5 당 분조에서는 당원들이 매 기대당 1시간에 4.2메터의 직물을 생산하기 위하여(이렇게 되면 직장적으로 하루에 3만 7천 메터를 돌파하여 증산 결의를 초과하게 된다) 《미착 시간 단축 운동》을 제기했을 때 그를 적극 지지하면서 이를 당원들의 토의에 부쳤으며 직맹반 총회를 통해 다른 반 위원회들에 호소하였다. 《미착 시간 단축 운동》은 집단적 혁신 운동의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당 분조는 그것을 더욱 고무 추동하기 위하여 직포공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강화하면서 《미착 시간 그라휘크》, 《기계 고장 그라휘크》들을 작성 게시하였다. 경쟁의 불'길은 더욱 대중적인 것으로 확대되여 생산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이것은 당 분조가 로동자들 속에서 자기의 응당한 조직자적 역할을 수행한 결과 달성된 성과이다. 모든 당 분조의 역할이 이렇게 제고된다면 우리의 성과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당 위원회는 당 단체 위원장들의 경험 교환회와 계속되는 하부 지도 사업을 통하여 그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대책을 꾸준히 강구하면서 있다.

*　　*

우리 구성 방직 공장에서는 금년 상반년도에 생산 총액적으로 국가 계획은 115.5%로, 증산 계획은 100.7%로 각각 초과 완수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사업이 모두 다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도 증산 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지 못하는 극히 엄중한 결함을 퇴치하지 못하고 있다.

구성 방직 공장 당 위원회는 이미 얻은 경험과 교훈들에 튼튼히 의거하여 지도를 더욱 하부에 접근시킴으로써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더욱 강력히 고무 추동하며 선진 로동자들의 우수한 사업 경험들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이미 채택한 증산 결의를 지표별로 완수 및 초과 완수하고야 말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조선 로동당 투쟁사 연구 자료

4월 남북 련석 회의와 그 력사적 의의

류　시　남

8. 15 해방 이후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1948년 4월 남북 련석 회의는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더우기 해방 1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통일 독립이 완수되지 못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4월 남북 련석 회의의 력사적 경험과 교훈은 남북의 혁명 력량의 결속 강화를 위한 투쟁을 고무해 주며 그 전술을 풍부화해 주고 있다.

그러면 력사적인 4월 남북 련석 회의는 어떤 정치적 환경에서 열리게 되였으며 어떤 사업들을 수행하였으며 어떤 력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4월 남북 련석 회의의 력사적 환경

간단히 말하면 이 회의는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이 남반부에서의 《단선 단정》의 기도에서 로골화됨으로써 우리 나라에 커다란 민족적 위기가 조성되였던 조건하에서 구국 대책의 하나로서 소집되였던 것이다.

우리 인민이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기반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영원한 행복에로의 길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인류의 해방자 쏘련이 모든 피압박 인민들에 대하여 취하는 립장으로도 되는 것이다. 쏘련은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하여 일제 통치의 기반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해방하였으며 해방된 우리 인민에게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방의 원조와 노력을 기울였으며 오늘도 계속 기울이고 있다.

해방 당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남조선에 미군이 진주하게 되였고 우리 인민이 일제하의 노예적 처지를 벗어난지 얼마 되지 않았던 해방 직후의 조건하에서 조선에 관한 모쓰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이 우리 인민의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책이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조선을 독립 국가로 부흥시키고 민주주의의 원칙하에서 발전하게 하며 장기간에 걸친 일제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신속히 청산할 목적으로 조선 민주주의 림시 정부를 수립하되 이는 쏘 미 량국 대표들의 공동 위원회에 의하여 실현될 것을 예견하였던 것이다.

우리 인민이 이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 환영하였으며 그의 실행을 위한 쏘 미 공동 위원회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한 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장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거기에는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대립되는 두 가지 방향이 투쟁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일찍부터 동방 침략의 발판으로서, 또 직접적 략탈의 대상으로서 기름진 조선의 땅덩어리를 강점하려는 야망에 차 있었던 것은 일찌기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다. 그들은 제 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 땅에 기여들 수 있었으니 그들이 상륙하는 순간부터 대전 당시의 국제 공약들을 유린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 노예화의 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의 제국주의적 본성은 대전 중에도 그러했거니와 대전의 종결과 함께 더욱 명백히 로출되였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강점자로 행세하면서 모쓰크바 3상 회의에서는 벌써 조선을 신탁 통치하에 있는 나라, 혹은 1차 대전후의 위임 통치국과 같은 나라로 전변시킬 것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기도는 쏘련의 정당한 주장 앞에서 좌절되였다.

미제는 비렬하게도 자기들이 방금 조인한 3상 회의 결정의 실행을 파탄시키는 길에 들어 섰다. 그

들은 쏘 미 공위 사업에서 비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자기의 주구들, 반동 분자, 민족 반역자들이 우세를 차지하는 정부를 수립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통일 정부도 수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철면피한 파괴 공작을 감행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쏘 미 공위 사업의 성과적 수행을 지지 성원하여 나서는 남조선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 단체들과 인민 대중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여 진보적 정당, 사회 단체들을 해산시켰으며 지하로 몰아 넣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연 및 파괴 책동으로 말미암아 쏘 미 공위 사업은 2년 동안이나 끌어 오다가 1947년 9월에 드디어 파탄되고 말았다.

쏘 미 공위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쏘련은 조선의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서 쏘 미 량국 군대가 조선으로부터 동시에 철거함으로써 외국의 간섭이나 참가 없이 조선 사람 자체로써 통일 정부를 수립하도록 맡기자고 미국에 제의하여 나섰다. 사실상 우리 인민은 해방후 2년 간의 혁명 행정에서 정치적으로 현저히 장성하였으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해결하기에 훌륭히 준비되어 있었다. 1947년 제 2차 유엔 총회에서 쏘련을 선두로 하는 형제 국가 대표단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 때에 와서는 《조선에 점령 정책을 계속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장차 정부 선거에 외국의 간섭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조선에서 외국 군대를 철거시킬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였다(김 일성 선집, 2권, 11—12페지, 1953년 판 참조).

3상 회의 결정 실행을 거부한 미제는 이 정당한 제의도 역시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북 조선의 분리를 영구화하며 남조선에 단독으로 자기들의 괴뢰 정부를 수립하려는 기도를 로골화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미제는 1947년 8월에 이미 쏘련 정부에 서한을 보내여 쏘 미 공위 대신에 련합국 4개국 회의를 열고 남북에 각각 특별한 림시 립법 기관을 창설하자고 제의한 바 있었다. 이것은 조선을 남북으로 영영 분리하자는 것이였다. 이는 물론 우리 인민과 쏘련 정부의 준렬한 반박을 받았다.

미제는 또 쏘 미 공위가 마지막으로 결렬(1947년 9월 26일)되기도 전인 1947년 9월 17일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법적으로 조선 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시킬 것을 제의하고 거수기들을 리용하여 이를 제 2차 유엔 총회 의정에 포함시켰다. 이는 악명 높은 《유엔 조선 위원단》을 조작하기 위한 전제였던 것이다. 소위 《유엔 위원단》은 그 감시하에서 남북 조선에서 선거를 실시하게 하며 《조선 정부》를 수립하게 하자는 것이였다. 미제의 이와 같은 시도는 유엔의 간판으로써 조선에 대한 자기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음페하면서 우리 나라 내정에 대한 공공연한 간섭하에서 소위 선거를 실시하고 자기의 주구들로써 《정부》를 구성케 하려는 목적을 추구한 것이였다. 따라서 《유엔 조선 위원단》은 우리 인민의 대표의 참가도 없이 미제의 강압적 책동으로 조작해 낸 그의 침략 도구에 불과하였다.

소위 《유엔 위원단》이 북조선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전체 남북 조선 인민들의 결정적인 배격을 받았다.

음흉한 미제는 여기에서 새로운 책동으로써 소위 《유엔 소총회》란 것을 개최하게 하고 이로 하여금 남조선만에서라도 단독 선거를 감행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케 하였다.

이와 같이 미제는 유엔을 리용하면서 우리 나라를 분렬시켜 남조선에 자기의 괴뢰 정부를 수립하며 조선 전국을 자기의 식민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정책을 로골적으로 실시하게 되였다. 미국의 허스트계 신문 《뉴욕 져널 앤드 아메리칸》지는 일찌기 미 국무성으로부터 입수한 권위 있는 보도를 근거로 하여 미국의 침략 계층이 조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의도를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었다: 《38선 이북에 놓여 있는 조선의 절반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획득하려는 기도에 있어서 미국의 후원을 받게 될 남조선 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라고(상동 19페지).

남조선에 괴뢰 단정을 수립하고 우리 조국을 자기의 식민지로 전변시키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는 미제 침략자들을 일방으로 하고 이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항쟁하는 우리 인민을 타방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는 아주 복잡하고도 첨예한 정치 정세가 조성되였다. 우리 인민은 엄중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이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길은 무엇이였으며 그를 위한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 힘은 우리 인민 자체 내부에서 찾아야 했으며 우리 인민 자체의 손으로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할 방도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였다.

우리 인민의 향도력이며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는 우리 당은 미 제국주의의 본질과 특히 우리

나라에 대한 그의 침략적 기도에 대한 과학적 타산으로부터 출발하여 반제 민족 해방의 완수를 해방후 우리 혁명의 기본 과업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북반부에서의 민주 기지 창설 강화와 전체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의 통일 전선 형성을 혁명 완수를 위한 전략적 방책으로 삼았다.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며 봉건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거대한 혁명인바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 자체의 사업인 것이다. 물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조선 문제에 관한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에 의거하여 민주주의 림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 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이라는 사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였다.

김 일성 동지는 1946년 신년사에서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을 공고히 결성하며 일제의 잔재를 철저히 숙청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며 세계 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결국에 가서 우리 조선 인민 자체에 의하여 해결될 것이다》(선집, 제 1권, 23페지, 1954년 판——방점 필자)라고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일찍부터 북반부를 혁명의 기지로 만들고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조건들을 다 리용하여 왔으며 남북 조선에서 혁명의 기본 력량인 로농동맹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일체의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을 그 주위에 결속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집행하여 왔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혁명 력량은 이미 훌륭히 장성되여 있었다.

쏘련은 이미 조선에서 량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의 통일 독립 문제를 조선 인민 자체에 맡길 때가 왔다고 인정하고 이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한편 미제는 3상 회의 결정 실행을 파탄시키고 조선으로부터의 량군 철퇴도 거부하고 남조선에 대한 단독 선거와 괴뢰 정부 수립의 기도를 로골화함으로써 그가 조선의 통일 독립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을 다시금 식민지화하며 우리 인민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전체 조선 인민 앞에 폭로하였다.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 단체들은 물론 전체 애국적 인민들이 미제의 침략 기도와 그 주구들의 매국 정책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김 일성 동지는 1948년 3월 9일 북조선 민전 중앙 위원회 제 25차 회의에서 진술한 자기의 보고 《남조선 반동적 단독 정부 선거를 반대하며 조선의 통일과 자주 독립을 위하여》에서 우리 인민 자체의 손으로 조국을 통일할 데 대한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을 명확히 천명하였다.

우리 당이 제기한 조국 통일 방침은 우리 나라에서 일체의 외국 군대가 철거하고 외부로부터의 하등의 간섭이 없는 조건하에서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 투표에 기초하여 최고 립법 기관을 전 조선적으로 선거하고 선거된 진정한 인민의 최고 립법 기관은 헌법을 채택하고 이 헌법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의 과업을 전 조선적으로 성과 있게 수행할 통일적인 민주주의적 중앙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 보고에서 조국 통일에 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천명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되는 투쟁의 당면한 과업으로서 남조선 망국 《단선》을 적극적으로 보이꼬트할 것을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김 일성 동지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념원하는 일체의 민주주의적 력량과 애국적 량심을 가진 인사들은 다 같이 미제의 《단선 단정》 음모를 분쇄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궐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당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방침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을 조직 동원하는 구체적인 투쟁 대책을 강구하였다.

당은 전체 조선 인민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의 혁명성을 제고하며 이미 달성한 투쟁의 성과를 고수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에로 일체의 혁명 력량을 더욱 강력히, 더욱 광범하게 조직 동원하기 위하여서는 해방 이후 북조선에서 실시한 제반 민주 개혁의 성과들과 조선 인민이 쟁취한 권리들을 법적으로 공고화하고 인민들의 투쟁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하여 주는 조선 림시 헌법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전 인민적 토의에 부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1948년 2월에 열린 북조선 인민 회의 제 4차 회의의 결정에 근거하여 1948년 2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사이에 걸쳐 조선 림시 헌법 초안에 대한 전 인민적 토의 사업이 고도로 앙양된 인민들의 정치적 열성 가운데서 남북 조선 전 지역에서 진행되였다.

림시 헌법 초안에 대한 전 인민적 토의 사업은 거대한 교양적, 조직적, 동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것은 인민 대중을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과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을 더욱 명확히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졌다.

전체 조선 인민들은 우리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집결하여 자체의 손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결정적으로 나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였다.

앙양되는 인민 대중의 혁명적 기세를 정확히 조직 동원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전제 조건으로서 남조선에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획책하고 있는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의 흉계를 분쇄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전체 조선 인민의 지향과 국제 공약을 유린하고 국토의 량단과 민족 분렬을 영구화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미제의 식민지 노예로 만들며 남조선을 멸망의 구렁에로 인도하며 결국에 가서는 동족상쟁의 내란을 도발하려는 흉책이였다.

여기에서 우리 당은 적들의 단독 선거 기도를 파탄시키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5. 10 단선》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보이꼬트 전술을 채택하였다.

1948년 3월 우리 당 제 2차 대회는, 전체 조선 인민이 소위 《유엔 소총회》 결정과 《유엔 조선 위원단》의 비호하에 감행되는 《단선 단정》 음모를 결정적으로 배격한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천명하였다.

이 보이꼬트 전술은 맑스—레닌주의 당의 전술 원칙에 립각하고 당시 우리 나라에 조성된 구체적인 정치 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수립된 가장 정당한 전술적 대책으로서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였다.

만일 우리 당이 침략적이며 반인민적인 《단독 선거》를 실현하게끔 방임하여 둔다면 미제 침략자들은 소위 유엔 기구 즉 《유엔 위원단》의 감시하에 수립된 남조선 괴뢰 정부를 통하여 조선에 대한 온갖 침략 행동을 합법화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남조선에 자기 군대를 영구 주둔시킬 구실을 주게 될 것이였다. 그렇게 되면 조국의 분렬이 장구화됨은 물론 남조선 인민들은 또 다시 노예의 운명에 빠지며 나아가서 미제의 대륙 침략 기도로 인한 내란 도발의 위험성이 조성될 것이였다.

그러나 우리 당이 제기한 《단독 선거》 보이꼬트가 승리한다면 그를 실현한 인민의 력량에 토대하여 통일적 인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이였다.

또한 우리 당의 《단독 선거》 보이꼬트 전술은 그 운동을 통해서 전체 인민들을 단결시키며 훈련하며 반동들을 인민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킴과 동시에 앞으로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을 계속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였다.

당의 《단독 선거》 보이꼬트 전술은 그를 실현할 수 있는 남북 조선의 계급적 력량 관계를 옳게 타산한 기초 우에서 채택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것이 대체로 1948년 4월 남북 련석 회의 전후의 환경이였다.

4월 남북 련석 회의의 사업

《5. 10 단선》을 반대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필수적 전제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의 단결이며 행동 통일이였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은 《단선 단정》을 반대하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념원하는 남북 조선 전체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과 애국적 인사들의 련석 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1948년 3월 25일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 중앙 위원회 제 26차 회의는 우리 당의 발기로써 남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들에게 조국 통일, 단선 반대 문제 등을 토의하기 위한 대표자 련석 회의 소집을 제의하였다.

이 때에 박 헌영, 리 승엽 간첩 종파 도당은 계속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우익 정당들은 물론 수다한 중간 정당들까지도 배척하면서 남북 련석 회의 소집에 대한 준비 사업을 고의적으로 태공함으로써 남북 조선에서의 일체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의 행동 통일을 저애하고 당의 조국 통일 방침의 실현을 파탄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당 중앙 위원회는 박 헌영, 리 승엽 도당의 태공 행동을 분쇄하고 련석 회의 소집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과 그 의의를 대중 속에 침투시켜 그 준비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북조선 민전의 명의로 제기된 련석 회의 소집 문제는 남반부의 제 정당, 사회 단체들과 애국적 인사들 사이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련석 회의 소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남조선 민전 산하 각 정당, 사회 단체들은 물론, 중간 정당들도 이를 적극 지지 환영하고 나섰으며 민족적 량심을 버리지 않은 일부 우익 정당들까지 련석 회의에 참가할 데 대한 의사를 표명하여 나섰다. 이 때에

김 구, 김 규식 등 인사들은 이에 대하여 《민족적 서광이며 성공을 확신한다》고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리하여 전체 인민의 환호 속에 남조선의 애국적 정당, 사회 단체들은 일치하게 련석 회의 소집을 호응 지지하여 나섰으며 전체 남북 조선의 애국적 인민들의 이목은 이 문제에 집중되였다.

다만 리 승만, 김 성수 등 극소수의 민족 반역자들만이 이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발악하였다.

이리하여 조국의 남반부를 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시도가 로골화되고 조국의 분렬이 장구화될 위험이 닥쳐 오고 있는 환경하에서 력사적인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의 련석 회의는 1948년 4월 20일에 평양에서 소집되였다.

회의에는 미제의 《단선 단정》을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념원하는 남북 조선의 56개 정당, 사회 단체 대표 545명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전체 조선 인민의 각계 각층을 대표하였는바 민전 산하 각 정당, 사회 단체들은 물론 남조선의 중간층 제 정당, 사회 단체들과 지어는 일부 우익 정당의 대표들까지도 참가하였다.

이는 우리 조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남북 조선의 제 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우리 혁명의 기본 과업인 조국의 통일 독립 문제를 토의하게 되였다는 거기에 거대한 정치적 의의를 가진 회의였다.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치 정세에 대한 보고를 진술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의 보고에서 해방후 두 로선을 걸은 남북 조선을 대비하고 북조선 민주 건설의 제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조성된 정치 정세하에서 조선 인민 앞에 나서는 최대의 정치적 과업은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반인민적인 망국 단선을 보이꼬트함으로써 이를 파탄시키고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통일적인 중앙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김 일성 동지는 조선 인민 앞에 나선 이 당면한 정치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당별, 종교별, 정치적 견해의 여하를 불문하고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조선의 일체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을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시키는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급하고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단결된 력량을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기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끝으로 만일 현 정세하에서 인민의 지도자들이 구국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 조선 인민들과 후손들에게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은 각이한 정견에도 불구하고 일치하게 김 일성 동지의 보고를 지지 찬동하였다.

그리하여 회의는 우리 당의 령도하에 전체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의 단결을 시위하면서 《조선 정치 정세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결정서에서, 전 조선의 민주주의적 애국적 제 정당, 사회 단체들은, 북조선의 민주 개혁과 민주 건설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조선에서 달성된 민주 건설의 제 성과가 민주주의적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의 확고한 토대로 되기 때문에 이에 기초하여 조국 통일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동시에 결정서에서는 조선 문제에 대한 유엔 결정의 비법성과 미제의 단독 선거 음모의 침략성과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에 의한 남조선의 참담한 파괴상을 폭로 규탄하면서 남조선에서의 망국적 5.10 단선을 보이꼬트하며, 일체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 인민 자체의 힘으로 통일적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결정에 근거하여 회의에서는 《단선 반대 전국 투쟁 위원회》를 조직하고 그의 통일적인 지도하에서 련석 회의에 참가한 모든 정당, 사회 단체가 《5. 10 단선》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행동 통일을 기할 것을 결정하였다.

뒤이어 회의에서는 《조선 동포들에게》라는 격문을 채택 발표하였다.

이 련석 회의에 뒤이어 4월 30일에는 이에 참가한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 협의회가 소집되였다. 협의회에서는 구국 대책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였다.

이 공동 성명서에는:

첫째로 쏘련이 제의한 량군 동시 철거는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정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미국도 반드시 이를 실천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둘째로 국토 완정과 민족적 통일을 달성하려는 인민들의 불굴의 지망이 성숙되였으며 남북 조선의 애국적 민주 력량의 통일 단결이 확고히 형성된 조건하에서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철거한 후 어떠한 무질서나 내란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담보하였으며,

세째로 외국 군대가 철거한 후 전 조선 정치 회의

를 소집하고 각계 각층을 망라한 민주주의 림시 정부를 수립하며, 수립된 정부는 그의 첫 과업으로서 민주 선거에 기초한 통일적 조선 립법 기관을 선거하며 선거된 립법 기관은 헌법을 제정하고 통일적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네째로 천 여 만명 이상의 군중을 망라한 남북 조선의 제 정당, 사회 단체가 단독 선거를 반대하느니만큼 남조선 단독 선거는 설혹 실시된다 하여도 절대로 우리 민족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것이며 다만 기만에 불과한 것으로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로써 수립하려는 어떠한 단독 정부든지 조선 인민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성명하였다.

4월 남북 련석 회의의 력사적 의의

4월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 련석 회의는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있어서 거대한 정치적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의 하나로 되였다.

4월 련석 회의에 참가하였던 천 여 만명의 당원, 맹원들을 망라한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들은 회의의 결의에 충실하게 일치한 통일적 행동으로써 5. 10 망국 단선을 보이꼬트하였으며 전체 조선 인민은 거족적으로 이에 반항하였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오직 남조선에 주둔하는 미군력을 직접 리용하며 괴뢰 경찰들과 그리고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주구인 온갖 테로단들, 폭도들을 동원함으로써 폭압과 날조로써만 소위 선거를 강행하였다. 망국적 단독 선거에 참가한 자들은 한줌도 못 되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 뿐이였으며 무력과 폭력의 강압에 의하여 마지 못해 선거장으로 몰려 나온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였다.

이것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커다란 정치적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였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 당의 민주주의적 조국 통일 방책과 망국적 단선 단정 반대 투쟁의 방침 및 4월 남북 련석 회의의 빛나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였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4월 남북 련석 회의는 우리 조국이 일제 통치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고 남북 조선이 38 경계선으로써 분리된 이후 최초로 되는 전체 애국적 정당, 사회 단체들의 회합이였다.

그러니만큼 이 회의는 우선 조국의 통일 독립이라는 정의의 민족적 위업 달성을 위하여 애국적 력량이 결합하는 데는 첫째로 남북을 갈라 놓는 어떠한 장벽도 장애로 될 수 없으며 다음으로 어떠한 정견, 신앙의 차이도 장애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지로 그리고 처음으로 보여 주었다는 그 점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오늘 미제 침략 군대가 남조선으로부터 철퇴하지 않음으로 하여 우리 조국은 아직 남북으로 량단되여 있다. 그러나 4월 남북 련석 회의의 력사적 교훈은 오늘날에도 남북 조선의 애국적 혁명 력량은 남북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능히 한자리에 모여 앉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조국의 통일 독립이라는 목적과 리해의 공통성이 있는 이상 정견이나 신앙의 차이 등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4월 남북 련석 회의는 우리 당의 민족 통일 전선 정책의 하나의 빛나는 승리로서 그의 정당성을 실증해 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절대 다수의 주민층과 그들을 대표하는 정당, 사회 단체들은 미제와 리 승만 매국 도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두다 불상용적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과 계속 발전에 공통된 리해와 념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우리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은 이 모든 조건들을 정당하게 타산하고 평가하며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각계 각층 인민들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결속시키려 한다. 4월 남북 련석 회의에서는 우리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였다. 회의의 성공은 민족 통일 전선에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의 정당성을 보여 주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당의 령도하에 민주주의적 애국적 력량의 통일 단결을 가일층 확대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통일 전선 정책의 승리는 곧 혁명의 승리로 되리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4월 남북 련석 회의는 조국의 민주주의적 평화적 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방책의 정당성이 실증되였다는 거기에 또한 중대한 의의가 있다. 민족 반역자들의 집단을 제외한 전체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회의에서는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로선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단선 단정》 반대 결의는 견결히 집행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민주주의적 평화적 통일 로선이 가장 광범한 인민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된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 련석 회의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 외에는 각계 각층을 망라한 전 조선 인민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반대하여 그들이 날조하여 낸 민족 분렬 정책인 남조선 망국적 선거를 반대하여 궐기한다는 것을 보이여 주었다》(선집, 제 2권, 1954년 판, 160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4월 남북 련석 회의의 력사적 의의는 그 결과로서 우리 나라의 정치적 력량 배치에 중대한 변동을 발생시킨 그 점에도 있는 것이다. 즉 승리적인 이 회의를 계기로 하여 우리 당이 령도하는 민주 진영은 좌익 정당, 사회 단체들 뿐만 아니라 중간 및 일부 우익 정당들까지도 망라하여 결정적 우세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전체 인민은 승리의 신심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반면에 우익 세력 내부에서는 분렬이 일어났으며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남조선에 대한 예속화—매국 정책은 치명적 타격을 받고 그들은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게 되였다. 그들은 더욱더 무력과 폭압에 의거함으로써만 남조선에 더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였다.

그러면 4월 남북 련석 회의의 이와 같은 승리는 무엇으로써 설명되는가? 그것은 결코 우연한 승리일 수는 없는 것이다. 회의가 빛나는 성과를 거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정치 로선 특히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족 통일 전선에 대한 로선이 정당하고 각계 각층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기 때문이였으며 또 우리 당의 령도하에 북반부 민주 기지에서 이룩된 물질적 성과들과 정치적 통일이 확고하고 우리 당의 령도가 인민을 행복에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확실히 보여 주었기 때문이였으며 또 그것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예속화—매국 정책이 인민 대중 앞에 여지 없이 폭로되였기 때문이였다.

* *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유엔 조선 위원단》의 간판 밑에 학살, 테로로써 날조한 《선거》를 통하여 매국적인 남조선 괴뢰 《국회》를 조작하고 괴뢰 《정부》를 조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민족 분렬의 위기는 더욱 강화되였다. 여기에서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리 승만 괴뢰 정권을 분쇄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으로서 전 조선적으로 되는 최고 인민 회의 선거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적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전체 혁명 력량을 동원하는 데로 넘어 갔다.

오늘 우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력사적인 구국 대책 즉 남북 조선을 통한 최고 인민 회의 선거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의 진정한 조국이며 행복의 상징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창건되였다.

꼰쑬따찌야

사회의 물질적 생활 제 조건

리 형 우

맑스—레닌주의 철학적 유물론은 물질의 1차성과 의식의 2차성에 관한 명제를 사회 생활 령역에까지 확장하여 사회적 존재의 1차성과 사회적 의식의 2차성을 주장한다.

사회의 물질적 생활이 1차적이고 사회의 정신적 생활이 2차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맑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물질적 생활의 생산 방식은 사회적, 정치적 및 정신적 생활 과정 일반을 제약한다.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 (맑스, 엥겔스 저작 선집, 제 1권, 2분책,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4페지).

사회의 물질적 생활이 사회의 정신적 생활을 규정한다는 명제는 사회 사상, 리론, 정치적 견해 및 그 기관 등이 사회의 물질적 생활 제 조건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력사적 유물론은 사회의 물질적 생활 제 조건의 해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의 물질적 제 조건이란 무엇이며 사회 력사 발전에 있어서 그것의 의의 및 특징은 어떠한 것인가?

사회의 물질적 생활 제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1)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즉 지리적 환경, 2) 인구의 장성과 그 밀도의 대소, 3) 물질적 부의 생산 방식.

1 지리적 환경

지리적 환경이란 곧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인바 여기에는 기후, 토지, 지세, 지하 자원, 강하, 호수, 해양 등등이 포괄된다.

지리적 환경은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필수적이며 항구적인 조건중의 하나로서 사회 발전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을 준다. 왜냐 하면 지리적 환경은 물질적 부의 생산 과정의 자연적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산 활동은 지리적 환경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맑스는 인간의 로동을 《인간과 자연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인간이 그 자신의 활동에 의하여 인간과 자연간의 물질 대사를 중개하며 조절하며 통제하는 과정이다》 (《자본론》, 제 1권, 1분책, 조선문 판, 251페지)라고 하였다.

지리적 환경은 사회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생산의 면모를 규정함에 있어 커다란 의의를 가졌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직 자연을 정복함에 있어서 미약하였기 때문이였다. 그리하여, 례컨대 농업 생산이 아직 사회적 분업으로 발생하기 전까지에는 사람들은 주로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해 준 조건 그대로에서 야생 식물(食物) 채취와 수렵 등에만 의존하여 살 수 밖에 없었다.

사회 생활의 이와 같은 자연적 조건은 그것이 사회 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노는가에 따라서 다음의 두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생존 수단의 자연적 부 즉 비옥한 토지, 수중의 풍부한 어류, 삼림중의 조류(鳥類) 및 기타.

둘째로 로동 수단의 원천으로서의 자연적

부 즉 폭포, 강하, 수목, 금속, 석탄, 석유 및 기타.

생산력 발전의 낮은 단계에서는 첫째 형태가 사회적 생산에서 보다 큰 의의를 가지며 높은 단계에서는 둘째 형태가 보다 큰 의의를 가진다.

원시 사회에서는 생산력 발전의 저급성으로 말미암아 폭포, 강하, 금속 등이 사회적 생산에서 그리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다. 례컨대 우리 나라의 압록강의 물은 수천 수만년 동안 사람들에게 그리 크게 리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생산력이 발전되고 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현대에 이르러 압록강의 물은 거대한 동력 자원의 원천으로 되였다. 또한 우리 나라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여 있는 지하 자원도 현대에 이르러 비로소 보다 광범히 개발 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 환경은 생산력의 발전 정도에 따라 사회적 생산에서 노는 의의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리적 환경이 사회 발전을 위하여 보다 유리하며 덜 유리한가, 또는 불리한가 하는 문제는 구체적 력사적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 발전을 위하여 유리한 지리적 조건은 생산의 자연적 조건이 가장 다양하고, 가장 많이 분화된 지역이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사회적 분업의 자연적 기초를 이루며, 인류가 살고 있는 자연적 조건들의 변화에 의하여 인류에게 자극을 주어 그 자체의 욕망, 능력, 로동 수단 및 로동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토지의 절대적 비옥도가 아니라 토지의 분화이며 토지의 자연적 산물의 다양성이다》 (칼 맑스, 《자본론》, 제 1권 1분책, 조선문 판, 191페지). 이러한 유리한 지리적 조건은 사회 발전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일정한 긍정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지리적 환경의 유리성 여부가 사회 발전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결정적 힘으로는 되지 못한다. 이 점은 력사적 유물론의 기본 관점의 하나이며 온갖 지리학적 류파의 견해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지리학적 류파는 지리적 환경 여하가 사회 발전을 좌우한다고 주장한다. 례컨대 18세기 불란서 사회학자 몽떼스큐는 기후적 조건이 인간의 성격을 규정하며 사회 정치 제도를 규정한다고 하였으며 19세기 중엽 영국의 사회학자 버클레는 기후 뿐만 아니라 토지의 특질, 식물 및 주위 자연의 일반적 풍경도 사회 정치 제도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들은 전연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들로부터는 동일한 나라에서 동일한 시기에 상이한 사상을 가진 대립된 계급들이 왜 존재하며, 상이한 사회 제도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대답을 줄 수 없다. 례컨대 동일한 지리적 조건에 놓여 있는 우리 조국의 남북 땅을 놓고 보더라도 북반부에서는 착취 계급들이 청산되고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수립되였으나 이와 반면에 남반부에서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가 존속되고 있으며 미제 침략자들과 리 승만 도당을 일방으로 하고 광범한 근로 인민 대중을 타방으로 하는 민족적 계급적 대립이 심하다.

이 사실은 지리적 환경이 사회 제도나 계급들의 면모를 규정하는 결정적 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현대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사회 발전에서 지리적 환경이 노는 의의를 외곡 과장하면서 극악한 반동 리론인 《지정학》을 제창하고 있다. 《지정학》은 지리학적 류파의 견해와 인종론적 견해와의 혼혈물이다. 《지정학》은 마치도 지리적 환경에 의하여 《인종적 우월성》이 규정된다고 하면서 지리적 환경의 그러한 《배려》를 받는 《고등 인종》에게 《세계 지배》의 《자연적 권한》이 부여되며 《생활 공간》을 요구할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은 제국주의 침략적 이데올로기의 하나로서 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 략탈 정책을 공공연히 옹호하고 있다.

과거 히틀러는 《지정학적 리론》으로써 《독

일 민족을 위한 생활 공간》을 요구하여 다른 나라 인민들, 누구보다도 먼저 쏘련 인민들을 노예화하려고 하였고 세계 제패를 위한 자기의 침략적 행동을 합리화하려 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대동아 공영권》을 떠벌리면서 조선 인민을 비롯한 아세아 인민들을 노예화하려고 하였는바 그들의 《대동아 공영권》의 사상도 바로 《지정학》에 의하여 안받침되고 있었다.

오늘날 미 제국주의자들은 역시 《지정학적 리론》으로써 자기들의 침략적 행동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미제는 오늘 지구의 서반구뿐만 아니라 동반구까지도 자기들의 《생활 공간》이라고 떠벌리면서 세계 도처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며 약소 국가 인민들을 무력으로 위협하며 그 나라의 민족 경제와 민족적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부르죠아 반동 리론과는 반대로 력사적 유물론은 사회 발전에 있어서 지리적 환경이 노는 역할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고 있다.

지리적 환경은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제 조건중의 필수적이며 항구적인 조건의 하나이다. 지리적 환경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보다 완만하며 지지하다. 지리적 환경의 변화가 다소라도 현저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백만년을 요한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사회 제도의 변화는 다만 몇 백년 혹은 수십년 간에도 수행된다. 례컨대 해방후 10여 년 동안 우리 나라의 지리적 환경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화국 북반부는 이미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부터 사회주의 락원으로 전변되고 있다.

3천 년 동안에 서구라파에서는 원시 공동체 제도, 노예 제도, 봉건 제도를 거쳐서 자본주의 제도가 확립되였다면 구라파 동부인 쏘련에서는 한 제도 앞선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되였다. 그러나 그 기간에 구라파의 지리적 조건은 전연 또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지리적 환경이 사회 발전의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어찌 수만년 동안에도 거의 불변한채로 남아 있는 지리적 환경이 수백년 동안에도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 발전의 결정적 요인으로 될 수 있겠는가.

지리학적 류파의 다른 사회학자들은 지리적 환경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 반작용을 부인하면서 인간 사회는 오직 지리적 환경의 작용을 받을 뿐인 수동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력사적 유물론은, 사회는 자연에 대하여 인간의 실천적 활동을 통하여 개조적인 적극적 반작용을 놀며(이는 생산력 발전과 더불어 더욱더 강화된다) 동시에 이러한 활동 가운데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도 일정한 영향을 받는다고 간주한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단순하게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통하여 부단히 자연을 자기들의 욕구에 적응시킨다. 원시인들도 강이나 호수를 어로장이나 음료수의 원천지로 리용하였다. 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 강하는 수상 운수, 수력 자원, 관개용수의 원천으로 리용되게 되였다. 또 이러한 실천 가운데서 사람들은 항해술과 선박 건조 기술, 전기 기술, 관개 기술 등을 습득하게 되였다.

지리적 환경에 대한 사회의 작용 범위와 성격은 사회의 생산력 발전 수준 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의 성격 여하에 따라 다르다. 특히 사회주의 사회의 조건하에서는 지리적 환경에 대한 사회의 반작용의 범위는 고도로 제고된다. 례컨대 우리 당과 정부의 옳바른 정책에 의하여 완성된 평남 관개 공사를 비롯한 대규모적 자연 개조 사업은 일제 통치하에서나 현 남조선과 같은 반동 통치 제도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안주 관개》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였으며 완공할 수도 없었다. 오늘날 남조선에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새로운 관개 시설은 고사하고 기존 관개 시설마저도 옳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오직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근절된 우리 나라와 같은 사회주의적 조건하에서만 전면적인 자연 개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리적 환경은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필수적이며 항구적인 조건의 하나이고 사회 발전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을 주기는 하나 사회 발전의 결정적 힘으로는 되지 못한다.

2 인구의 장성, 그 밀도의 대소

인구의 장성과 그 밀도의 대소는 지리적 환경과 함께 사회의 물질적 생활 제 조건의 하나이다. 왜냐 하면 인간은 사회의 물질적 생활 제 조건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일정한 수효의 인간이 없이는 사회의 어떠한 물질적 부의 생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의 장성과 그 밀도의 대소도 사회 발전을 결정하는 주되는 힘으로 되지 못한다.

사회적 생산이 인간 없이는 수행되지 못하는만큼 인구의 장성이 의심할 바 없이 사회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즉 인구의 장성과 그 밀도의 대소는 사회의 구체적, 력사적 제 조건에 따라 경제 발전을 촉진 혹은 지연시킬 수 있다. 사회 생활의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새로운 토지를 점유할 가능성이나 생산력 발전의 속도는 어느 정도 인구 밀도의 대소와 인구 장성의 속도에 의존한다.

그러나 인구의 장성이 사회 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놀지 못한다. 왜냐 하면 인구의 장성 그 자체로서는 사회의 구조를 설명할 수 없으며, 왜 봉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에로 교체되였으며, 왜 자본주의 사회의 뒤를 이어 사회주의 사회가 발생하는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인구의 장성이 사회 발전의 결정적 힘이라면 보다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다 높은 형의 사회 제도가 수립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이렇지 못하다. 일본의 인구 밀도는 쏘련의 인구 밀도보다 높으나 사회 발전의 견지로 볼 때는 쏘련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구의 장성과 그 밀도의 대소는 사회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나 사회 발전을 결정하는 주되는 힘으로는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죠아 사회학자들은 인구의 장성과 그 밀도의 대소가 사회 발전의 결정적 힘으로 되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19세기 영국 부르죠아 사회학자 스펜써와 같은 자들은 인구의 증가를 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근본 원인으로 보았으며 말사스와 같은 자들은 인구의 증가를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힘으로 간주하였다.

말사스는 자기의 저서 《인구 법칙에 관한 시론》에서 생존 수단 생산의 장성은 산수 급수적으로 진행되나 인구의 장성은 기하 급수적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연적이며 영원한 법칙이라고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자본주의하에서의 근로자들의 빈궁은 불가피적 현상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빈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과잉 인구》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즉 근로자들을 굶어 죽이며 결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말사스는 근로자들의 빈궁의 근원이 자본주의적 착취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의 증가에 있다고 보았다.

말사스 《인구론》의 반동성은 이미 맑스주의 창시자들에 의하여 여지 없이 폭로 비판되였으며 또한 실생활에 의해서도 분쇄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경제 발전 템포는 인구의 장성 속도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총생산액은 2.8배로 장성되였는바 이것은 전전 수준을 2배로 릉가하였다. 더우기 제 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생산액은 1956년에 비하여 44%나 더 장성하였다. 알곡 생산에 있어서도 1957년도에는 320만 톤에 달하였는바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최고 수확 년도였던 1956년도에 비하여 111.4%, 해방전 1944년도에 비해서는 132%에 달하는 획기적인 장성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의 인구의 장성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그것에 비해서는 높은 비률을 보여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템포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실업과 기아와 빈궁의 근원이 결코 인구의 장성이나 인구의 밀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 사회의 착취 제도 자체의 모순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 부르조아 사상가들은 말사스의 반동 리론이 오래전에 론박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층 철면피한 형태로 발전시키면서 계속 자기들의 침략적인 전쟁 정책을 합리화하는 데 리용하고 있다. 미국의 말사스주의자인 펜델은 1951년에 발표한 《인구의 무제한한 장성》이라는 자기의 저서에서 인구의 《무제한한 장성》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식물(食物) 획득을 위한 인간들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현 인구중 약 7억의 인구를 강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떠벌림으로써 미국 전쟁 상인들의 호전 정책에 《리론적》 안받침을 주고 있다.

오늘날의 말사스주의자들은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승냥이》라는 비인간적이며 야수적인 구호를 내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인구의 《과잉》 현상은 그 사회의 모순을 철폐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근절될 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인구의 장성이 곧 사회주의 건설자 대렬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잉》 인구란 존재할 수 없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에게 로동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이것은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때문에 력사적 유물론은 인구의 장성과 그 밀도의 대소는 사회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사회의 물질적 생활 제 조건중의 하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은 소여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 힘은 아니라고 간주한다.

그러면 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힘은 무엇인가?

3 물질적 부의 생산 방식은 사회 발전의 결정적 힘이다

력사적 유물론은, 사회 발전의 결정적 힘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생활 수단을 획득하는 물질적 부의 생산 방식이라고 가르친다.

사람들은 정치적 및 정신적 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우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은 자연을 개조하는 생산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생산을 중지한다면 굶어 죽게 될 것이며 사회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첫 행위는 필연적으로 자연을 개조하는 생산적 활동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물질적 부의 생산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이며 사회의 생활적 기초를 이룬다.

맑스가 말한 바와 같이 생산은 인간의 항구적인 생존 조건이며 그것 없이는 인간과 자연간의 물질 대사가 불가능하다.

생산 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1) 인간의 합목적적인 활동 즉 로동 그 자체, 2) 로동 대상, 3) 로동 수단.

로동 대상이란 인간의 로동이 가해지는 일체의 대상을 의미한다. 로동 대상에는 자연계에 있는 그대로의 물체들, 례하면 산림에서 채벌되는 목재, 광산에서 채굴되는 광석들과 같은 것도 있으며 또는 일정한 로동이 가해진 물체, 례하면 야금 공장에 운반된 광석, 직물 공장에서 사용되는 면사같은 것들도 있다. 이미 일정한 로동이 가해진 로동 대상을 원료라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원료는 로동 대상이지만 모든 로동 대상이 곧 원료는 아니다.

로동 수단이란 인간이 자기의 로동 대상에 작용하여 그것을 변경시키는 데 쓰는 모든 물건이다. 례컨대 공장에 설비된 수다한 기계, 건물 및 기타 시설 등은 로동 수단이다. 로동 수단은 1) 생산의 골격 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 기계적 로동 수단, 2) 생산의 맥관 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 례컨대 통, 바구니, 독 등과 같은 것들, 3) 직접 인간 로동의 작용을 로동 대상에 전하여 주는 것은 아니지만 로동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아니될 모든 물질적 조건들 례하면 로동 장소의 기초로 되는 토지, 공장 건물, 도로 등등이 이에 속한다.

이상 지적한 로동 수단의 세 가지 중에서 로동의 기계적 수단과 맥관적 수단은 생산 도구를 이루는바 이것은 생산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결정적 역할을 논다. 왜냐 하면 생산 도구의 성질, 그 발전 정도에 따라 부수적인 로동 수단들 및 시설들의 성격도 달라지며 인간 로동의 방식, 생산 조직의 총면모가 변화되기 때문이다.

력사적으로 로동 수단의 발전 정도, 우선 생산 도구의 발전과 사용 정도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의 정도, 인간 사회 발전의 전반적 수준을 규정하여 주는 지표로 된다. 그리하여 맑스가 말한 바와 같이 경제적 시대는 무엇을 생산하는가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부를 어떻게, 어떤 생산 도구를 가지고서 생산하는가에 의해서 구별된다.

로동 대상과 로동 수단은 생산 수단을 이룬다. 생산 수단은 그 자체로서는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그것은 로동력과 결합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물질적 부의 생산 과정이 시작될 수 있기 위해서는 로동력이 생산 수단과 결합되여야 한다.

로동력이란 사람이 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사람은 생산 수단과 접촉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 기관 즉 팔, 다리, 손 등을 움직이며 머리를 쓴다. 이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의 총체는 인간의 로동력을 형성한다.

생산 과정에서 로동력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생산 수단이 로동력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수단에 불과하다. 로동 과정에 쓰이지 않는 기계는 아무런 리익도 가져 오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연적 물질 대사의 파괴적 작용을 받는다. 철은 녹쓸며 재목은 썩는다.

그러므로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산 로동은 이 물건들을 붙잡아 그것들을 죽엄으로부터 소생시키며 그것들을 단순한 기능적인 사용 가치로부터 현실적인, 작용하는 사용 가치에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맑스, 《자본론》, 제 1권, 1분책, 1955년,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259—260페지).

이렇게 생산은 생산 수단이 인간의 로동력과 결합됨으로써만 이루어진다——로동력과 생산 수단은 생산에 있어서 불가결한 물질적 요인인바 여기에서 생산 도구를 운전하며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인간이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는 것은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로동력과 생산 수단의 유기적 결합은 생산력을 이룬다. 그런데 간혹 경제적 시대는 무엇을 생산하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어떠한 생산 도구로서 생산하는가에 따라서 구별된다고 하는 명제로부터 로동 대상을 생산력의 내용으로부터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그릇된 견해이다. 맑스는 생산 도구를 생산 발전에 있어서의 규정적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인간이 생산력의 주요한 요소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로동 대상도 생산력의 중요한 한개 요소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생산력의 요소 가운데서 로동 대상을 배제할 하등의 근거도 없다. 오히려 총체적으로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로동 대상의 의의는 더욱 증대된다. 생산의 전기화, 화학화 및 원자 에네르기의 위대한 역할은 로동 대상의 의의의 증대를 보여 준다.

생산력은 로동력과 생산 수단의 구체적—력사적 총체인바 여기에서 로동력은 주관적 요인이며 생산 수단은 객관적 요인이다. 이 경우에 생산력은 이것들의 기계적인 총체가 아니라 호상 내'적으로 련계되여 있는 유기적인 총체이다.

그런데 생산력은 생산의 한개 측면을 이룰 뿐이다. 이는 자기 발전 수준에 적응하는 자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단독적으로 생산할 수 없

다. 어떤 사회에서든지 생산은 사회적 생산으로 된다. 사람들은 생산 과정에서 자연에 대하여 일정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들 호상간에도 일정한 관계를 맺게 된다. 바로 자연에 대한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여 주는 것이 생산력이라면 생산 과정에서 사람들 호상간에 맺어지는 관계를 생산 관계라고 한다.

생산력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적극적 관계, 자연에 대한 그의 정복 정도를 표현하며 동시에 사회적 관계의 형식과 성격을 규정한다.

생산 관계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 즉 1)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 2) 이로부터 나오는 생산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지위 및 각종 사회적 집단의 상태와 그들간의 호상 관계, 3)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와 생산에서의 인간들의 지위에 의존하는 생산물의 분배 관계 등이 그것이다.

매개 사회에서의 생산 관계는 생산에 참가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의 복잡한 련쇄를 이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례를 들어 본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 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와 이에 기초한 자본가들에 의한 로동자들의 착취의 관계가 있다. 이 관계에는 또한 각종 생산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도 들어 가며, 도시와 농촌간의 분업, 자본주의적 도시에 의한 농촌의 착취, 복잡한 매매 관계, 자본주의적 경쟁 등도 들어 간다. 이 모든 관계들은 서로 련계되여 있으며 호상 제약하고 있다.

사회 생활을 리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복잡한 생산 관계의 체계에서 그의 기본으로 되는 관계를 갈라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그 자체가 생산 관계의 한 측면을 이루고 있으며 동시에 생산 관계의 이여의 측면들에 대해서 규정적 역할을 논다.

생산 관계에서 주되는 것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람들의 소유 관계이다. 만일 생산력의 상태가 인간이 자연을 어느 정도까지 정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해답을 준다면 생산 관계의 상태는 생산 수단이 누구의 소유로 되여 있는가, 즉 이것이 사회 전체의 소유하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개인, 다른 집단, 다른 계급에 대한 착취를 위해서 그것을 리용하는 그러한 어떤 개인, 집단, 계급의 소유하에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답을 준다.

그런데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는 결코 단순히 사람들의 물건에 대한 관계가 아니다. 이것은 물건을 통해서 즉 생산 수단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표현되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이다. 그러므로 생산 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계급(례컨대 자본가, 지주)은 생산 수단을 전혀 소유하지 못했거나 부분적으로만 소유한 사람들(례컨대 프로레타리아트, 농민)을 지배한다. 자본가들의 공장에서 자본가와 로동자 간의 관계는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이며 지배와 복종의 관계이다.

생산 관계는 사람들의 의지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물질적 관계이다. 그러나 반맑스주의자들은 생산 관계를 심리적, 정신적 관계와 동일시하며 사회적 존재를 사회적 의식과 동일시한다. 즉 그들은 인간이 의식적 존재이며 생산 활동에 의식적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생산에서의 그들의 제 관계는 의식을 통해서 설정되며 따라서 그것은 의지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식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들 호상간의 관계라는 사실로부터는 생산 관계가 의지적 관계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공존 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은 다소라도 복잡한 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그리고 특히 자본주의적 구성에 있어서는 그 경우에 어떠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가, 어떠한 법칙에 따라서 그것이 발전하는가 등등의 사실은 의식하지 못한다》(레닌 전집, 14권,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6년 판, 431페지). 이와 같이 생산 관계는 생산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람들 간의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물질적 관계이므로 이 물질적 관계의 변혁에 의해서만 새로운 생산 관계를 확립할 수 있다.

력사상의 생산 관계에는 본질상 두 개의 류형이 있는바 그 하나는 착취와 피착취, 지배와 복종의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호상 협력과 호상 원조의 관계이다. 례컨대 노예 소유 제도, 봉건 제도 및 자본주의 제도하에서의 생산 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인바 이것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직접적 생산자들로부터의 생산 수단의 분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근절된 사회주의 사회의 조건하에서의 생산 관계는 착취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의 동지적 협력 및 사회주의적 호상 원조의 관계이다.

력사상에는 한 형태의 생산 관계로부터 다른 형태의 생산 관계에로의 과도적 관계도 있다. 이것은 계급 사회가 확립되는 시기에 볼 수 있었는바 씨족 공동체에 대체하여 나타난 농촌 공동체(일례로 게르만 종족의 마르크)에서 형성된 관계였다. 농촌 공동체의 특징은 사'적 소유와 함께 공동체적 소유가 병립했다는 점이다. 생산 관계의 과도적 형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도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과도기에 존재하는 모든 경제 형태들을 모두 과도적 형태의 생산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과도기와 생산 관계의 과도적 형태와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례컨대 과도기에 존재하는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나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는 결코 과도적 생산 관계가 아니다. 이 경우에 과도적인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소상품 생산을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개조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관계이다. 이것은 소농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 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례컨대 우리 나라의 농업 협동화 운동의 초기에 있었던 제 2 형태를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산 관계는 그것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든지 간에 사회 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언제나 생산력과 함께 생산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된다. 생산은 언제나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수준과 사람들 사이의 일정한 생산 관계하에서 일정한 구체적, 력사적 형태 속에서 진행된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통일은 생산 방식을 이룬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는 내용과 형식으로서 생산 방식의 두 측면이다. 력사적으로 규정된 매개 생산 방식은 일정한 생산력과 력사적으로 규정된 생산 관계와의 통일의 구현이다.

한 생산 방식의 다른 생산 방식에로의 이행은 부단히 발전하는 생산력의 성격에 상응하는 새로운 생산 관계의 확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인류 력사는 지금까지 다섯 개의 생산 방식: 원시 공동체적, 노예 소유자적, 봉건적, 자본주의적,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을 경과하면서 발전하여 왔으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물질적 부의 생산 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소여 사회의 제도가 규정된다. 또한 생산 방식 여하에 따라서 계급들 간의 호상 관계의 성격, 지배적 사상, 정치적 및 법률적 기관의 성격들도 규정된다. 례컨대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와 같은 적대적 계급에로의 사회의 분렬을 조건지으며 정치적, 법률적, 종교적, 예술적 견해들과 그에 상응하는 기관들을 규정한다. 그리하여 생산 방식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조만간 전체 사회 구조가 변하며 한 사회 제도로부터 다른 사회 제도에로의 이행이 수행된다. 그러나 그 이행이 바로 어떤 제도에로 이행하는가 하는 것은 결코 사람들의 주관적 의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달된 물질적 생산의 발전 수준에 의존한다. 낡은 사회의 태내에서 물질적 조건이 성숙되기 전에는 사회의 새로운 형태는 발생할 수 없다. 한 사회 형태로부터 다른 사회 형태에로의 이행은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변혁의 방법으로, 낡은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 제 관계를 옹호하는 로후한 반동 계급들을 반대하는 사회의 선진적 계급들의 치렬한 계급 투쟁에 의하여 진행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 사상 정치적 견해 및 그 기관 등의 근원은 반드시 소여 사회의 물질적 제 조건에서, 그 중에서

도 물질적 부의 생산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자기 활동에서 인간 리성의 그 어떤 추상적 원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구체적 조건으로부터 특히 사회 발전의 규정적 력량으로서의 주어진 생산 방식의 제 조건으로부터 출발한다.

실지로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자기의 활동에 있어서 사회의 물질적 생활 발전의 과학적 리해에 립각하였으며 언제나 현실 생활, 근로 대중의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였다.

8.15 해방후 우리 당의 령도하에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토지 개혁, 중요 산업 국유화 등 일련의 민주 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1947년 2월에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북조선 인민 위원회가 수립되였다. 이렇게 제반 민주 개혁이 완수됨으로써 북조선에서는 점차 사회주의에로의 과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였다. 만일 민주 개혁과 같은 물질적인 변혁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사회주의에로의 과도에 들어 설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전후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제 1차 5개년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게 되였다. 1957년에 공업 총생산액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차지한 비중은 98.7%에 달하였으며 소매 상품 류통 총액에서는 87.9%에 달하였다. 현재 농촌 경리에서도 이미 총농가 호수의 98.6% 이상이 협동화되였다. 이렇게 도시와 농촌에서는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며 전체 근로자들이 착취로부터 해방되여 자기 생활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조성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3차 회의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 결정에서와 인민 경제 발전 제 1차 5개년(1957—1961) 계획에 관한 법령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계획 기간에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가 더욱 튼튼해지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한사람같이 당 정책을 지지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물질적 담보로 되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천리마를 타고 앞으로 내닫고 있다.

우리 당을 비롯한 각국의 공산당과 로동당들의 불패의 위력은 바로 이 당들이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사회의 물질적 생활 제 조건에 대한 력사적 유물론의 제 명제를 자기의 정책적 기초로 삼는 데 있다.

⟵══ ☆ ══⟶

독자의 편지

탐구된 새 품종은 지체 없이 생산에로 전환시켜야 한다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는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획기적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식료품 가공 공업과 일용품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켜 장성하는 인민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그리고 다각적으로 충족시킬 데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청진시 당 위원회는 6월 전원 회의 결정을 자체의 실정에 적합하게 구체화하기 위하여 청진시 내의 공장들과 생산 협동 조합들에서의 식료 가공품과 일용품의 생산 정형을 검토 총화하였다.

이에 의하면 일부 공장과 생산 협동 조합내 일부 일'군들은 식료 가공품 및 일용품의 생산과 품종 확대에 대하여 그릇된 주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일부 일'군들은 기본생산만 잘 보장하면 된다는 데로부터 부산물과 페설물을 리용하여 일용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를 극히 차요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우기 그들은 일용품과 식료 가공품의 품종 확대, 부산물과 페설물을 리용함에 있어서 대중과 더불어 의논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주의적 의도에 사로잡혀 생산 조직을 추진시키지 않고 있었다.

특히 청진시는 해안 지대이므로 여러가지 수산물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었다.

청진시 당 위원회는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6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을 지도 일'군들과 근로 대중 속에 철저히 해석 침투시키는 동시에 일부 지도 일'군들의 그릇된 주관주의적 사업 방법을 개선하고 식료 가공품과 일용품의 품종 확대를 위한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우리 시 당 위원회는 지도 일'군들에게 6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을 명확히 침투시키며 그들을 사상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강연회를 조직하였다. 한편 인민 경제 각 부문별 선동원 202명을 동원하여 군중 속에서 6월 전원 회의에 대한 해석 선전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해석 선전 사업에 공장, 기업소 지도 일'군들과 직공장, 브리가다장 및 분조장들을 인입한 것이 효과적이였다. 그것은 그들이 6월 전원 회의 결정을 군중 속에 해석 침투시킴에 있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장 형편 그리고 자기들이 지난 날 갖고 있던 식료 가공품과 일용품 생산에 대한 태도를 결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 조직의 결과에 근로자들 속에서는 수 많은 창발적 의견들이 제기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일부 일'군들이 갖고 있던 주관주의적 사업 태도들이 시정되기 시작하였다.

지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6월 전원 회의 결정의 성과적 실천을 위한 열성과 기세는 더욱 앙양되였다. 모든 사업의 성과 여부는 대중의 창발성과 당의 조직 지도 사업과의 옳은 결합에 달려 있다.

우리 시 당 위원회는 대중의 앙양된 열성에 당의 조직 지도 사업을 앞세우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취하였다.

우선 식료 가공 공장과 일용품 생산 공장들의 6월 전원 회의 결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정권 기관, 경제 기관 일'군들

로써 예비 탐구 그루빠를 조직케 하였다. 이 그루빠는 중공업 부문, 경공업 부문, 지방 산업 부문, 식료 가공 부문, 수산물 가공 부문, 생산 협동 조합 부문 등으로 조직하였다. 그들은 해당 부문에 파견되여 주로 예비를 적발 동원하며 제품의 질 제고와 시제품 생산의 조직, 위생 문화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지도하였다.

이 예비 탐구 그루빠의 지도하에 공장, 기업소에 예비 탐구 그루빠가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매 공장, 직장, 브리가다별로 식료 가공품 및 일용품들의 품종을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품종 확대 협의회가 조직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매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창안 운동과 품종 확대에 대한 현상 모집 사업도 활발히 조직하고 있다.

우리 시 당 위원회는 식료 가공품과 일용품의 품종을 확대하며 그의 예비를 탐구하기 위한 사업에 직접 생산자들의 지혜와 열성을 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의 지혜도 동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시내의 공장, 기업소 일'군들을 동, 리의 인민반에 파견하여 직접 수요자 대중과의 협의를 가지도록 하였는바 김책 제철소, 방적 공장을 비롯한 17개의 공장, 기업소, 생산 협동 조합 일'군들이 23개의 인민반에 나가서 수요자와의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이 협의회들에서는 식료 가공품과 일용품에 대한 광범한 의견들이 제기되였는데 그 중 많은 것들이 생산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각 공장, 기업소, 생산 협동 조합들은 인민들의 생활상 어떠한 식료 가공품과 일용품들이 요구되며 그의 내용과 질이 어떠한 생활상 편의를 줄 수 있겠는가를 대체적으로 료해 파악할 수 있었다.

청진시 당 위원회의 이상과 같은 조직 정치 사업과 대중들의 적극적인 창발성에 의하여 시내 60 여 개소의 공장과 기업소들에서 1,400 여 종의 식료 가공품과 일용품의 품종 확대를 위한 예비가 탐구되였다. 이것은 6월 전원 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아주 첫 걸음에 불과하다.

이미 탐구된 품종들을 실지 생산에로 지체없이 전환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섰다.

그러므로 우리 청진시 당 위원회는 각종 품종들의 시제품의 모범 생산을 각 인민 경제 부문별로 조직하도록 관심을 돌리였다. 그리하여 생산된 시제품들로써 시제품 전람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이 전람회를 통하여 각 부문별 생산자들은 서로 경험을 교환하였고 창의 고안자들의 경험도 광범히 소개 선전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광범한 수요자 군중들에게 앞으로 생산될 품종들을 소개 선전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와 의견들을 받아 들이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시제품 전람회를 통하여 호평을 받은 품종들은 해당 공장들에서 속속 생산에로 전환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시 당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식료 가공품의 공급에 필요한 용기의 생산 보장에 십중한 주의를 돌렸다.

정권 기관을 통하여 시적으로 소요되는 용기의 수량과 규격을 조사 장악케 하고 용기의 자재를 지방 원료 원천으로써 해결하도록 하였다. 화학 공장, 조선소, 강덕 요업 공장, 농기구 공장, 선박 수리 공장, 토기와 생산 협동 조합들에서 다종다양한 규격의 목통, 유리그릇, 토기 등의 생산을 조직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들은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가 강조한 바와 같이 식료품 가공 사업을 전문 식료 공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함에 있어서 녀맹 단체들의 역할을 적극 제고하였다. 시, 동, 리 녀맹 단체들을 통하여 실지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식료품 가공 대상을 선택하며 간단한 방법으로 농촌과 가정에서도 가공할 수 있는 품종들을 적극 탐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농촌이나 가두에서 능히 가공할 수 있는 식료품들의 가공 처리 방법을 보급시키며 그러한 시제품들의 전람회도 조직하도록 하였다.

실례로 시내 해방동 민주 선전실에서는 옥수수 가공품 112종을 만들어 전시하고 시민들에게 가공품들의 가공 방법까지 세밀히 전습시켰으며 시 상업 관리소와 시 녀맹 단체들은 녀성들의 창발적 지혜로써 자반류와 젓갈류를 비롯한 270 여 종의 품종을 탐구하여 생산에로 전환시키고 있다.

우리 시 당 위원회의 상술한 바와 같은 조직 정치 사업에 의하여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 결정은 시내 근로 대중 속에 침투되여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정한 성과가 달성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 후에만도 방적 공장과 조선소를 비롯한 기타 공장과 기업소들에 일용품 생산 직장이 6개, 브리가다 7개가 새로 조직되였으며 지금 시내의 60 여 개의 공장, 기업소, 협동 조합들이 식료 가공품과 일용품을 생산하고 있다.

시내 식료 공장, 수산 사업소, 식료 생산 협동 조합들에서는 새로 어물 훈제품을 다량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기간 보관하여도 부패 변질하지 않을 뿐더러 영양가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요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그들은 이외에도 전채, 산채 가공품을 비롯하여 600 여 종에 달하는 식료 가공 품종을 탐구하여 생산에로 전환시키고 있다. 청진 방적 공장에서는 인견사와 파스프를 리용하여 170 여 종의 아동 편직 내의, 아동모, 아동 양말 등의 시제품을 만들었고 그 중 아동용 양말, 양복쪼끼, 롱구 및 탁구 베트를 비롯한 10 여 종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 섰다. 조선소에서는 일용품 생산 직장을 새로 조직하고 절두목과 폐설물을 리용하여 용기, 완구 등 70 여 종의 품종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들은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 결정을 자체의 실정에 적응하게 구체화시켜 지난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성과는 우리가 앞으로 6월 전원 회의 결정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한 초보적 토대를 닦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지난 날 상급 당의 지도하에 식료품 가공업과 일용품 생산의 보장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여 우리 시 당 위원회의 6월 전원 회의 결정 집행을 위한 사업에는 아무런 결함과 편향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시내 일부 당 및 행정 지도 일'군들은 당 경제 정책——6월 전원 회의 결정 집행에서 높은 당성을 고수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중공업 기업소 당 및 행정 지도 일'군들은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획기적 조치로서의 6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을 아직도 깊이 파악하지 못한 데로부터 기본 생산 계획의 달성에만 급급하면서 일용품 생산을 차요시하는 그릇된 경향을 퇴치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식료품 공장 당 및 행정 지도 일'군들은 또한 《정식 지표가 없는데 앞으로 계속 생산할 수 있겠는가》, 《시제품은 만들었지만 장기적이고 본격적인 생산은 곤난하다》 등등으로 6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반신반의하는 엄중한 현상을 발로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당 경제 정책 집행에서 당성을 고수하지 못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은 시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그치고 그를 시급히 생산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을 아주 굼뜨게 강구하는 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일례로서 시내 선박 수리 공장 일'군들은 목제 용구의 시제품은 이미 만들어 놓고도 최근에 와서야 겨우 생산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하나의 편향은 일부 당 및 행정 지도 일'군들이 식료 가공품과 일용품의 예비를 탐구하는 사업을 형식적으로 조직 지도하는 그것이다.

일부 일'군들 속에서는 6월 전원 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최근 2개월 간의 투쟁에서 마치도 품종 확대를 비롯한 기타 예비들이 남김없이 적발 동원되였다는 주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예비의 부단한 탐구를 위한 조직 기술적 방책들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현상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는 지방 원료 원천을 광범히 동원하기 위한 사업에 전체 인민들을 인입

하여 그들의 지혜의 도움을 받으며 실지 현지에 접근하는 사업을 등한시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원료 원천들이 효과적으로 동원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일부 경우에는 조직 기술적 대책의 부족으로 가공품 대상의 계절을 잃어 버리고 있다.

나타난 편향의 또 하나는 일부 당 및 행정 지도 일'군들이 식료 가공품과 일용품의 질 제고에 관심을 적게 돌리는 그것이다.

6월 전원 회의후 우리가 새로운 제품들, 특히는 식료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만큼 큰 주의가 제품의 질 제고에 돌려져야 되겠음에도 불구하고 질이 낮은 것들이 적지 않다. 일부 직장에서 생산한 완구들은 수요자에게 공급되기 전에 사용 가치를 잃어 버리며 인견사는 일정한 섬도가 보장되지 못하여 편직물을 짜면 고르지 못하며 식료품들은 위생 문화 수준이 낮고 된장 등은 맛이 변하는 등등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적지 않은 공장에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그리고 제정된 표준 조작법을 준수하지 않고 되는 대로 식료 가공품을 만들므로써 그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실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청진시 당 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그릇된 경향과의 꾸준한 투쟁 속에서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 결정을 당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고 있다.

조선 로동당 청진시 위원회
위원장 태 경 룡

《근 로 자》 제 8호 (루계 제 153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인 쇄 1958년 8월 10일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 1958년 8월 15일

ㄱ—41 058 값 45 원